

기초연구 2004-03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조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문화재단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 교육벨트 조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명 : 여럿이함께만드는 학교

책임연구원 : 김종수(아힘나 교육문화연구소장)

참여연구원 : 조진경(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대표)

전원길(소나무갤러리 대표)

최예문(소나무갤러리 기획부장)

강원재(서울시 대안교육센터 기획전문위원)

연구 요약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환경의 특색을 살려서 자치단체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자원을 발굴·보전하여 관광기반으로 육성하고, 역사문화권을 조성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망을 통해 벨트를 조성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분야의 진흥과 함께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벨트화가 자칫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만 천착될 때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광벨트가 지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위한 깊이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풍부한 안성지역을 이번 논문의 지역연구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두 차례의 설문을 통한 실태 및 욕구조사 그리고 간담회 및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본 논문은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연구 방법과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장은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안성지역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벨트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시설 및 학습공동체,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 및 창작 스튜디오의 운영 및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성 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환경요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세 번째 장은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 장은 크게 3개의 절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 절에서는 안성 시내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를 조사 대상으로 벌인 설문 “학교에서의 특기적성(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절에서는 안성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현황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예총 안성시 지부 산하 문인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미술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및 비회원예술인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이는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과 문화예술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공급자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라 할 수 있다. 이 장의 마지막 절은 앞서 실시한 설문 분석 자료와 더불어 관련 기관 탐방, 인터뷰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몇몇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코자 하였다.

네 번째 장은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개발의 기본방향과 더불어 다양한 벨트를 사례로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논의되는 벨트의 유형으로는 크게 6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생태체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지역 미술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벨트’, ‘청소년의 힘으로 축제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벨트’, ‘안성맞춤의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문화예술·교육벨트’, ‘공동체적 삶을 배우는 마을중심 문화예술·교육벨트’가 그것이다. 이들 벨트의 유형에는 각각 그에 맞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본문의 마지막 장인 제 5장에서는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벨트의 구체적인 실행을 전문적으로 맡게 될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운영계획을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벨트의 단계적 실현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의 출발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5
II. 안성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환경분석 ..	7
1. 안성의 개괄적 이해	7
2.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유형	10
3. 평생교육시설 및 학습공동체의 운영 및 학습프로그램	20
4. 문화예술공간 및 창작스튜디오에서의 활동 및 학습프로그램	27
III.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수요 분석	35
1. 학교에서의 특기적성(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욕구조사	35
2.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창작활동	44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과제 개발	79
IV.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개발의 기본방향과 설정 ·	93
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개발의 기본 방향	93
2. 문화예술·교육벨트의 구성요소	94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설정	95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단계적 실천 방안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통하여	166

V.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 교육벨트의 운영방안	
- 문화예술 · 교육협동조합	168
1. 대안적 생활문화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의 의의	169
2. 문화예술 · 교육협동조합의 설립 취지	171
3. 문화예술 · 교육협동조합의 운영 계획	172
VI. 결 론	190
참고문헌	192
부 록	193
설문 1. “안성지역의 문화예술 · 교육기반시설 및 운영현황(개인)”	197
설문 2. “학교에서의 특기적성(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욕구조사” ..	211

표 목 차

<표 I-1>	문화예술·교육벨트 운영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	3
<표 II-1>	안성시내 인접 문화예술·교육기반	14
<표 II-2>	문화재현황	16
<표 II-3>	안성시의 학교 현황	20
<표 II-4>	안성시의 대학 현황	21
<표 II-5>	사회교육기관 현황	21
<표 II-6>	기관/시설물	22
<표 II-7>	안성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	23
<표 II-8>	안성시립도서관의 시설 규모	24
<표 II-9>	안성시립도서관의 층별 현황	24
<표 II-10>	안성시 지역별 예술인 분포	27
<표 II-11>	활동분야별 예술인 수	27
<표 II-12>	안성맞춤워크숍 주간일정	30
<표 II-13>	2004 여름 바우덕이 캠프	31
<표 II-14>	2004 소나무S 갤러리 프로그램	32
<표 III-1-1>	특기적성 및 방과 후 교육의 여부	36
<표 III-1-2>	학습자의 선호도	36
<표 III-1-3>	강사의 분류	37
<표 III-1-4>	학습비	37
<표 III-1-5>	프로그램의 횟수(한 주간)	38
<표 III-1-6>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기획시 우선순위	39
<표 III-1-7>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실시 횟수(주 당)	40
<표 III-1-8>	기관과의 연계 시도	40
<표 III-1-9>	프로그램의 연계 사례	41
<표 III-1-10>	타 기관과 연계하지 못한 이유	41
<표 III-1-11>	프로그램 정보제공 필요 여부	42

<표 III-1-12> 정보 활용 여부	42
<표 III-2-1> 총 응답 인원	45
<표 III-2-2> 응답자의 성별 구분	46
<표 III-2-3> 응답자의 장르별 구분	46
<표 III-2-4> 응답자의 연령 구분	47
<표 III-2-5> 응답자의 거주, 작업실 소재지	48
<표 III-2-6> 응답자의 활동 기간	48
<표 III-2-7> 응답자의 안성거주 기간	49
<표 III-2-8> 창작활동의 여부	50
<표 III-2-9> 창작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50
<표 III-2-10> 창작활동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	51
<표 III-2-11> 창작활동에서 느끼는 문제	51
<표 III-2-12> 독립된 창작공간의 보유 여부	52
<표 III-2-13> 독립된 행사공간의 보유 여부	53
<표 III-2-14> 안성시를 작업장으로 선택한 이유	53
<표 III-2-15> 문화정체성과 자부심 형성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기여 정도	54
<표 III-2-16> 문화예술인들의 안성지역 문화행사의 참여 정도	55
<표 III-2-17> 타 지역의 단체나 기관의 참여 여부	55
<표 III-2-18> 타 지역의 단체나 기관에 참여하는 이유	56
<표 III-2-19> 안성의 활동여건에 대한 만족도	56
<표 III-2-20> 창작예술인으로서 느끼는 안성시의 만족도	57
<표 III-2-21>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의 불만족 원인	58
<표 III-2-22> 청소년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평가	59
<표 III-2-23> 안성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60
<표 III-2-24> 지역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참여 여부	60
<표 III-2-25> 자치행정기관의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	61
<표 III-2-2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 여부	61
<표 III-2-27>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의 충돌 여부	62
<표 III-2-28>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62

<표 III-2-29> 청소년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과제	63
<표 III-2-30> 안성의 문화예술 환경 혹은 정책의 만족도	64
<표 III-2-31>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의 개선 과제	65
<표 III-2-32> 문화예술인들의 대중화 노력 여부	66
<표 III-2-33>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형태	67
<표 III-2-34>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만족도	67
<표 III-2-35> 대중화를 위한 시도 여부	68
<표 III-2-36> 대중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69
<표 III-2-37> 문화예술인들 간의 새로운 교류 형태의 필요여부	70
<표 III-2-38> 문화예술인간의 교류형태 참가희망 분야	70
<표 III-2-39>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	71
<표 III-2-40>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내용	71
<표 III-2-41>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의 필요성 여부	72
<표 III-2-42> 네트워크를 통한 벨트 프로그램 운영시 유의사항	73
<표 III-2-43>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여부	74
<표 III-2-44> 프로그램 운영시 활동가능한 시간대	74
<표 III-2-45> 프로그램 참여시 유·무료 여부	75
<표 III-2-46> 참가 희망 분야	75
<표 III-2-47> 대어나 교환사용이 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	76
<표 III-2-48>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 기여 분야	77
<표 III-2-49>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혹은 작가	78
<표 III-3-1> 특기적성(방과 후) 교육 선호도	80
<표 III-3-2> 문화예술·교육시설과 연계 여부	81
<표 III-3-3> 문화예술·교육시설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	81
<표 III-3-4> 특기적성교육을 새롭게 기획할 때의 우선순위	82
<표 III-3-5> 맞춤형 특기적성교육 정보제공 희망 여부	82
<표 III-3-6>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85
<표 III-3-7> 대중화를 위한 시도 여부	85
<표 III-3-8>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만족도	86

<표 III-3-9>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형태	86
<표 III-3-10> 대중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88
<표 IV-1> 문화예술·교육벨트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성요소	95
<표 IV-2> 자연생태지도 제작활동 구성내용	116
<표 IV-3> 동아방송대학의 동아리	128
<표 IV-4> 장인정신 체험활동의 구성	149

그림 목차

<그림 II-1> 안성시 지도	8
<그림 II-2> 안성지역 무형문화재	13

I.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환경의 특색을 살려서 자치단체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를 문화적으로 보전(保全)하고,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문화생산을 전진기지로 또는 삶의 건전한 소비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즉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관광기반으로 육성하는 일, 역사문화권을 조성하는 일,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망을 통해 벨트를 조성하여 합목적적이고 복합적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 벨트화 작업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분야의 진흥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관광객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벨트화와 문화 인프라 구축의 방향을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만 천착하게 될 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오랜 전통의 생활양식은 화석화(化石化)되어 시간적인 단절을 맞게 되고, 마을공동체는 박제(剝製)된 박물관이 되어 생명력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성장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조성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공식적인 체험활동은 한 두 번의 수학여행과 학기 중에 있는 특별활동(CA) 그리고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개설되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은 기대를 안고 떠나는 수학여행은 학령기를 보낸 이들이 대부분 경험해 왔던 것처럼 진정한 체험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로 즐거워했던 기억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해진 코스를 따라 무리들 속에서 눈으로 잠시 스치듯 관광하며, 잠시 머물러 찍은 사진 몇 장만으로 '내가 다녀온 곳'이라는 위안을 삼게 된다. 이것이 체험학습의 일반적인 스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벨트는 이러한 관광이 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깊이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문화예술·교육벨트의 개념부터 정립하도록 하자. 교육벨트란 일정한 지역과 공간에서 특정한 교수매체를 통하여 일관된 목표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려는 교육적 시도이다. 이러한 연계의 소재가 되는 것은 교육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개인 작업장과 같은 시설자원과 교육인, 문화예술인, 지도자 및 전문 인력 등과 같이 지적 문화적, 기술능력을 지닌 인적자원, 그리고 교육활동, 문화예술작품과 같은 프로그램자원이다. 그리고 사회, 역사, 문화, 자연 등 프로그램에 활용될 환경자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시민단체, 교육단체, 청소년유관단체 등과 같은 조직자원을 포함한다.

문화벨트란 문화적 특성을 지닌 환경자원이나 문화시설 등 문화거점지역을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¹⁾ 이외에 문화예술의 수요자들과의 만남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전시회,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연계하려는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제시된 벨트는 단순한 관광을 의미하는 'Travel'과 꼭 짜여진 일정에 의해 움직이는 'Tour'의 양자의 의미를 내포

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2000, p. 12.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벨트화한 수학여행은 짝 짜여진 일정에 의해 단순한 관광을 할 수 밖에 없는 무리한 여행이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획사에서 제공하는 문화벨트에서도 보여 지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과도한 일정을 넣음으로써 관광(觀光)상품으로서의 기능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벨트란 일반적인 문화벨트의 개념 위에 교육적 접근을 접목하여 관광(觀光)적인 요소보다는 학습적인 요소를 보다 강화하여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작업을 위해 시설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자원, 조직자원, 환경자원, 재정자원 등과 같은 문화예술·교육벨트 운영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적 지원체제라 할 수 있다.

<표 1-1> 문화예술·교육벨트 운영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인적자원	교사, 문화 예술인, 전문인,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 복지사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시설자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스튜디오, 공연장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활동 공간
조직자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및 유관기관
환경자원	자연, 역사, 문화 등 프로그램에 활용될 환경자원
재정자원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의 재정자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란 단순히 지역과 지역, 혹은 공간과 환경을 기계적으로 연계한 것만으로는 다양한 체험을 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표현으로서의 문화체험 활동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 체험내용이 구성되고 이를 교육적이고 문화적으로 접목시켜갈 때,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기르게 될 것이며, 자발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세대(청소년)들에게 물려 줄 도시와 마을 공동체가 왜 생명이 상생해야 하고, 미래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공존해야 하며, 풍부한 감성으로 창조적인 미(美)의 추구가 지역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체험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연구자에 연구 활동이나 발표된 문건의 인쇄본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문화주체들의 상시적 만남을 통해 늘 새로운 벨트가 만들어지고 체험되며 다시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벨트설정에 관한 연구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민(民) 주도의 자발적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운영조직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소비자 및 생산자 집단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상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벨트는 늘 새롭게 생성되고 변화되어 안성지역의 전반적인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개선효과 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역사·문화적 자원을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까지도 함께 공유²⁾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 연

2) '공유'라는 표현은 내셔널 트러스트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환경을 공동 매입하는 것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적 가치가 있는 전문인의 교습(敎習)이나 기획 프로그램이 원하는 이들에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출자금과 교습(敎習) 및 프로그램의 참가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생산자들에게 보전해 주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상업성을 배제한 원활한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구는 현장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적인 활동과 방향의 보고이기도 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실행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현황조사 및 요구조사 그리고 인터뷰 및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교육벨트의 필요성과 그 운영체로서의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성지역의 자연환경, 사회 환경, 문화 환경, 교육 환경 등의 일반적 현황을 문헌자료를 토대로 조사한다.
-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의 현황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 안성지역 문화예술·교육기반시설의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 평가, 진단의 단계로 앞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조사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문화예술·교육시설들의 프로그램운영상황 및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상위관련계획,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벨트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교육주체들과 문화예술인과의 인터뷰 및 간담회를 통해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및 잠재력을 검토하여,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교육벨트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진단자료 등을 토대로 안성지역의 시민단체, 의제, 공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벨트화 계획을 수립한다.
- 문화예술·교육 벨트의 방향은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요소가 포함되며,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지원 속에서 그 가능성을 검증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실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추진과정을 제시하였다.

- 문화예술·교육벨트가 안성지역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련의 추진과정을 제시한다.
- 문화예술·교육벨트가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이며 운영체로서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제안하고 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예술·교육벨트는 초창기에는 안성지역 청소년을 위한 것이지만 벨트의 자원을 안성을 넘어선 수도권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참여자 역시 안성지역 청소년을 넘어 수도권, 전국,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개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벨트는 늘 새롭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또한 새로운 벨트가 만들어져 풍성한 벨트 프로그램 뱅크(BANK)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II. 안성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환경 분석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환경 분석의 목적은 안성 전역에 분포된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활동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안성의 다양한 자원을 모두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어떻게 벨트화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미 설정된 지역사회 각 분야의 발전적 전망으로 발표된 의제들은 문화예술·교육 벨트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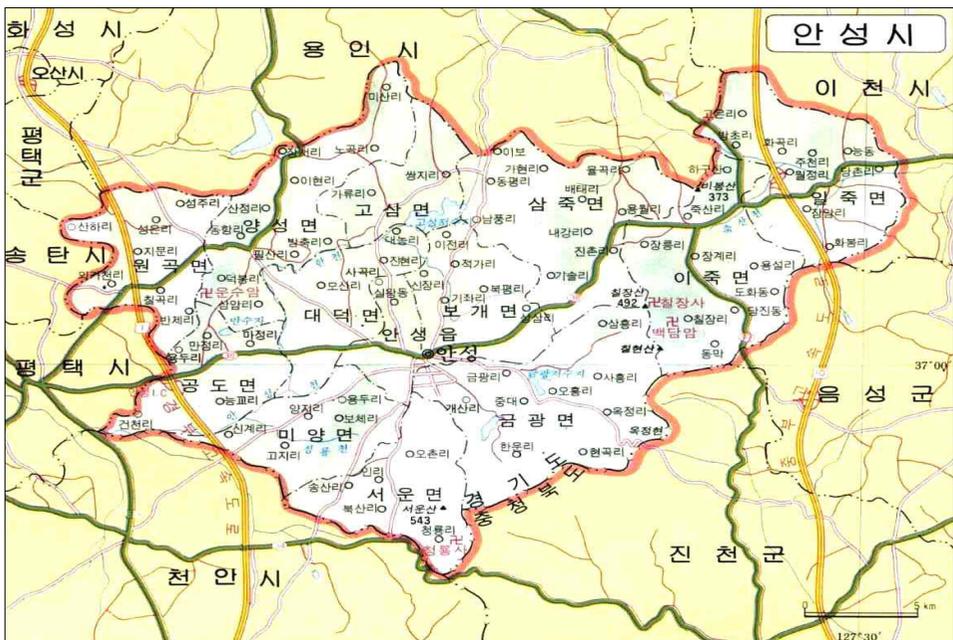
기본적인 문화예술·교육자원이 될 기초 자료조사는 안성시와 단국대학 중앙박물관에서 1999년에 펴낸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성문화원에서 2003년에 펴낸 『안성 향토 사료집』, 그리고 안성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³⁾와 다양한 관점에서 한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객관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한 지방의제 『푸른 안성맞춤 21』의 환경 분과의 보고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 안성의 개괄적 이해

안성시는 경기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서 면적은 554.25km² 인구는 2001년 기준으로 13만 6,590명이다. 인구밀도는 2001년 기준으로 246명/km²이며 경기도에서 보통에 속한다. 가구수는 4만 4,959세대로 그리 많지는 않

3) 안성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anseong.go.kr>.

다. 행정구분으로는 2읍 12면 3동이다. 동쪽은 이천시, 서쪽은 평택시, 남쪽은 천안시, 북쪽은 용인시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 용인시와의 경계 부근에는 구봉산(九峰山:465m), 비봉산(飛鳳山), 쌍령산(雙嶺山) 등의 구릉성 산지가 이어진다. 시의 남서쪽과 북동쪽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지는데 특히 남서쪽의 안성평야는 넓고 비옥하다. 주요 하천으로는 안성천 수계에 속하는 한천(漢川), 청룡천(靑龍川)과 남한강(南漢江) 수계에 속하는 청미천(淸美川), 죽산천(竹山川), 금강(錦江) 수계에 속하는 칠장천(七長川), 개좌천(介座川) 등이 있다.



<그림 II-1> 안성시 지도

안성은 중부 내륙 지방으로 여름에는 무덥고 습도가 높으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연 평균 기온이 11.2℃로 생활하기에 알맞으나 연중 기온 차이가 27.1℃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이다. 연중 쾌청한 날

이 230일 정도로 일조량이 많아 농사짓기에 알맞은 기후이다. 연중 강수량은 1,200mm이고 6~8월에 집중되어 벼농사를 비롯한 농작물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곳곳에 관개 시설을 하여 예로부터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적은 고장이다.

안성은 13만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다. 인구 밀도가 221명/km²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 보다는 낮으나 농촌 지역의 인구 밀도와는 비슷하다. 안성시의 인구 분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안성의 중심 지역인 안성시 3개동의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지와 저수지가 많은 금광면, 고삼면의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다. 성별 인구 구성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가 많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경제 활동이 왕성한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연령층이 많다. 인구 변동은 안성시 3개동과 공도면의 인구가 주택 단지의 증가로 늘어나고, 그 밖의 지역은 감소하고 있다.

안성 특산품으로는 안성 포도가 유명하여, 이는 90여 년 전 프랑스 신부가 들여온 마스카트 품종을 삼덕포도원(현 안법 고등학교 옆)에 재배하면 서부터 안성 지역에 널리 보급되었다. 거봉과 다노렛트를 주로 재배하며, 매년 포도 축제를 열고 있다. 또한 낮은 구릉과 깨끗한 환경, 대도시 근교라는 이점 때문에 축산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동화 시설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안성은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안성 유기 그릇 맞춤에서 시작되었을 정도로 주물 유기법으로 제작되는 유기로 유명하다.

그 외 안성은 경기 남부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선조들이 물려준 풍부한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과 무질서한 공장 건립 등으로 인해 안성의 훌륭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산림과 농경지 개발로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는 인구 유입으로 생물서식환경이 파괴되어 조류, 포유류, 자생동식물 등의 개

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안성시 푸른 안성맞춤 21의 환경분과는 생태계를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최후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모든 개발에 있어 생태계 보전을 우선 과제로 정해 “야생 동·식물이 살아나는 도시”로 의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제를 설정하였다.⁴⁾

- 백로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생태도시를 만들자.
- 생명의 서식처인 아름다운 숲을 지키자.
-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하고 강태공이 낚시하는 안성천을 만들자.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활의식을 실천하자.

이와 같은 의제는 각 의제별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행시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유형

문화예술·교육자원은 일반적으로 ① 인간의 삶과 어우러진 자연환경, ② 보편적인 인간 완성의 상태나 과정 추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종교와 신앙, ③ 지적, 예술적 활동의 산물인 학술과 예술, ④ 특정지역과 집단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민속, ⑤ 사회질서와 가치체계의 형성에 기여해온 정치·군사적 유물, ⑥ 지역의 독특한 산업·경제적 산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 종교·신앙, 학술·예술, 생활·민속, 정치·군사, 산업·경제 등 문화자원 분류체계의 세로축을 중심으로 학술적인 의미나 문화의 자

4) <http://www.ansung21.or.kr/natural/default.asp>

원적 가치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하나는 인물, 동·식물, 문화행사, 축조물, 유적·사적, 명소·명승, 문화시설, 회화 등 문화자원의 분류체계의 가로축을 중심으로 학술적, 관광적 가치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자원의 내용적 속성을 기반으로 '생활양식' 중심의 구성방식이고, 후자는 문화자원의 물리적 형태에 초점을 두고 문화자원의 '형태'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연계하면 총체적 문화자원이 파악된다.⁵⁾

여기서는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자원을 '생활양식'과 '형태'로 구분하여 그 유형을 예시하기로 한다.

1) 생활양식 유형으로 본 문화예술·교육 자원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자원을 6가지의 생활양식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환경

안성지역에 소재한 산으로는 칠장산, 서운산, 청룡산, 비봉산, 칠현산, 망이산, 서운산, 고성산이 있으며, 하천으로는 안성천이 흐르고 있다. 호수로는 고삼호수, 청룡호수, 금광호수, 용설호수, 저수지로는 칠곡, 만정, 이동, 노곡, 미산, 덕산, 두메, 마둔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다.

관광농원으로는 개미농장, 꿈동산농원, 금광관광농원, 서일농장, 오하관광농원이 있으며, 공원으로는 안성공원, 안성맞춤가족공원, 솔밭공원, 대림동산이 있다.

5) 황동열 외,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정책과제 2000-9)』, 2000, p. 25.

② 종교와 신앙

종교 및 신앙과 관련된 자원으로는 우선 사찰과 그에 딸린 부속건물을 들 수 있는데, 사찰로는 칠장사, 청룡사, 석남사, 용화사, 청원사, 쌍미륵사, 운수암, 도피안사가 있으며, 부속 건물로는 칠장사 혜소국사비, 청룡사 동종, 청룡사 대웅전, 석남사 영산전이 있다. 앞서 언급한 사찰에는 문화재에 해당하는 탕화를 소장하고 있는데, 칠장사의 오불회괘불탱, 삼북회괘불탱과 청룡사의 영산회괘불탱, 감로탱이 그것이다.

또한 안성지역에는 불상과 탑, 미륵불이 자리하고 있는데, 우산 불상으로는 안성봉업사의 석불입상과 대농리의 석불입상이 있으며 탑으로는 안성 죽산리 5층 석탑이 유명하다. 미륵불은 주로 토속신앙과 관련된 것들인데, 쌍미륵과 궁예미륵, 태평미륵, 이양동미륵이 있다. 이밖에도 순교지 및 성지로 미리내성지, 죽산성지, 구포동 성당이 알려져 있다.

③ 학술과 예술

학술 및 예술 자원 중 우선 문학과 관련된 기념비로는 편운재 문학관과 문학비 그리고 박두진 문학비가 있으며 지역 향교로는 죽산향교, 양성향교, 안성향교가 있다. 지역 예술제로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야외종합축제인 죽산무천캠프 그리고 예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테마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전위예술축제로 죽산국제예술제가 있다. 그 외 문화재로는 백동연죽장, 입사장, 유기장, 안성남사당풍물패, 안성 향당무, 태평무가 유명하다.



<그림 11-2> 안성지역 무형문화재

④ 생활양식과 민속

안성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으로는 음력 8월 한가윗날 달밤에 부락민들이 모여 함께 즐기며 노는 거북놀이, 일죽면 월정리의 특이한 기우제 풍습, 안성 돌우물, 태봉산 등이 있다. 이밖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오늘날 삼죽과 죽산 간의 분수령 고개인 두들기 고개에 얽힌 전설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 혜소국사비에 얽힌 전설 등이 있다.

⑤ 정치·군사적 유물

정치·군사적 유물로는 망이산성, 죽주산성, 서운산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지역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선 망이산성은 삼국시대의 것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있으며 성내에는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것이다. 죽주산성은 고려시대에 쌓은 것으로 몽고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곳으로 내성, 보성, 외성의 중첩된 성벽구조를 갖추고 있다. 성 안에는 몽고 침입 때 큰 전과를 올린 송문주 장군의 전공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마지막으로 서운산성은 북산리성지라고도 불리는데, 차령산맥의 주봉인 서운산의 지봉에 축

성된 테피식의 토축산성이다. 축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이 지역의 의병장으로 활동한 홍계남 장군이 왜적을 막기 위해 선조 25년에 축성하였다고 전해진다.

⑥ 지역의 독특한 산업 · 경제적 산물

앞 장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유기, 배, 포도, 인삼, 한우가 유명하며, 특히 이러한 특산품과 어우러진 지역 축제로는 배 축제와 포도 축제가 있다.

2) 형태중심의 유형으로 본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

<표 11-1> 안성시내 인접 문화예술 · 교육 기반

	자연자원, 관광농원, 공원	사찰, 성지, 향교	문화 공간	공공시설, 기관	교육 · 시민단체 문화 · 예술단체
시 내	솔밭공원 안성공원	아양동 미륵	안성맞춤유기공방	구포동성당 시민회관 여성회관 사회종합복지관	예총 안성지부 안성연극협회 안성시음악협회 향당무
공도읍	안성맞춤가족공원				
대덕면		대농리석불입상	4321갤러리	안성맞춤박물관	
고삼면	고삼호수 미산저수지 금병산 경수산		편운재문학관		
양성면	미리내성지	윤수암 향교		놀이마당 청소년야영장	
원곡면	고성산		무비마운틴	3.1운동 기념관	
금광면	금광호수	석남사	청학대미술관	공설운동장	박두진문화연구소

	광산성 국사봉 마둔저수지 꿈동산농원 금광관광농원				달팽이문화학교 안성문화마을
서운면	청룡호수 서운산성 청룡산 오하관광농원 배단지 포도단지	청룡사			
미양면	배단지		소나무S갤러리	안성천문대	
보개면	비봉산 머릿골산		남사당전수관 아트센터마노 태평무전수관 청류재	안성시립도서관 안성문화원 감투봉청소년수련원 엄마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남사당풍물놀이패 너리골문화마을
삼죽면	덕산저수지 부림농원	쌍미륵과궁예미 륵			아힘나문화예술· 교육연구소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동아방송대학
죽산면	바카프미산 칠장산 칠현산 도덕산 용설호수 죽림산 두메저수지 산박골산 죽주산성 남산 백산관광농원	칠장사 죽산성지 (이진터성지) 태평미륵 죽산리5층석탑	극단무천야외극장 웃는돌 퓨전펜션		극단무천 웃는돌(무용) 두원공과대학
일죽면	망이산 망이산성 서일농원 개미관광농원 성원목장 흔들바위			한별청소년수련원 농민문화체육센터	

<표 11-2> 문화재 현황⁶⁾

- 총괄

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시지정	비고
	소계	국보	보물	중요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무형 문화재	향토 유적	
104	14	1	10	3	49	25	9	11	4	41	

- 국가지정 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명칭	위치	지정일	비고
국보(1)	296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죽산면 칠장리 764	'97.09.22	
보물(10)	435	안성죽산리 오층석탑	죽산면 죽산리 148-5	'66.02.28	
	488	칠장사 해소국사비	죽산면 칠장리 762	'68.12.19	
	715	김중만 장군영정	대덕면 토현리 산 3	'81.03.18	
	823	석남사 영산전	금광면 상중리 508	'85.01.08	
	824	청룡사 대응전	서운면 청룡리 28	'85.01.08	
	983	안성 봉엄사 석불입상	죽산면 칠장리 764	'89.04.10	
	1256	칠장사 삼불회괘불탱	죽산면 칠장리 764	'97.08.08	
	1257	청룡사 영산회괘불탱	서운면 청룡리 28	'97.08.08	
	11-4	청룡사 동종	서운면 청룡리 28	'00.02.15	
	1302	청룡사 감로탱	서운면 청룡리 28	'00.10.16	
중요무형 문화재(3)	77	유기장	안성시 봉남동 7-3	'83.06.01	
	92	태평무	안성시 사곡동 31	'88.12.01	
	58	줄타기	죽산면 매산리 570-10	'00.07.22	

6) 안성문화관광 <http://tour.anseong.go.kr/culture/status.html>.

- 경기도지정 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명칭	위치	지정일	비고
유형문화재 (25)	8	덕봉서원	양성면 덕봉리 109	'72.05.04	
	34	인목대비 친필죽자	죽산면 칠장리 764	'73.07.10	
	36	기솔리 석불입상	삼죽면 기솔리 33-1	'73.07.10	
	37	매산리 석불입상	죽산면 매산리 366	'73.07.10	
	39	칠장사 당간	죽산면 칠장리 801-1	'73.07.10	
	71	홍계남장군 고루비	미양면 구수리 산 87-1	'77.10.13	
	78	안성죽산리 삼층석탑	죽산면 죽산리 240-2	'78.10.10	
	79	오명향선생 토적송공비	안성시 낙원동 609-5	'78.10.10	
	89	안성죽산 당간지주	죽산면 죽산리 728	'79.09.03	
	97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면 죽산리 산 6-2	'80.06.02	
	108	석남사 대응전	금광면 상중리 508	'81.07.16	
	109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금광면 상중리 산 27	'81.07.16	
	110	김중만장군 공신록및교지	대덕면 토현리 산 3-2	'81.07.16	
	114	칠장사 대응전	죽산면 칠장리 764	'83.09.19	
	115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죽산면 칠장리 764	'83.09.19	
	116	청원사 칠층석탑	원곡면 성은리 397	'83.09.19	
	124	청룡사 사적비	서운면 청룡리 62-4	'85.06.28	
	129	조영복선생 영정	고삼면 가유리 650	'85.06.28	
	130	신창리 삼층석탑	고삼면 신창리 293-6	'86.05.07	
	134	연행일기, 연행별장외명 현간찰	고삼면 가유리 650	'88.12.02	
	154	안성객사	보개면 양복리 산 41	'95.08.07	
	170	안성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운면 청룡리 28	'00.04.17	
	174	안성 청원사 대응전	원곡면 성은리 397	'00.04.17	
	175	안성 정무공 오정방고택	양성면 덕봉리 246	'00.04.17	
	179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일죽면 죽림리 226-54	'01.12.27	
기념물(9)	26	이덕남 장군묘	미양면 구수리 산 85-1	'75.09.05	
	69	죽주산성	죽산면 매산리 산 106-7	'73.07.10	
	75	영창대군묘	일죽면 고은리 산 24-5	'83.09.19	
	77	서흥김씨 삼강정문	고삼면 월항리 산 84-2	'84.09.12	
	81	서운산성	서운면 북산리 산 2	'85.06.28	

	82	안성 구포동 성당	안성시 구포동 80-1	'85.06.28	
	117	전주이씨서원 군파묘역	보개면 북좌리 산 8-2	'89.12.29	
	138	망이산성	일죽면 금산리 산 48	'93.06.03	
	189	안성봉업사지	죽산면 죽산리 145외41필지	'02.04.21	
문화재 자료(11)	24	칠장사	죽산면 칠장리 764	'83.09.19	
	25	윤수암	양성면 방신리 85	'83.09.19	
	26	죽산향교	죽산면 죽산리 314	'83.09.19	
	27	안성향교	안성시 명륜동 118	'83.09.19	
	28	양성향교	양성면 동항리 114	'83.09.19	
	45	안성유명 견묘갈	고삼면 삼은리 산 3-1	'83.09.19	
	46	안성대농리 석불입상	대덕면 대농리 91	'83.09.19	
	59	청룡사 삼층석탑	서운면 청룡리 28	'85.06.28	
	73	이해룡 고가	서운면 청룡리 78	'86.05.07	
	76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안성시 도기동 184	'89.06.01	
108	안성죽리석조여래입상	안성시 대덕면 죽리 32-4	'01.12.27		
무형 문화재(4)	7	백동연죽장	안성시 봉산동 392	'89.12.29	
	19	입사장	보개면 기좌리 257	'97.09.30	
	21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개면 복평리 34-13외	'97.09.30	
	34	안성 향당무	미양면 개정리 467	'00.08.21	

- 시지정 향토유적

구분	지정번호	명칭	위치	지정일	비고
성 광	1	금광산성	금광면 금광리 산 64	'86.05.22	
	2	무양성(무한성)	양성면 방신리 산 42		
사 당	4	만둔사지	금광면 오산리 산 41-1	'86.05.22	
	5	부조묘	대덕면 대농리 산 25		
	6	최규서어서각	원곡면 지문리 산 1-1		
불 상	8	안성공원 석불좌상	안성시 낙원동 609-5	'86.05.22	
	9	안성공원 석조광배	안성시 낙원동 609-5		
	10	아양동보살입상	안성시 아양동 364		
	11	굴암사 마애여래좌상	대덕면 진현리 299		
	12	굴암사 마애선각좌불상	대덕면 진현리 299		
	13	선유동 마애불사존불상	일죽면 신흥리 산 78-1		

	15	아양동 석불입상	안성시 아양동 364		
	16	윤수암 비로자나불좌상	양성면 방신리 85		
석 탑	18	안성공원 삼층 석탑	안성시 낙원동 609-5	'86.05.22	
	19	석남사 석탑	금광면 상중리 508		
	20	미륵당 오층 석탑	죽산면 매산리 365-3		
비	21	유언호선생묘 및 신도비	대덕면 건지리 17-29	'86.05.22	
	22	오방정선생 신도비	양성면 덕봉리 산 45-1		
	23	오두인선생 묘 및 신도비	양성면 덕봉리 산 45		
	24	칠장사 사적비	죽산면 칠장리 801		
종	25	칠장사 동종	죽산면 칠장리 764	'86.05.22	
부 도	27	청룡사 부도군	서운면 청룡리 28	'86.05.22	
	28	석남사 부도	금광면 상중리 508		
	29	칠장사 부도군	죽산면 칠장리 산 77		
묘	30	삼한국대부인순흥안씨묘	금광면 오흥리 산 32-1	'86.05.22	
	31	의병장흥자수묘	미양면 갈전리 산 18		
	32	최만리선생묘 및 신도비	원곡면 지문리 산 45		
	33	홍명호선생묘	일죽면 가 리 산32-50		
	34	최용소선생묘	일죽면 신흥리 95		
	35	유양식선생묘	고삼면 월향리 산 26		
	46	이세영묘역	양성면 장서리 산 12	'03.03.05	
사 당	36	경양사	양성면 덕봉리 산 47	'87.07.02	
비	37	운삼산신도비	보개면 남풍리 산 152	'89.01.27	
묘	38	바우덕이(김암덕)묘	서운면 청룡리 산2	'01.09.07	
불상	39	양성 석조여래입상	양성면 구장리 230-1	'01.09.07	
	40	죽산 두현리 석조삼존불상	죽산면 두현리 53-10	'02.02.19	
석 탑	41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일죽면 죽림리 447-7	'02.02.19	
불 상	42	삼죽 기술리 국사암 석조여래입상	삼죽면 기술리 33-1	'02.02.19	
	43	서운 북산리 석조여래입상	서운면 북산리 산2	'02.02.19	
사 당	44	서운동촌리 효우당 이중검 정려문	서운면 동촌리 128-1	'02.02.19	
불 상	45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미양면 법전리 181	'02.10.10	

3. 평생교육시설 및 학습공동체의 운영 및 학습프로그램

안성시에는 유치원 42개소, 초등학교 34개소, 중등학교 9개소, 고등학교 7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대학교로는 동아방송대학, 두원공과대학, 안성여자기능대학,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5개의 대학, 대학원으로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경대학교 대학원 등 2개의 대학원이 소재하고 있어 안성의 소중한 지적자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앙대학교의 예술대학, 음악대학, 국악대학 그리고 동아방송대학 등은 안성시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기반역할을 할 수 있는 안성시의 소중한 자산이다.

풍부한 교육기관은 안성을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들은 안성의 소중한 지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타 지역(수도권)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표 11-3> 안성시의 학교 현황

2004년 4월 1일 현재

() 안은 분교장 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 치 원	42	69	1,629
초등학교	34(2)	404	12,642
중 학 교	9	135	4,903
고등학교	7	126	4,300
합 계	92(2)	734	23,474

<표 II-4> 안성시의 대학 현황

대 학	위 치	학 부	대학원
한경대학	석정동 67	31개 학과 (총 6437명)	29개 전공(학과) 총 300명
중앙대학	대덕면 내리 71-1	9개 대학 /4계열 5개 학부 28개학과 (총 8412명)	2개 대학원 11개 전공 (총 194명)
동아방송대학	삼죽면 진촌리 632-18	13개 학과 정 원: 약4000명 재학생: 약2500명	-
안성여자기능대학	공도읍 만정리 349-6	6개 학과 정 원: 600명 재학생: 570명	-
두원공과대학	죽산면 장원리 678	17개 학과 재적생: 8,605명 재학생: 4,059명	

또 안성시에는 280여개의 사설학원과 교습소가 있고 123여 곳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 사회교육기관 현황

구 분	작업 기술	국제화	인문 사회	예능	경영 실무	입시 검정 보습	독서실	종합	합계
사설학원	15	15		75	32	50	4	3	194
교 습 소	6			48					54
합 계	21	15		123	32	50	4	3	248

안성에 있는 공공시설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시

립도서관 1개소, 박물관 2개소, 일반 공연장 3개소, 미술관 1개소, 갤러리 1개소, 시민회관 1개소, 종합문예회관 1개소, 복지회관 9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2개소 등의 문화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등의 시설과 대안문화학교 1개소, 프로그램형 대안학교 1개소, 대안교육연구소 1개소가 있다.

<표 II-6> 기관/시설물

구 분	기관/시설물	위 치	비 고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보개면 양복리 산 53	건축면적 : 7,946.25㎡ 수용인원 : 15,600명 건축연도 : 1997.11.30
	농민문화체육센터	일죽면 송천리 산 35-11	부지면적 : 3,306㎡ 건축면적 : 1,114㎡ 설립일 : 1999. 8.26
청소년수련원	엄마청소년수련원	보개면 신장리 63-5 ☎ 031-675-2171	수용인원 : 564명 부지면적 : 56,360㎡ 건축면적 : 6,512.58㎡
문화시설	3·1운동기념관	원곡면 칠곡리 산186 ☎ 031-651-0740	부지면적 : 28,589㎡ 건축면적 : 1,237.24㎡
	안성맞춤박물관	대덕면 내리 산57 ☎ 031-676-4352	부지면적 : 2,039㎡ 건축면적 : 1,222㎡
	문예회관	보개면 양복리 238-1 ☎ 031-678-2588	부지면적 : 18,545㎡ 건축면적 : 3,064.63㎡
	시립도서관	보개면 양복리 238-1 ☎ 031-676-7942	부지면적 : 18,098㎡ 건축면적 : 1,769.96㎡
	향토사료관	보개면 양복리 238 ☎ 031-671-1795	건축면적 : 423.39㎡

1) 안성시민자치대학

안성시청 주민자치과에서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운영하는 안성시민자치대학의 교육과정은 <표II-15>와 같다. 강좌별로 수강인원

을 모집하고 정원은 강좌당 500명이며, 대상은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기간 : 2004년 5월 6일~ 11월30일 첫째, 셋째 목요일 15:00~17:00
- 장소 : 시민회관 대강당
- 대상 : 안성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가능
- 운영주체 : 안성시청 주민자치과

<표 11-7> 안성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월	일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분야	경력 및 현직
5	6	김동길	한국인이여 세계화의 주역이 되자	세계화	(사)태평양시대 위원회 이사장
	20	최윤희	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	가정사	한국관광협회 호텔급 심사위원
6	3	박 흥	가치 불확실성 시대의 생명 가치	의식개혁	서강대 명예총장
	17	이상벽	인생오계	의식개혁	방송인
7	1	박경애	지혜로운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청소년	광운대학교대학원 교수
	15	김병조	생활속의 명심보감	의식개혁	방송인, 조선대 초빙교수
8	12	김동신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	농업	솔로몬 전략 컨설팅 대표
	26	이영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교육	명지대 경영학박사
9	9	송영대	통일한국과 우리의 자세	통일안보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23	강선숙	국악의 이해와 감상	문화	국악인, 연극인
10	7	최상호	선진국의 길, 선진국민으로 부터	의식개혁	국민정신연구소장
	21	류태영	이스라엘 국민정신과 교육	농업	건국대 명예교수
11	4	이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프로그램	환경	한국사회교육연구회 회장
	18	송 자	21세기 지식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전)명지대총장 (주)대교 회장

2) 안성시립도서관

(1) 시설규모 및 층별 현황

<표 II-8> 안성시립도서관의 시설 규모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좌석수 (석)	자료실 (개실)	일반열람 실(개실)	컴퓨터 교육장	기타 (개소, 실)
안성시 보개면 양북리 238-1	18,098	1,769.96	293	2	2	1	12

<표 II-9> 안성시립도서관의 층별 현황

실 별	주요기능	층별	면적 (㎡)	좌석수 (석)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및 전문도서, 향토자료, 정부간행물 ○ 관외대출(일반도서) ○ 원문DB, CD-NET, e-Book, VOD, 어학자료, CD-ROM, 비디오, DVD자료 열람 ○ 인터넷, 문서작성 등 ○ 각종 행사업무 	1층	294.4	30
어린이열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도서 열람 ○ 관외대출(아동도서) ○ 원문DB, CD-NET, e-Book, VOD, 어학자료, CD-ROM, 비디오, DVD자료 열람 ○ 인터넷, 문서작성 등 ○ 일반서무, 회계업무 ○ 청사관리 	1층	116.48	10
일반열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학습 	3층	209.68	167
시청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관 강좌 ○ 각종행사 	1층	104	60
컴퓨터 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정보화 교육 	3층	84	20
전 산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및 웹서버 운용 	2층	7.92	-
중앙현관 (연속간행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신문 열람 ○ 연속간행물 	1층	99.72	6

(2) 주요 프로그램

① 도서관 주간행사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이 고객(시민)을 위한 지식정보센터이자 문화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 필요성을 알리고,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서비스 체제를 모색하는 기간이다. 안성시립도서관에서는 매년 도서관이 고객 가까이에 자리하여 꿈을 가꾸고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 기 간 : 매년 4월12일 ~ 4월18일(1주일간)
- 주요행사내용 : 이용자와의 간담회, 장서표 만들기, 가두 캠페인, 초청강연회, 풀꽃 세밀화 그리기, 우수독서자 시상,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 추리소설코너 운영, 추천도서목록 배포, 우수영화 상영
- 담 당 자 : 자료실 담당사서 백진희(☎ 031-676-7942)

② 이용자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4. 4. 12(월), 오전 11 ~ 12시
- 장 소 :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 참가대상 : 시민 누구나
- 내 용 : 도서관 현안사항 설명
고객 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③ 독서감상문, 감상화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1999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있다.

- 일 시 :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 참가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참가요령 : 선정도서중 부문별로 한 책을 선정하여 읽은 후 행사 당일 대회장에서 감상문, 감상화를 작성하여 제출
- 부대행사 : 지난 대회 입선작 전시회, 선정도서 낭독회, 과자그림그리기, 영화상영 등

④ 선정도서 낭독회 및 과자그림그리기

- 일 시 : 2004년 5월 29일(토), 오후 4시30분
- 장 소 : 문예회관 공연장 및 뒤뜰
- 주 관 : 안성동화읽는어른모임
- 내 용 : 대회 선정도서 낭독 및 읽어주기, 과자와 시럽으로 그림그리기

⑤ 문화기행

작가와 문학작품의 무대가 되었던 문학현장과 박물관, 문화유적지, 도서관 등 문화체험 및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현장들을 탐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킨다.

- 기간 및 횟수 : 여름·겨울 방학 기간 중 각 1회
- 참 가 인 원 : 각 45명

⑥ 영화상영

4. 문화예술공간 및 창작스튜디오에서의 활동 및 학습프로그램

안성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은 약 280여명으로 서양화, 동양화, 사진, 판화, 조각, 도예, 서예, 금속공예, 시, 문인 등 각 분야의 작가 217명 중 미술과 관련된 예술인의 수가 95명으로 전체 예술인의 44%에 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대덕면, 그리고 안성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II-10> 안성시 지역별 예술인 분포

지역명	예술인 수	지역명	예술인 수
고삼면	10	서운면	11
공도면	12	양성면	16
금광면	8	원곡면	3
대덕면	21	일죽면	2
미양면	9	안성시내	75
보개명	29	죽산면	16
삼죽면	5	합 계	217

<표 II-11> 활동분야별 예술인 수

활동분야	예술인 수	활동분야	예술인 수
공 예	24	서 예	8
국 악	27	안 무	1
그 립	22	연 극	24
도 예	9	연 예	2
디자인	4	연 주	1
무 용	1	연 출	1
문 학	17	영 화	1
민 속	27	음 악	3
사 진	3	작 가	3
조 각	25	전통무	2
기 타	12		

안성에는 시립도서관 1개소, 박물관 2개소, 일반 공연장 3개소, 미술관 1개소, 갤러리 1개소, 시민회관 1개소, 종합문예회관 1개소, 복지회관 9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2개소 등의 문화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관광농원 7개소 등의 시설 그리고 배·포도축제, 백성문화제, 웃는돌의 죽산국제예술제,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의 지역음악제, 청류재 식물원의 청류재 등의 다양한 문화축제와 예술제가 있다. 이밖에도 문화회관이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예술제가 있으며 특산물과 민속놀이를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해마다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6월에는 죽산국제예술제가 열린다. 포도축제, 배 축제, 안성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백성 문화제는 2001년부터 바우덕이 축제로 종합화되어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전통 민속놀이와 더불어 종합예술제가 함께 개최된다. 이 기간에는 남사당 풍물놀이, 극적루 재연행사 등 안성시의 문화 예술을 계승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다. 또 안성에는 지역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문화학교인 달팽이학교, 폐교를 이용한 집단 창작촌 안성문화마을 등이 있다.

안성지역 문화예술공간 및 창작스튜디오에서의 활동 및 학습프로그램은 안성의 문화예술 대안학교 달팽이에서 2004년도 안성시, 문예진흥원, 문화관광부, 경기문화재단, 한국언론재단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소나무S갤러리의 2004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달팽이문화학교

달팽이문화학교의 문화예술 대안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의 감성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며 교과를 서로

유관하게 교차시켜서 다양한 지식망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의 틀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언어와 영상, 미술과 미디어가 만나고 춤과 언어가 역사와 철학적 사유를 아우르는 이곳의 문화예술 교육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합하여 청소년들의 감수성의 변화를 시험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안성맞춤 워크숍(어린이, 청소년, 성인)은 1년 과정의 창작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디지털 영상 제작, 만화캐릭터반은 한국언론재단 후원으로 운영된다. 전공 워크숍 수강자는 매주 수요일 교양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해 멀티미디어 동화제작 워크숍이, 초등 고학년 학생을 위해서는 신문기자 워크숍이 있다.



찾아가는 달팽이 예술학교 달팽이가 문화관광부, 경기문화재단, 한국문예진흥원의 후원으로 안성의 초,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 삭막한 학교 공간에 문화의 숨결과 예술의 향기를 불어 넣는다. 문화의 시대를 살아갈 주역들의 주 공간인 학교에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도록 준비하고 있다.



예술로 춤추는 도시, 안성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 꾸미기 사업의 일환으로 평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을 지역의 작가들이 정감과 사람향기가 나는 공간으로 꾸민다. 벽화, 조형물 세우기, 설치예술 등의 작업을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진행한다.



'바우덕이'어린이 청소년 예술캠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학생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낸 안성의 전통문화를 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에는 특별히 안성한지와 가족으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의 책 만들기', '안성유기 액세서리 만들기', '숫대와 미륵만들기' 등을 비롯해 '디지털 영상캠프'도 개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상력을 키워주는 고구려벽화의 신화를 중심으로 한 '아주 특별한 신화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p>시민 거리 예술제, 안성시 명동 상가의 환경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판화 안내판 세우기, 간판 만들기, 거리 조형물 제작, 건물 벽화 그리기, 안성맞춤 도자기 만들기과 캐리커처 그리기 등과 함께 가면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안성 지역 소재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다.</p>
	<p>달팽이 난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벌이는 가족 참여 문화 프로그램이다. 열대야 가족영화제, 천연염색, 가양주 만들기 등과 더불어 천연화장품 만들기, 전통문화와 목각 공예품 만들기, 짚풀문화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p>

(1) 달팽이의 안성맞춤 워크숍

안성맞춤 워크숍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창작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표 II-12> 안성맞춤워크숍 주간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어린이반 (16:00~18:00)	[교양] 멀티미디어 동화창작반 초등1.2.3년		[교양] 어린이 신문기자반 초등4.5.6년	발레반		
	디지털 영화반			디지털 사진반		
				만화 캐릭터반		
청소년반 월~금 (18:00~20:00) 토 (14:00~18:00)		인디밴드반[기타.드럼]		만화캐릭터반		디지털영화반
		토탈미술반[조형.설치]				디지털사진반
						힙합댄스반
성인반 (10:00~21:00)	유화드로잉 (10:00~13:00)				흙공예반 (13:00~16:00)	누드크로키 (10:00~13:00)
				디지털영화반(19:00~21:00) 흑백사진반(19:00~21:00)		

(2) 2004 여름 바우덕이 캠프 : 아주 특별한 안성맞춤 문화예술체험

- 기간 : 2004년 7월26일-7월 31일(5박6일)
- 장소 : 대안문화학교 달팽이와 주변 냇가, 산 호수
- 참가자격 : 전국 초등학생 60명 선착순
- 참가비 : 15만원(숙식참가자는 5만원 더 부담)
- 프로그램

<표 II-13> 2004 여름 바우덕이 캠프

구분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및 시간표	
		오전 10시-오후 5시 / 작업시간	자유놀이
월	흙공예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과 가장 부드러운 흙이 만나 아름답게 빚어낸 도예작품들 12지신을 새긴 도판. 자연의 소리를 담은 내방의 풍경	다함께 인사하기
화	가죽공예	디카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품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작고 예쁜 가방과 부모님 커플 목걸이 만들기	시냇물은 졸졸졸 고기들은 왔다갔다
수	금속공예	나를 밝히고 마음을 밝히는 파티용 멋진 촛대	수영장

			물놀이 가자 하루 밤 함께 자기 야외영화관람 불꽃놀이 감자 구워먹기 별 바라기
목	목공예	대문과 현관문에 걸어 놓는 편지통	
금	마무리 뽑내기	내가 만든 작품 뽑내기	

2) 소나무스튜디오갤러리

<표 II-14> 2004 소나무 S 갤러리 프로그램

(1) 현대미술하고 놀자													
	<p>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세계와 표현들이 어린이의 자유롭고 무한한 창의력과 만나는 즐거운 현장체험전시</p> <p>○기간 : 3.20 ~ 12.22</p> <p>○전시 : 김희곤 개인전 '존재의 시선' (설치, 드로잉 외 6개)</p>												
(2) 청소년미술여행													
	<p>중·고등 청소년을 위한 미술사, 미술 감상, 실기 등 미술 전반에 걸친 자유롭고 흥미로운 미술이야기</p> <table border="1" data-bbox="583 855 1153 1039"> <thead> <tr> <th></th> <th>일 시</th> <th>주 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4/15(목)</td> <td>아, 재미있는 미술!!! - 우리의 삶과 미술의 연관성</td> </tr> <tr> <td>2</td> <td>5/20(목)</td> <td>작가와의 만남 - 전원길 개인전 작품을 중심으로</td> </tr> <tr> <td>3</td> <td>6/17(목)</td> <td>현대미술 감상하기</td> </tr> </tbody> </table>		일 시	주 제	1	4/15(목)	아, 재미있는 미술!!! - 우리의 삶과 미술의 연관성	2	5/20(목)	작가와의 만남 - 전원길 개인전 작품을 중심으로	3	6/17(목)	현대미술 감상하기
	일 시	주 제											
1	4/15(목)	아, 재미있는 미술!!! - 우리의 삶과 미술의 연관성											
2	5/20(목)	작가와의 만남 - 전원길 개인전 작품을 중심으로											
3	6/17(목)	현대미술 감상하기											
(3) 작가와의 만남													
	<p>초대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론가, 작가, 일반인 등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작가와 작품 세계를 심층 연구하는 프로그램(Presentation & Interview)</p> <p>○시간 : 각 전시회 개막일(토) 오후 3시</p> <p>○장소 : 소나무S갤러리 전시실</p>												
(4) 문화나들이													
	<p>자연과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창의적인 미술작업 및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p> <p>○일시 및 내용 : 참가자와 협의</p>												

3) 안성시의 문화관광 투어

(1) 안성시의 토요일상설 문화여행

- 일 정 : 매주 토요일(5월 15일부터 10월30일까지)
- 출발장소 : 서울 서초구민회관(양재역) 13:30
: 안성 안성맞춤박물관(중앙대학교 정문옆) 14:30
- 기행일정 : 서울출발 → 안성맞춤박물관 → 태평무 공연관람 →
저녁식사 → 안성 유기체험장 → 남사당 야외공연관람
(우천시 실내공연) → 귀가(안성, 서울)
- 참 가 비 : 1인당 15,000원
(석식-안성마춤 쌀밥정식, 기념품, 교통비, 여행자보험
포함)
- 참가신청 : 안성문화관광 홈페이지(관광정보 신청계시판)
: 단체관람이나 여행사는 별도 문의바랍니다.
- 참가문의 : 안성문화관광 정보센터
담당자 심 상 훈 Tel: 031) 673-0824
수신자 부담전화 : 080-673-0824

(2) 테마기행

- 미륵기행 : 태평미륵 → 기술리 쌍미륵 → 궁예미륵 → 대농리미륵
→ 아양동미륵
- 문학기행 : 편운재 → 박두진 시인 묘 → 박두진 시비 → 박두진 연
구소
- 불교사찰기행 : 청룡사 → 석남사 → 칠장사 → 운수암 → 청원사

- 궁예기행 : 칠장사 → 죽주산성 → 궁예미륵
- 천주교성지기행 : 미리내성지→죽산성지(이진터성지)→구포동성당→
배티성지
- 호국기행 : 3·1운동 기념관→안성맞춤박물관→죽주산성→이덕남 장
군묘

Ⅲ.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수요 분석

1.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욕구 조사

1) 설문 실시의 개요

(1) 목적

: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과 문화예술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요한 수요자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공공육기관 청소년의 특기적성,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의 내용

: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 수요자의 욕구조사)

(3) 설문조사 실시방법

- 우편으로 발송하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본인의 수취가 정확하도록 하고 회신용 봉투를 첨부해 응답 후 회신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의 취지 글과 첨부 글(한국예술총연합회 안성지회 회장 김유신 글)을 통해 응답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설문 발송 이후 전화를 통해 설문 취지를 보충설명하고 응답회신을 독려하였다.

(4) 실시대상 및 기간

: 안성시내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들 학교 중 초등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은 2004년 5월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2) 설문 통계 및 분석

▶ 현황조사 설문의 통계 및 분석

1. 귀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표 III-1-1> 특기적성 및 방과 후 교육의 여부

문 항		초	중고	백분율	계
가	예	14	2	100%	16 (100%)
나	아니오	0	0	0%	
무 응 답		0	0	0%	

응답한 모든 학교가 방과 후 교육 및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만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수강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나요? (순서대로 표해 주십시오, 6번은 해당사항 없는 다른 학습 프로그램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표 III-1-2> 학습자의 선호도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계
가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3	3	1	2	0	0	9
나	문화예술 학습 프로그램	1	2	3	3	0	0	9
다	생태 학습 프로그램	0	0	0	0	3	0	3
라	체능 학습 프로그램	2	3	3	1	0	0	9
마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10	5	0	0	0	0	15
바	기타	0	0	1	0	1	1	3

7) 여기서의 '수요'라 함은, 특기적성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담당교사들의 수요로 한정하였다.

문화예술 학습 프로그램은 음악과 미술에 집중되어 있고, 설문지를 보내준 2곳의 고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및 방과 후 교육을 교과목 보충학습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기타 학습 프로그램은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3. 특기적성(방과 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는 어떤 분인가요? (복수 선택 가능)

<표 III-1-3> 강사의 분류

문 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우리 학교 선생님	5	2	7	17%
나	다른 학교 선생님	0	0	0	0%
다	학원 강사	10	0	10	24%
라	학부모	0	0	0	0%
마	전문 강사	22	1	23	54%
바	지역자원봉사자	2	0	2	5%
계		39	3	42	100%

강사의 대부분은 지역의 전문 강사가 맡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학원 강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특기 적성교육일 경우 과목당 학습비는 어느 정도입니까?(월로 환산)

<표 III-1-4> 학습비

(단위: 원)

문 항		과목당 강사비	1인당 학습부담 비용
가	우리 학교 선생님	160,000~300,000	25,000
나	다른 학교 선생님	700,000	
다	학원강사	600,000~1,000,000	20,000
라	학부모	0	

마	전문강사	500,000~1,400,000	7000~30,000
바	지역자원봉사자	200,000	

한 학교의 경우 전문강사에게 70만원을 강사비로 지급하는데, 컴퓨터 학습의 경우 그 두배인 1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5. 특기적성(방과 후) 프로그램은 과목당 일주일에 몇 번 실시합니까?

<표 III-1-5> 프로그램의 횟수(한 주간)

문 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1번	0	0	0	0%
나	2번	11	0	11	64%
다	3번	2	0	2	12%
라	4번	2	0	2	12%
라	5번	0	2	2	12%
계		15	2	17	100%

대부분 과목당 2회 정도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에 특정과목은 한 주간동안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욕구조사

이 설문은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학교에서의 특기적성(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교의 욕구를 조사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학교에 특기적성(방과 후)교육을 새롭게 기획하여 제공한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우선하

여 선택하겠느냐는 설문에 16명의 응답자 중 6명의 응답자가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하였으며 실시기간은 일주일에 2번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6.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특기적성 (방과 후)교육을 새롭게 기획하여 제공한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우선하여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III-1-6>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기획 시 우선순위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가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3	1	3	5	1	0	0	0	1
나	문화예술 학습 프로그램	6	4	4	2	0	0	0	0	0
다	생태 학습 프로그램	0	1	5	0	3	2	1	0	2
라	체능 학습 프로그램	1	2	1	4	1	4	0	0	0
마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4	4	1	0	0	2	1	1	0
바	지역개발 프로젝트	0	2	1	0	0	0	5	4	0
사	봉사활동 프로그램	1	1	1	2	1	1	4	1	0
아	지역여행 프로그램	1	1	0	1	4	1	0	5	0
자	지역인사와의 만남	0	0	0	0	2	1	0	0	9

초등학생의 경우는 문화예술 → 컴퓨터 → 외국어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2곳의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목 위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7. 위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표 III-1-7>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실시 횟수(주당)

문 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1번	0	0	0	0%
나	2번	10	2	12	75%
다	3번	4	0	4	25%
라	4번	0	0	0	0%
계		14	2	16	100%

역시 현재의 교육시수와 같이 한 주일에 두 번을 선호(75%)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표 III-1-8> 기관과의 연계시도

문 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예	1	0	1	6%
나	아니오	13	2	15	94%
계		14	2	16	100%

9. 8번 항목에서 '1) 예'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기관과 연계하신 적이 있나요?

<표 III-1-9> 프로그램의 연계 사례

3.1운동 기념관 기념식 참석 및 시연행사 참석

10. 8번 항목에서 '2) 아니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III-1-10> 타 기관과 연계하지 못한 이유

문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안전상의 이유로	1	0	1	6%
나	학습비용의 이유로	1	1	2	12%
다	정보가 없어서	11	0	11	70%
라	기타	1	1	2	12%
계		14	2	16	100%

7, 8, 9번 항목을 보면, 안성지역에 다양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의 연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학부모와 담당 교사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기타 항목에 든 이유로는 '학교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와 '준비 부족'으로 응답하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교과목이 아닌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입 수능시험 위주로만 교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 앞으로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운영하며 안성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귀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III-1-11> 프로그램 정보제공 필요 여부

문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예	14	2	16	100%
나	아니오	0	0	0	0%
계		14	2	16	100%

12. 11번 항목에서 '1) 예'를 선택하셨다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할 때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표 III-1-12> 정보 활용 여부

문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예	14	2	16	100%
나	아니오	0	0	0	0%
계		14	2	16	100%

정보가 제공될 경우 모두 활용할 의지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3. 끝으로 특기적성(방과 후)교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그대로 정리하면, 일죽 종합 고등학교 최모 교사는 “소규모학교라 경비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으나 진정한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에 훌륭한 단체가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고 의견을 주었으며, 안성고등학교 강모교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위주이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두 가지 정도 극소수의 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프로그램 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이는 프로그램이라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도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수요자 중심의 안성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수준 높은 특기적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해결이 선행되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학업에 중점을 두어 학원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 후 교육은 학교장의 재량이기에 학교장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CA전일제 시간을 활용하여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2.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창작활동

- 안성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및 창작 스튜디오의 현황 및 학습프로그램 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 -

1) 설문실시의 개요

(1) 목적

: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과 문화예술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공급자의 역할로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안성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안성시의 행정지표와는 달리 안성시나 어느 유사기관,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몇몇 인터뷰 과정에서 만나 본 문화예술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인들 간의 교류나 의사소통도 비교적 원활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금번의 설문 실시는 안성지역 문화예술인의 현황자료로서 매우 의미 있을 것임을 상기하게 되었다.

(2) 설문의 내용

: 설문은 안성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현황자료로서 뿐 아니라 향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결성에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명(記名)으로 서술토록 하고 설문내용은 예술인으로서의 개별 활동관련, 활동지역의 여건과 관련,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환경 관련,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와 교육·문화협동조합 관련 등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3) 설문조사 실시방법

- 설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본인의 수취가 정확하도록 하고 회신용 봉투를 첨부해 응답 후 회신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일부는 직접 방문으로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의 취지 글과 첨부 글(한국예술총연합회 안성지회 회장 김유신 글)을 통해 응답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설문 발송 이후 전화를 통해 설문 취지를 보충설명하고 응답회신을 독려하였다.

(4) 실시대상 및 기간

: 한국예총 안성시지부 산하 문인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미술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및 비회원예술인을 대상으로 2004년 5월 한 달간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예총 안성시지부 '안성예술 제4호' 2004.2)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

2) 설문통계와 분석**▶ 응답자 신상 관련 통계와 분석****(1) 총 응답 인원****<표 III-2-1> 총 응답 인원**

총발송수량 (명)	회신수량(명)	백분율
342	30	8%

총 응답비율은 8%이며, 되돌아온 우편물과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가 부정확하고 전화도 불통인 경우와 응답의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안성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안성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혹은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악인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연로하시거나 설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미술과 문학 분야 예술인의 응답률이 높고 전화 통화시 긍정적인 태도로 관심을 표명한 경우가 많았다. 주소록이 몇 년간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 성별 구분

응답자의 70%가 남성이고 여성은 27% 정도 되었다.

<표 III-2-2> 응답자의 성별구분

구 분	계	백분율	총계
남	21名	70%	30名 (100%)
여	8名	27%	
무응답	1名	3%	

(3) 장르별 분류

<표 III-2-3> 응답자의 장르별 구분

구 분	계			백분율	총계
문 학	17名			57%	30名 (100%)
미 술	회 화	7名	13名	43%	
	도 예	3名			
	서 예	2名			
	한국화	1名			
기 타	0名			0%	

문학과 미술 분야에 집중되었으며(57%+43%=100%) 국악, 연극, 연예, 음악 및 기타 장르의 분야에서는 1건의 응답도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4) 연령 구분

<표 III-2-4> 응답자의 연령구분

문항	구분	문학	미술	계	백분율	총계
가	만 26 ~30세	0名	0名	0名	0%	30名 (100%)
나	31~ 35세	0名	3名	3名	10%	
다	36~ 40세	1名	2名	3名	10%	
라	41~ 45세	2名	3名	5名	17%	
마	46~ 50세	2名	2名	4名	13%	
바	51~ 55세	3名	1名	4名	13%	
사	56~ 60세	5名	1名	6名	20%	
아	61~ 65세	0名	0名	0名	0%	
자	66세 이상	2名	0名	2名	7%	
	무응답	2名	1名	3名	10%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주로 31세 이상으로 (최소령 : 33세, 최고령 : 68세) 주 응답층의 분포는 문학이 41~60세(응답자 17명중 12명, 71% 이상), 미술이 31~50세(응답자 13명중 10명, 77% 이상)였다.

문학인이 미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았다. 문학이 비교적 과다한 제반 시설 혹은 비용지출 없이 작업을 오랜 시간 계속해 나가기가 용이한 장르라는 점과 타 분야에 비해 개별적 작업이 가능하고 신체적 소모가 적은 지적(知的) 작업 중심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5) 소재지

<표 III-2-5> 응답자의 거주, 작업실 소재지

구 분	소 재 지	계	백분율	총 계
자 택	안성 거주	14名	47%	30名 (100%)
	안성 외 거주	12名	40%	
	무응답	4名	13%	
작 업 실	안성 소재	12名	40%	30名 (100%)
	안성 외 소재	4名	13%	
	무응답	14名	47%	

주택의 경우 안성 거주자와 안성의 거주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47% : 40%) 작업실의 경우에는 무응답이 의외로 많아(47%) 정확한 통계자료로 잡기 어려웠다. 단, 무응답의 경우 안성 외 거주, 안성 외 소재 작업실 등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안성의 예술인 숫자에 비해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비거주(非居住) 혹은 작업실에 없는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6) 활동기간

<표 III-2-6> 응답자의 활동기간

구 분	기 간	계	백분율	총 계
구 분	약 5년 이내	1名	3%	30名 (100%)
	6년 이상 ~ 10년 이내	3名	10%	
	11년 이상 ~ 15년 이내	4名	13%	
	16년 이상 ~ 20년 이내	6名	20%	

	21년 이상 ~ 25년 이내	6명	20%
	26년 이상 ~ 30년 이내	4명	13%
	31년 이상 ~	1명	3%
	무응답	5명	17%

주된 활동기간은 6년 이상~30년 이내로(응답자 30명중 23명, 77% 이상) 응답자들이 전문인으로 왕성한 활동기중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안성 거주기간

<표 III-2-7> 응답자의 안성거주기간

	기 간	계	백분율	총 계
구 분	약 5년 이내	7명	23%	30명 (100%)
	6년 이상 ~ 10년 이내	5명	17%	
	11년 이상 ~15년 이내	2명	7%	
	16년 이상 ~20년 이내	3명	10%	
	21년 이상 ~25년 이내	4명	13%	
	26년 이상 ~30년 이내	0명	0%	
	31년 이상	5명	17%	
	무응답	4명	13%	

안성 거주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가 40%(응답자 30명중 12명)이고 25년 이내까지는 70%(응답자 30명중 21명)이며 이에 반해 26년 이상인 경우가 17%(30명중 5명) 이어서 안성의 문화예술인구의 유입률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근거 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예술인들의 행동양식도 매우 적극적임을 설문 응답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설문내역별 통계와 분석

○ 개별활동 관련

1. 현재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까?

<표 III-2-8> 창작활동의 여부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활발하다	10명	33%	30명 (100%)
나	보통이다	14명	47%	
다	뜸한 편이다	5명	17%	
무응답		1명	3%	

33%의 응답자가 활발히 창작활동중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뜸한 경우는 17%의 빈도수로 표시되고 있다.

2. 창작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표 III-2-9> 창작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전업 예술인이다	6명	20%	30명 (100%)
나	창작활동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공무원, 제조기업CEO, 보험, 목사, 식물원, 과수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의사, 대학교수, 학원운영, 교습2, 교사2, 상업1)	20명	68%	
다	다른 일을 하느라 창작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습1, 공무원1)	2명	6%	
라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이다	0명	0%	
무응답		2명	6%	

전업 예술인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 전일제 겸업의 경우라서 창작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창작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거나 찾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III-2-10> 창작활동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작업과 연관되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어서	7명	23%	30명 (100%)
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13명	43%	
다	작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2명	7%	
무 응 답		8명	27%	

창작활동 외에 겸업 혹은 부업을 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43%) 창작활동만으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창작활동과 관련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23%를 차지했다.

4. 창작 활동시 가장 크게 느끼시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표 III-2-11> 창작활동에서 느끼는 문제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시간, 공간의 결핍	9명	30%	30명 (100%)
나	아이디어의 결핍	4명	13%	

다	가족, 혹은 일반인의 이해 부족	0명	0%
라	경제적 결핍	14명	47%
마	기타	3명	10%
무응답		0명	0%

3번 문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문제를 창작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으며(47%) 이로 인해 파생되는 시간, 공간의 부족을 포함(30%)하면 전체 중 77% 이상이 창작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혹은 일반인의 이해가 만족할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이해 부족 0%)

5. 독립된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표 III-2-12> 독립된 창작공간의 보유 여부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없다	9명	30%	30명 (100%)
나	가족과의 공유 공간 내에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다	5명	17%	
다	집 내에서 가족공유공간과 별도의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다	6명	20%	
라	집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별도의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다	7명	23%	
마	기타(구체적으로: 연구실1, 교습 공간1)	2명	7%	
무응답		1명	3%	

여러 형태의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가 67% 정도이고, 없는 경우가 30%이다. 작업의 특성상 문학 분야의 경우 창작 공간 보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없는 경우가 41%의 빈도수를 보임)

6. 독립된 행사 공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표 III-2-13> 독립된 행사공간의 보유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없다	17名	56%	30名 (100%)
나	집 내에서 가족공유공간과 별도의 독립된 행사공간을 가지고 있다	2名	7%	
다	집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별도의 독립된 행사공간을 가지고 있다	6名	20%	
라	기타(구체적으로 : 거리가 멀어 활용 못함, 꽃잔치 종합 예술제 행사를 10년간 시행)	2名	7%	
무 응 답		3名	10%	

창작 공간 외에 34%의 빈도수로 행사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활동지역의 여건과 관련

7. 안성시를 작업장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III-2-14> 안성시를 작업장으로 선택한 이유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성장지 혹은 고향이므로	8名	27%	30名 (100%)
나	입지조건이 좋아서(자연환경, 도시환경, 입지환경 등)	7名	23%	
다	친지 혹은 주위의 권유	2名	7%	
라	직장 혹은 자녀의 진학 등 작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3名	10%	
마	기타(구체적으로 : 친구권유 2, 직장 1)	4名	13%	
무 응 답		6名	20%	

문화에서의 ‘작업장’이란 활동 근거가 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성장지 혹은 고향인 선천적 입지의 빈도수가 27%임에 반해 자율적 선택 혹은 직장 등의 원인에 의한 후천적 입지의 빈도수가 53% 임을 보여준다. 작업장을 선택할 시, 적극적·능동적 선택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지역 주민의 문화 정체성과 자부심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III-2-15> 문화정체성과 자부심 형성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기여정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그렇다	4명	13%	30명 (100%)
나	비교적 그렇다	8명	27%	
다	보통이다	8명	27%	
라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10명	33%	
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0명	0%	
무 응 답		0명	0%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의 긍정적 평가가 40%임에 반해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33% 수준에 머무른다. 평상시 예술인들이 지역사회와 자신의 역할, 혹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9. 안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표 III-2-16> 문화예술인들의 안성지역 문화행사의 참여 정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그렇다	6名	20%	30名 (100%)
나	비교적 그렇다	8名	27%	
다	보통이다	7名	23%	
라	알지만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3名	10%	
마	기회가 별로 없었다	6名	20%	
무 응 답		0名	0%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의 빈도수가 47%에 이르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경우가 20%임으로 미루어 보아,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지역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지만 별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10. 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표 III-2-17> 타 지역의 단체나 기관의 참여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그렇다	19名	63%	30名 (100%)
나	아니다	9名	30%	
무 응 답		2名	7%	

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에 참여하는 경우가 63%로 구체적으로는 창작활동 관련 단체나 동호인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며, 모니터링 활동으로 참여하는 이도 2명 있었다.

11. 위 내용 중 가. 그렇다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III-2-18> 타 지역의 단체나 기관에 참여하는 이유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원래 활동영역이 그곳이어서	16名	53%	30名 (100%)
나	안성지역이 활동지역으로 부적당해서	4名	13%	
다	안성지역에서 적절한 기회가 없어서	1名	3%	
라	특별한 뜻은 없다	3名	10%	
무 응 답		6名	20%	

안성지역이 후천적 입지 선택임을 감안할 때(문항 7) 원래 활동영역이 그 쪽이거나 특별한 뜻이 없는 경우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자연스럽다. '안성지역이 활동지역으로 부적당하거나 적절한 기회가 없어서'일 경우는 16%에 불과해 안성지역의 문화환경문제가 타 단체 활동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2.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의 활동여건에 만족하십니까?

<표 III-2-19> 안성의 활동여건에 대한 만족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만족한다	2名	7%	30名 (100%)
나	만족하는 편이다	6名	20%	
다	그냥 그렇다	17名	57%	
라	전혀 그렇지 않다	2名	7%	
마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고 한다	2名	7%	
무 응 답		1名	3%	

비교적 만족하는 경우가 27%(가, 나)로 불만족스러운 경우인 14%(라, 마)의 2배이긴 하지만 57%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냥 그렇다'라고 답해주었다. 이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안성지역이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로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에서 활동하시며 만족한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표 III-2-20> 창작예술인으로서 느끼는 안성시의 만족도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자연친화적인 자연환경	15명	48%	31명 (100%)
나	타지방에 비해 예술인들의 분포도가 높고 많은 교류가 가능하다	3명	10%	
다	전시, 공연 등 작품 발표의 기회가 많고 활동이 활발하다	1명	3%	
라	예술의 도시답게 예술인에 대해 지역민들이나 정책이 우호적이다	5명	16%	
마	가족들의 주거, 교육환경으로 적절하다	1명	3%	
바	스튜디오나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입지조건이 타지방에 비해 유리하다	3명	10%	
사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직장 혹은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3명	10%	
아	기타(구체적으로: 정책이 우호적이다)	0명	0%	
무응답		0명	0%	

무엇보다 자연친화적인 자연환경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48%), 예술인에 대한 지역민들이나 정책이 우호적인 점이 2위로 채택되었다 (16%). 그 외 타지방에 비해 예술인들의 분포도가 높고 많은 교류가 가능한

점이나 스튜디오나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입지조건이 타지방에 비해 유리한 점,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직장 혹은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각각 10% 씩으로 나타났다.

14.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에서 활동하며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 III-2-21>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의 불만족 원인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전시, 공연 등 작품발표의 기회가 적고 활동의 기회가 적다	5명	15%	34명 (100%)
나	문화예술에 대한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관심이 낮은 편이다	13명	38%	
다	스튜디오나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경제적으로 타지방에 비해 불리하다	0명	0%	
라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직장 혹은 수입원 창출이 힘들다	6명	18%	
마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정보도 늦다.	4명	12%	
바	가족들의 주거, 교육환경으로 부적절하다	3명	9%	
사	기타(구체적으로:)	2명	6%	
무응답		1명	3%	

문화예술에 대한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관심이 낮다는 점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문항 13의 입지조건에 긍정적 측면에서 지역민들이나 정책이 우호적인 점을 2위(16%)로 꼽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자가 지역자치단체 혹은 지역민에 대한 일반적인 피상적 이미지에 힘입은 결과라면 이 문항에서의 부정적인 빈도수는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의 입장 혹은 지역주민과의 직접적 접촉에서 파생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 외 창

작활동과 관련하여 직장 혹은 수입원 창출이 힘든 점(18%), 전시·공연 등 작품발표의 기회가 적고 활동의 기회가 적은 점(15%),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정보도 늦은 점(12%)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환경 관련

15. 안성의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III-2-22> 청소년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평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바람직하다	3名	10%	30名 (100%)
나	보통이다	7名	23%	
다	열악한 편이다	18名	60%	
라	잘 알지 못한다	2名	7%	
무 응 답		0名	0%	

‘열악한 편이다’의 빈도수가 60%로 긍정적 측면(매우 바람직하다)의 10%에 비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 정부나 안성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표 III-2-23> 안성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잘 알고 있다	4명	13%	30명 (100%)
나	비교적 알고 있다	8명	27%	
다	보통이다	8명	27%	
라	잘 모른다	10명	33%	
마	관심 없다	0명	0%	
무 응 답		0명	0%	

긍정적 응답의 빈도수가 40%(가, 다)로 '잘 모른다'의 빈도수(33%) 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응답자의 90%가 한국예총 안성시지부 산하 협회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지역문화예술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표 III-2-24> 지역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참여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그렇다	4명	13%	30명 (100%)
나	그런 편이다	7명	23%	
다	아니다	19명	63%	
무 응 답		0명	0%	

지역문화예술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63%로 참여하는 경우(가, 나)의 2배 가까이 해당하는 36%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성지

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문화예술정책에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제공되고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표 III-2-25> 자치행정기관의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만족스럽다	0명	0%	30명 (100%)
나	바람직하긴 하나 일부 개선이 요구 된다	8명	27%	
다	보통이다	5명	17%	
라	부족하다	9명	30%	
마	관심 없다	1명	3%	
무 응 답		7명	23%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나)의 빈도수가 27%이고, 무응답 23%를 포함한 부정적 평가(라, 마)가 56%로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 평가의 2배 정도이다. 단일 항목으로는 '부족하다'가 30%로 빈도수가 제일 높았다.

19.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있으십니까?

<표 III-2-2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그렇다	6명	20%	30명 (100%)
나	그런 편이다	4명	13%	
다	아니다	20명	67%	
무 응 답		0명	0%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67%로 받고 있는 경우(가, 나)의 33% 보다 2배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20. 본인의 창작활동과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의 충돌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고 어느 정도입니까?

<표 III-2-27>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의 충돌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아니다	15名	40%	30名 (100%)
나	그런 편이다	2名	7%	
다	관심 없다	3名	10%	
라	잘 모르겠다	9名	30%	
무 응 답		1名	3%	

창작활동의 근간이 되는 역사관이나 소신이 지역의 문화예술정책 혹은 사회통념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는 40%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충돌이 있는 경우는 7%로 나타났다.

21. 문화예술교육관련 공공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III-2-28>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담당 행정직원의 전문화	12名	32%	37名 (100%)
나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21名	57%	
다	기관운영을 전문인에게 위탁운영	4名	11%	
무 응 답		0名	0%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첫째로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꼽고 있어(57%), 문화예술인의 공적기능과 역할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수행을 자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안성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III-2-29> 청소년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과제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보다 많은 전시, 공연 등 행사와 관람	9名	25%	35名 (100%)
나	공교육 외 다양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19名	54%	
다	입시제도의 개선	3名	9%	
라	중·고등학교 교육제도의 개선	3名	9%	
마	기타 : 전문예술인의 기획과 활동 참여	1名	3%	
무 응 답		0名	0%	

‘공교육 외 다양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54%) 및 ‘보다 많은 전시, 공연 등 행사와 관람’(25%)에 대한 빈도수가 79%로 ‘일반 교육제도 혹은 입시제도의 개선’의 빈도수 1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내에서 직접 청소년과 교류하며 그 결과를 예측, 측정하고 조절하는 가운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도 주요 원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안성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전반적 사고가 이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3. 안성의 문화예술 환경 혹은 정책 중 만족한 점을 3개만 서술해주십시오.
오.(복수응답)

<표 III-2-30> 안성의 문화예술 환경 혹은 정책의 만족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	지자체의 문화예술도시정책과 지원의지 및 관광상품화 전략, 안성출신 문화예술인에 대한 우대정책(기념관 및 시비 건립, 백일장, 추모제, 기념행사 등)	14명	33%	43명 (100%)
○	문화행사의 다양성	5명	12%	
○	문화예술전통과 향토예술의 자원 풍부, 향토성 고취	4명	9%	
○	풍부한 문화예술인적 자원	4명	9%	
○	자연환경과 보존	2명	5%	
○	수도권 인접해 발전 가능성	1명	2%	
○	교육적 환경 (5개 대학)	1명	2%	
무 응 답		12명	28%	

안성시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도시 정책과 지원의지 등에 매우 호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33%) 안성지역이 지닌 자연적, 향토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14%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전통과 향토예술의 자원 풍부, 향토성 고취' 9%, '자연환경과 보존' 5%)

24. 안성의 문화예술 환경 혹은 정책 중 개선해야 할 점 3개만 서술해 주십시오.(복수응답)

<표 III-2-31>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의 개선과제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	예술정책결정과 행사 기획시 전문성, 창조성 결여(전문예술인의 참여 필요, 국적 불명의 축제형태 재고 포함)	8명	14.5%	54명 (100%)
○	전시, 공연 공간 부족과 후진성	8명	14.5%	
○	지원금 제도 개선(일부편중으로 실질적 혜택 부족, 지원금에 대한 감사 및 행정직 공무원들의 순환근무 필요, 지원예산 부족 포함)	8명	14.5%	
○	예술인간의 유대관계 개선, DB구축과 활용	5명	9%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 유기적 협조체제 미약	4명	7%	
○	지역민의 배타성과 수직적 위계질서	3명	6%	
○	시민의 참여의식이 낮다	2명	4%	
○	안성시민을 위한 문화센터 필요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포함)	2명	4%	
○	행사홍보 부족	1명	2%	
○	특기장학생 제도 개선	1명	2%	
○	미술재료 전문 취급점 부족	1명	2%	
○	자연훼손(개발목적) 방지	1명	2%	
○	인구 부족	1명	2%	
○	향토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기반조성	1명	2%	
무 응 답		8명	14.5%	

예술정책결정과 행사 기획시 전문성, 창조성 결여와 전문예술인의 참여 필요, 전시, 공연시설 부족, 지원금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을 약 45%의 빈도수로 지적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비전문적 정책수립과 예술인 입장에서

의 예술지원책과 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안성시내의 시민회관 전시장 약 50평이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는 전시공간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열악한 구조와 예술인간의 유대관계 개선, DB구축과 활용의 미흡, 지자체 및 관련기관(시청, 시의회, 교육청, 문화원, 도서관 등)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 유기적 협조체제 미약 등은 16%를 차지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은 물론 향후 청소년 관련 문화예술·교육벨트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짐작된다.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와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관련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이란 이름이 생소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협동조합은 생명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공급받는 생활협동조합을 보면서 안성의 문화예술·교육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교육과 생명의 문화를 여럿이 함께 만들어 내고, 더불어 함께 나누기 위한 교육과 문화의 상생체를 이루어 가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25. 안성지역 내에서 작품을 발표하거나 작업장을 공개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내용 포함)

<표 III-2-32> 문화예술인들의 대중화 노력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그렇다	20명	67%	30명 (100%)
나	아니다	7명	23%	
무응답		3명	10%	

지역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가 67%의 높은 빈도수를 차지해 아닌 경우(23%)의 3배에 이른다.

26. 위의 답변 중 (ㄱ)그렇다 인 경우 그 형태는?(복수응답)

<표 III-2-33>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형태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전시, 공연, 문학작품발표회 등 작품발표	19명	59%	32명 (100%)
나	작업실 공개	5명	16%	
다	교육	7명	22%	
라	기타	1명	3%	

25.문항 중 '그렇다'에 응답한 20명이 응답했으며 '작품 발표와(55%) 교육(15%) 프로그램'이 7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실 공개(OPEN STUDIO)'의 경우(15%) 예술인과 일반인의 직접적인 만남이란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현장체험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기타 에서의 구체사항으로 '꽃피마을 출신 문인소개 심포지엄 및 체험, 교육세미나' 행사를 기술하였다.

27. 위의 답변 중 (ㄱ)그렇다 인 경우 결과에 만족하셨습니까?(복수응답)

<표 III-2-34>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만족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만족	1명	5%	21명 (100%)
나	만족한 편	8명	38%	
다	보통이다	10명	48%	

라	아니다	1명	4.5%	
마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1명	4.5%	

25.문항 중 ‘그렇다’에 응답한 20명이 응답했으며, 활동결과에 대해 만족이 43%, 불만족이 9%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한 구체적 사유를 기술한 경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3명), 시민 학생의 참여(1명)를 꼽았고 인구가 부족한 점(1명)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점(1명)에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부정적 견해의 경우(라, 마)는 6%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28. 위의 답변 중 (ㄴ)아니다 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III-2-35> 대중화를 위한 시도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기회가 없었으며 앞으로는 노력해보겠다	4명	44.5%	
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1명	11%	
다	필요를 느끼기는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다.	4명	44.5%	

25.문항 중 ‘아니다’에 응답한 7명이 주로 응답했으며 필요를 느끼기는 하나 적절한 기회 혹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다)가 89%이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1인(11%)에 불과 했다. ‘아니다’에 응답한 89%의 빈도수가 지역 주민 혹은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창작발표,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복수응답)

<표 III-2-36> 대중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8%	38명 (100%)
나	문화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욕구 조사, 정보	7명	18%	
다	장소, 장비 등 시설	5명	13%	
라	프로그램 운영비	5명	13%	
마	홍보물 제작과 인쇄	1명	3%	
바	관객 혹은 수강생 모집	5명	13%	
사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 부족	4명	11%	
아	문화예술인 간의 지원과 협조 부족	6명	16%	
무응답		2명	5%	

창작발표,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 문화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욕구 정보를 들고 있는 점(18%)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문화예술인 간의 지원과 협조 부족(16%), 장소 장비 등 시설(13%), 프로그램 운영비(13%)를 포함한 제반문제들은 예술인 개인이 창작활동 외의 활동 특히 문화예술·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를 위해 예술인 간에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유기체나 혹은 전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의의가 이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30. 기존단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예술인 간의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표 III-2-37> 문화예술인들 간의 새로운 교류형태의 필요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그렇다	8名	27%	30名 (100%)
나	비교적 그렇다	11名	37%	
다	보통이다	3名	10%	
라	상황에 따라서	5名	17%	
마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1名	3%	
무 응 답		2名	6%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빈도수가(가, 나) 6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인 가능성의 범주까지(다, 라)를 포함하면 91%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이는 수치이다.

31. 새로운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는 어느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표 III-2-38> 문화예술인간의 교류형태 참가희망 분야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친목과 교제	4名	12%	34名 (100%)
나	전문적 연구와 교류	16名	47%	
다	지역사회봉사	4名	12%	
라	지역사회와의 교류	8名	23%	
마	행정단체기관과의 교류, 권익보호	2名	6%	
무 응 답		0名	0%	

문화예술인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의 성격에 대해 전문적 연구와 교류(47%), 지역사회와의 교류(23%)에 매우 높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70%의 빈도수로 보여주고 있으며, 친목과 교제, 지역 사회봉사 등의 항목이 각각 12%의 빈도수로 나타났다.

32.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계신 활동 혹은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3년 이내 활동 포함)

<표 III-2-39>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없다	6명	20%	30명 (100%)
나	있다	17명	57%	
무응답		7명	23%	

57%의 응답자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활동 혹은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33. 위 설문 중 (ㄴ) 있다 에 답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복수응답)

<표 III-2-40>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내용

문항		응답	백분율	계
문학	○ 창작품 발표(문학지 게재, 칼럼 연재, 작품집 발간)	4명	18%	22명 (100%)
	○ 연구(안성향토사료 수집, 향토작가재조명사업, 혜산 박두진 기념사업)	3명	13%	

	○ 교육(독서지도사, 문학 강좌)	2名	9%	
	○ 교육자료 제작(중고생용 영상물)	1名	5%	
	○ 무응답	12名	55%	
미술	○ 전시	6名	33%	18名 (100%)
	○ 교육	6名	33%	
	○ 교육내용 전시	1名	6%	
	○ 연구(작가와와의 만남), 전시기획	2名	11%	
	○ 무응답	3名	17%	

문학, 미술 분야 모두 창작활동과 작품 발표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그 외 각종 연구와 교육자료 제작, 전시기획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4. 저희가 제시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복수응답)

<표 III-2-41>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의 필요성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동의	18名	52%	34名 (100%)
나	그저 그렇다	7名	21%	
다	동의하지 않는다.	1名	3%	
무 응 답		8名	24%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 나누기 위한 교육과 문화의 상생체로서의 네트워크 의미를 이해하고 비교적 동의하는 빈도수가 73%로 높은 편이었으며, 동의하지 않는 빈도수가 무응답을 포함하여 27%의 빈도수를 보였다.

35.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복수응답)

<표 III-2-42> 네트워크를 통한 벨트 프로그램 운영시 유의사항

문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7名	17%	41名 (100%)
나	프로그램 내용의 참신함	10名	24%	
다	행정기관의 협조와 참여	3名	7%	
라	지역주민,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10名	24%	
마	제도의 민주적 운영	2名	6%	
바	예산 확보	6名	15%	
사	참여	3名	7%	
무응답		0名	0%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유의할 점으로 프로그램 내용의 참신함(24%)과 지역주민,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24%)를 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프로그램의 직접 소비자인 주민, 청소년의 소비욕구를 중시한 일면으로 여겨지며, 문항 29의 응답 중 '나. 문화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욕구 조사, 정보'가 상위의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일치된다.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17%)와 예산 확보(15%)를 포함해 이상 상위 4개 요건이 80%의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36.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안성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청소년, 혹은 일반 주민들과의 교류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표 III-2-43>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유무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그렇다	16명	53	30명 (100%)
나	상황 봐서 하겠다	8명	27	
다	창작활동에만 매진하겠다	4명	13	
무 응 답		2명	7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경우(가, 53%)와 유동적인 경우(나, 27%)를 포함하면 80%의 빈도수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7. 참여하신다면 활동 가능하신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표 III-2-44> 프로그램 운영시 활동가능한 시간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	11명	37%	30명 (100%)
나	1주일 1회 이내	5명	17%	
다	1주일 2~3회 이내	1명	3%	
라	1주일 4~6회 이내	1명	3%	
마	월 1~2회 이내	7명	23%	
무 응 답		5명	17%	

활동 가능한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1주 1회~ 월 1~2회인 경우가 40%의 빈도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별 조절이 필요한 항목으로 보인다.

38. 참여하신다면 그 대가는 유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맞습니까?

<표 III-2-45> 프로그램 참여시 유·무료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유료가 적절	12名	40%	30名 (100%)
나	무료가 적절	1名	3%	
다	경우에 따라서	12名	40%	
무 응 답		5名	17%	

‘유료’ 및 ‘경우에 따라서’가 80%의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반면, ‘무료’에 응답한 경우는 3%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 시간과 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9. 참여하신다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 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원 설문지에는 다른 영역의 참가희망분야가 있었으나, 설문에 응하지 않았던 분야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III-2-46> 참가희망 분야

구 분	문 학				미 술			
	구체적 내용	응답(名)	백분율	총계	구체적 내용	응답(名)	백분율	총계
가	강좌 (이론)	3	18%	17名	이론 강좌	2	9%	23名
나	감상	1	6%		우리나라 옛 그림 감상	3	13%	
다	체험	0	0%		실기	4	17%	

라	창 작	시, 수필창작법	4	23%		실기강좌	8	35%
마	기 타	창작활동 공간 제공 한문강좌 답사, 행사에 동행(휴일)	3	18%		어린이미술학교 미술치료	3	13%
	무 응 답		6	35%			3	13%

창작, 실기 강좌(라)에 빈도수가 가장 높은 편이고, 영역별로 다양한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마)에서 창작활동 공간 제공, 한문강좌 답사, 행사에 동행(휴일) 등 독특한 내용들도 눈길을 끈다.

40. 보유하고 계신 시설 혹은 기자재중 활용, 대여 혹은 교환사용 하실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 III-2-47> 대여나 교환사용이 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

장 르	내 역	계
문 학	장소	2
	신작문학도서등 도서(시, 수필문학창작 관련)	1
미 술	장소 (작업장2, 교습소 1)	3
	창작활동 시설(도예 관련 2, 서예관련 1)	3
	교육자료	1
기 타	전통문화인 전통음식의 제조과정과 환경(시설)의 활용	1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소 등을 대여 혹은 교환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과 함께 부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에 상응한 보상 혹은 훼손 등 손실부분에 대한 처리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1. 앞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일
이나 필요한 일 혹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 III-2-48>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 기여분야

구분	내역		응답
선행 과제	○	향후 안성의 문화예술·교육예술의 방향 모색을 위한 작업의 선행이 필요	1명
	○	본 설문내용의 현실, 문제점, 개선방향에 적극 찬동	1명
	○	장르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	1명
	○	학년대별 체험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명
	○	지도자(교사, 예술인, 행정인 등)의 의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1명
	○	안성문학아카데미-소질 있는 청소년의 조기발굴과 지원육성	1명
프로 그램	문학	○ 문예 강좌, 창작 및 감상,	3명
		○ 창작 연관 학습을 통한 정서교육(공연관람, 시낭송회, 문예반 활성화)	2명
		○ 독서토론티도	1명
	미술	○ 창작 실기(설치/회화 등)	3명
		○ 아동, 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1명
		○ 어린이미술학교	1명
		○ 학교 파견 강의	1명
		○ 일반인, 청소년을 위한 창작미술학교	3명
		○ 자연+미술캠프	1명
		○ 미술창작 레지던스	1명
		○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1명
기 타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장 필요	1명	
무응답			17명

위에 제시된 선행과제나 추천된 프로그램들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교

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시 매우 유용하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42.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혹은 작가를 3개(분)만 추천하여 주십시오.

<표 III-2-49>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혹은 작가

분 야		내 역
문 학		장석주, 박완서, 고 은, 김유신, 윤수천(아동문학가), 맑당쿨(경기수필회장)
미술	회 화	김효기, 박원태, 최욱미
	조 각	홍동희, 강종찬, 한병희, 조성구, 이대희, 홍성봉, 권용철, 성동훈
	도 예	유승렬, 양상근, 양재석
	일러스트	이억배
음 악		이상헌
영 화		임권택
기 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적격자 선정
무 응 답		20名

추천된 예술인들은 앞으로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3. 청소년 문화예술 · 교육벨트 설정을 위한 과제 개발

청소년 문화예술 · 교육벨트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2004년 5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안성예총에 등록된 회원과 비등록 회원 342곳과 안성 시내 초 · 중 · 고등학교 43곳을 포함하여 모두 385곳에 설문지를 보냈고 그 중 46부가 회수되었다. 이를 토대로 미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 학부모 그룹, 문화예술인 그룹, 교사그룹과 차례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설문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과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안성지역 교육 문화예술인들과의 탐방 및 인터뷰 그리고 간담회를 일정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인과 작업장, 유관 시설 탐방 및 인터뷰

: 안성시 문화정책, 문화예술인들의 현황, 문화예술 · 교육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 나눔

2004. 3. 31 청류재 (김유신 - 안성예총회장, 시인) 탐방
 청학대 미술관 탐방
 유연복 (판화가, 푸른안성맞춤21 문화분과위원장)
 이역배 · 정유정 (미술작가, 그림동화)
 안성 문화원
 안성 도서관
 안성문화학교 달팽이
 김건희 (미술작가)
 김주석 (안성 백성초등학교 교사)

- 간담회
- 2004년 6월 18일 안성 학부모와의 간담회 /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 2004년 6월 19일 안성 예술인과의 간담회 / 소나무 S 갤러리
- 2004년 6월 22일 안성 교사들과의 간담회 /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1)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의 개선을 위한 과제

안성지역의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현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선호하는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모두 컴퓨터 학습프로그램이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체능학습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태학습 프로그램의 순으로 선호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III-3-1> 특기적성(방과 후)교육 선호도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계
가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3	3	1	2	0	0	9
나	문화예술 학습 프로그램	1	2	3	3	0	0	9
다	생태 학습 프로그램	0	0	0	0	3	0	3
라	체능 학습 프로그램	2	3	3	1	0	0	9
마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10	5	0	0	0	0	15
바	기타	0	0	1	0	1	1	3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설문조사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대체로 일선 학교현장의 일반적 현상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반적 선호를 인정

한다 할지라도 “학기 초에 아이들이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흥미를 끌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교사들도 느끼고 있었다. 즉 문화예술·교육시설을 연계하여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설문에 응답한 16개 학교 중 1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2> 문화예술·교육시설과 연계 여부

문 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예	1	0	1	6%
나	아니오	13	2	15	94%
계		14	2	16	100%

그 원인으로 응답학교 16개 학교 중 11개 학교가 정보의 부족이라고 답했다.

<표Ⅲ-3-3> 문화예술·교육시설과 연계하지 않는 이유

문 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안전상의 이유로	1	0	1	6%
나	학습비용의 이유로	1	1	2	12%
다	정보가 없어서	11	0	11	70%
라	기타	1	1	2	12%
계		14	2	16	100%

흥미로운 점은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특기적성 (방과 후)교육을 새롭게 기획하여 제공한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우선하여 선택하시겠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래 표와 같이 1순위, 2순위 모두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컴퓨터, 외국어 순으로 나타났다.

<표III-3-4> 특기적성교육을 새롭게 기획할 때 우선순위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가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3	1	3	5	1	0	0	0	1
나	문화예술학습프로그램	6	4	4	2	0	0	0	0	0
다	생태 학습 프로그램	0	1	5	0	3	2	1	0	2
라	체능 학습 프로그램	1	2	1	4	1	4	0	0	0
마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4	4	1	0	0	2	1	1	0
바	지역개발 프로젝트	0	2	1	0	0	0	5	4	0
사	봉사활동 프로그램	1	1	1	2	1	1	4	1	0
아	지역여행 프로그램	1	1	0	1	4	1	0	5	0
자	지역인사와의 만남	0	0	0	0	2	1	0	0	9

그리고 응답학교 모두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맞춤형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활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응답 학교 모두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III-3-5> 맞춤형 특기적성교육 정보제공 희망 여부

문 항		초	중고	계	백분율
가	예	14	2	16	100%
나	아니오	0	0	0	0%
계		14	2	16	100%

이러한 통계가 과연 일반적인 현상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점검해 보기 위해 안성지역의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일선 학교교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교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며, 또한 학부모

역시 같은 이유로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설문지에서 지적된, **정보부족의 원인**을 간담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라고 표현하였다. 일선 교사들은 정보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넘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교사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학습자 혹은 학부모의 경험 부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는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비용의 문제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기획단계에서부터 포기하고 만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안성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학생 수가 부족한 지방학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⁸⁾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은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무엇보다 교사들과 학부모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자(강사)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권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with/sub_1_3.html

- 교사와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 외부 전문 인력의 적극 유치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외부강사의 강사료의 현실화 및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인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강좌 개설을 위한 강사비 보전 및 학생들의 이동시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 및 인적자원, 프로그램 활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청소년 문화환경의 개선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대한 요청은 문화예술 영역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의 수요자들이 생산자들을 찾아갔었다면, 이제는 문화예술인들이 수요자를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러한 시도가 없다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유통시킬 통로를 찾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특정한 문화예술의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유통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유통되지 않는다, 즉 그 존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에서 문화 예술의 대중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⁹⁾

대중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이다.

9) 이건용, “문화예술 대중화, 장르 간 대립 아닌 공존의 법칙”, 『기전문화예술 통권 제 25호』, p. 20.

이 감수성은 대체로 어린 나이 혹은 젊은 나이에 형성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어떤 문화예술을 경험해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즉 자발적인 관심에 의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서클(동아리)활동을 한다거나,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경험,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문화예술영역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한 교사와 학부모가 느끼는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안성지역 문화예술인들도 공감하고 있다. 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영역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보다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6>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담당 행정직원의 전문화	12명	32%	37명 (100%)
나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21명	57%	
다	기관운영을 전문인에게 위탁운영	4명	11%	
무 응 답		0명	0%	

설문에 응답한 안성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Ⅲ-3-7> 대중화를 위한 시도 여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그렇다	20명	67%	30명 (100%)
나	아니다	7명	23%	
무 응 답		3명	10%	

문화예술인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한 비율이 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만족 43%, 보통 48%, 불만족 9%로 나타나 비교적 대중들과의 만남에서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3-8>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만족도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매우 만족.	1명	5%	21명 (100%)
나	만족한 편.	8명	38%	
다	보통이다.	10명	48%	
라	아니다.	1명	4.5%	
마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1명	4.5%	

반면 대중들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못한 문화예술인들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표III-3-9>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형태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기회가 없었으며 앞으로는 노력해보겠다.	4명	44.5%	9명 (100%)
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1명	11%	
다	필요를 느끼기는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다.	4명	44.5%	

이는 대중화를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오거나 혹은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시도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한 대중화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창작활동 외에 다른 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

다. 실제 설문에 응답한 안성의 문화예술인들 중 전업 예술인은 20%에 불과하며 다른 일과 겸하고 있는 경우가 68%, 경제활동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6%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이 대중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려면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무시하고서는 함께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안성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¹⁰⁾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은 특히 자라나는 성장 세대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할 수 있으면 자신의 문화예술 영역을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기를 희망하였다. 다만,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을 적절한 경제적 대우로 보전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한 학습자 수와 학습 환경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그리고 학교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성은 인정하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방법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안성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시도로 창작발표, 혹은 문화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10) 2004년 6월18일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함.

<표III-3-10> 대중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문 항		응답	백분율	계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3名	8%	38名 (100%)
나	문화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욕구 조사, 정보	7名	18%	
다	장소, 장비 등 시설	5名	13%	
라	프로그램 운영비	5名	13%	
마	홍보물 제작과 인쇄	1名	3%	
바	관객 혹은 수강생 모집	5名	13%	
사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 부족	4名	11%	
아	문화예술인 간의 지원과 협조 부족	6名	16%	
무 응 답		2名	5%	

소비자의 욕구 및 정보부재(18%), 문화예술인들 간의 지원 및 협조 부족(16%), 그 외 관객 및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 장소 및 장비 등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은 예술인 개인이 창작활동 외의 활동 특히 문화예술·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예술인 간에 네트워크를 담당할 전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결국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기본적 과제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의 감수성 함양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과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문화예술인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통로(유통구조)를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자발적 협동체가 필요하다.

3) 중앙정부의 정책지원방안을 통한 연계모색

(1) 교육인적자원부의 특기적성교육지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였다.¹¹⁾

▶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능·취미 계발, 예·체능 및 기술교육 보완, 인성함양 도모
- **교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외부인력 적극 유치**
 - 현직 교원에 대한 **특기 연수비 지원** 및 예비교원 활용
 - 외부 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경력 인정방안 검토 및 **장기계약 권장**
 - ※ 초등학교 외부강사 활용률 : 75.4%
-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 방안 강구**
 - 지역교육청 **순회강사** 확보 및 **지역거점학교** 육성 지원을 통하여 인적자원과 시설 공동 활용
 - **지역사회와 연계**, 시설·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극대화
 - **악기 등 교육기자재** 구입·운영 경비 지원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강좌 개설을 위한 강사비·교통비 지원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사비 지원의 현실화, 그리고 이웃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의 경우 교통문제의 해결을 더욱 촉구해야 할 것이다.

11)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대책”, 2004.2.17, p. 12.

(2)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방안¹²⁾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추진 방향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 지역별로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성을 높이는 협력프로그램 확대
 - 현장교육 강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친밀감 증진
- 중앙정부, 지자체, 문화예술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협력 등 범정부적 협력체제 구축
 -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문화시설 등 관련 주체 간 협력사업 추진
-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 지원
 - 학교와 문화예술현장 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체계적 육성방안 강구
 -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 관련 교사들의 능력 제고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상 사업 중점 추진
 -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병행 추진
- ※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사항
 - 시범학교 운영 및 교원연수 등 관련 행정 협조(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및 자원 마련(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 지역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매칭 자원 마련(광역자치단체)
 -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를 위한 지역 내 협조체제 구축(기초 자치단체)

1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04년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4) 안성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체험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교사와 문화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교육단체와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및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
- 안성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안성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상설업무 지원

이 정책방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방안’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예술·교육예술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은 수요자인 청소년 뿐 아니라 공급자이며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현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체적 방안은 다음 장에서 소개될 느티나무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통해 안성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안성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교육 현장과 평생교육시설 및 시민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이 교실이나 센터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학습자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교육단체에서 배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의 문화예술·교육벨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또 새로운 벨트를 개발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벨트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상설적인 운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성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안성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체험을 위한 주요 지원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위한 안성지역의 다양한 교육인적자원의 네트워킹 구축.
- 공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문화기반시설 및 전문인(강사)들과 연계를 통해 안성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전문분야 강사 풀(Pool) 형성.
- 청소년 관련 평생교육사(교육인적자원부),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청소년지도사(문화관광부) 중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전문지도자의 양성 및 업무 지원.
- 공교육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

Ⅳ.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개발의 기본방향과 설정

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개발의 기본 방향

안성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안성지역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서 큰 장이 서고, 말을 갈아타는 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또한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성의 특성 중의 하나인 문화예술인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또한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하며, 인구는 약 13만명 정도이지만 중앙대, 한경대, 안성여자기능대, 두원 공대, 동아 방송대 등 각기 다른 전문분야의 5개 대학과 2개의 대학원이 소재하고 있어 교육환경 및 전문가 그룹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안성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입시 위주의 공교육에서 배우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를 깊이 있게 이해시킴으로써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모든 것이 서울 중심과 중산층이상으로 표준화된 사회 속에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화와 개발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인간과 더불어 이어 온 생활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육체적 정신적 고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도

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역공동체는 급속하게 와해되어가고 말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벨트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체험과정은 공동체를 알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는 귀중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람(觀覽) 중심보다는 자기 주도적 체험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벨트 프로그램의 성격이 시각중심보다는 다양한 감각의 만족을 통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치듯 지나가는 관광형태의 벨트 프로그램은 결국 교육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따라해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만들어가는 문화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흥미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벨트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면 그 교육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2. 문화예술·교육벨트의 구성요소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란 단순히 지역과 지역만의 연계로는 활성화될 수 없으며 각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체험내용이 구성되어야 프로그램이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구성요소로는 청소년들의 체험교육활동을 안내할 전문인력으로서의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활동 공간으로서의 시설자원, 그리고 안성지역의 교육기관, 문화기관, 청소년 기관 및 단체 등 문화예술·교육벨트에 참여할 수 있거나 협력할 수 있는 조직자원, 안성지역의 생태·역사·문화 등 프로그램에 활용될 환경자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벨트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1> 문화예술·교육벨트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성요소

구 성 요 소	내 용
인 적 자 원	청소년의 체험교육활동을 안내할 전문인력
시 설 자 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활동 공간
조 직 자 원	안성지역의 교육, 문화, 청소년 기관 및 단체 등 사업에 참여·협력할 수 있는 유관기관
환 경 자 원	생태, 역사, 문화 등 프로그램에 활용될 환경자원
재 정 자 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재정자원

3. 청소년 문화예술 · 교육벨트의 설정

1) 청소년들의 생태체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안성의 시민들은 자녀들에게 “야생동물이 살아나는 도시”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¹³⁾ 그 목표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백로가 날아다니는 생태도시를 만들자.
 둘째, 생명의 서식처인 아름다운 숲을 지키자.
 셋째,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하고 강태공이 낚시하는 안성천을 만들자.
 넷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활의식을 실천하자.

안성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에서는 그 구체적 실천과정으로서 어린 청소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경기의제의 지원을 받아 안성지

13) 『푸른안성 21』 환경의제 <http://www.ansung21.or.kr/natural/default.asp>

역의 내혜홀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설정하여 안성천의 발원지를 중심으로 상·하류의 생태를 탐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연의 생태계를 인식하게 됨은 물론 사람과 더불어 공생하는 생명들과 상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교육벨트로서 시민단체와, 공교육, 그리고 민관연합기관인 경기의제21과 연계된 매우 바람직한 벨트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1) 벨트형성을 위한 자원

지 역	공원/농원	산	하천 및 호수	기타
시 내	솔밭공원, 안성공원			
공도읍	안성맞춤 기족공원			
대덕면				
고삼면		금병산, 경수산	고삼호수, 미산저수지	
양성면				미리내성지
원곡면		고성산		
금광면	꿈동산농원, 금광관광농원	국사봉	금광호수, 마둔저수지	광산성
서운면	오하관광농원, 배단지, 포도단지	서운산성, 청룡산	청룡호수	
미양면	배단지			
보개면	청류재식물원	비봉산, 머릿골산		
삼죽면	부림농원		덕산저수지	
죽산면	백산관광농원	바카프미산, 칠장산, 칠현산, 도덕산, 죽림산, 산박골산, 남산	용설호수, 두메저수지	죽주산성
일죽면	서일농원, 개미관광농원, 성원목장	망이산		망이산성, 흔들바위

(2) 벨트화를 위한 주제

- 우리 마을에 서식하는 동식물 분포지도 만들기
- 백로의 먹이 공급처인 안성천의 오염도 측정
- 백로의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
- 세제를 적게 사용하고, 저농약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캠페인

(3) 생태체험을 위한 벨트 프로그램의 사례

가.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과 함께 하는 환경생태체험학습

- ☞ 벨트의 유형 / 경기의제 21 - 시민단체 - 내혜홀 초등학교 - 안성
천발원지 - 안성천 중하류 - 안성천 유역 - 안성평야 - 안성
대교 수중보

▶ 안성천 환경생태 체험학습

- 목 적
안성천 생태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고장의 젖줄인 안성천 보전에 관심을 갖게 하여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기 간 : 2004. 4 ~ 2004. 11. 15.
- 지 역 : 안성천 일대(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보개면 발원)

○ 주요 사업 내용

- 안성천 환경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안성천 환경생태 탐사 : 수질 및 주변 식물 탐사, 물 속 생물(민물고기) 및 주변 동물 탐사, 백로 서식지 및 실태 파악, 갯벌 탐사

○ 참여 구성원

- 프로그램개발 :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 강 사 :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외 학교 교사 4명
- 진 행 : 환경부장 및 조별 지도교사 3명 및 촬영담당 교사
- 참 가 : 내혜홀 초등학교 5~6학년 36명
(모둠당 12명 총 3모둠으로 편성)

○ 안성천 생태 탐사 세부추진계획

- 1차 탐사 : 안성천의 자연환경
 - 조사 지점 : 안성천 발원지(안성시 고삼면, 보개면 국사봉 일대) 및 중·하류 일대, 안성천 유역, 안성평야 등
 - 조사 방법 : 강사 설명, 현장 답사 및 촬영, 워크북 작성
- 2차 탐사 : 안성천의 수질, 물속생물, 주변곤충 및 동물
 - 조사 지점 : 안성 대교 및 수중보
 - 조사 방법 :
 - ① 수질 : 신속 수질분석기(직류식 광전광도계) 및 간이수질 팩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화학적 수질 측정. 기온, 수온, 수소 이온농도(pH), 용존 산소량(DC),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NO₃, PO₄ 등 7개 항목
 - ② 물속생물 : 지점별 수서곤충,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등 육안 관찰 및 촬영
 - ③ 주변 곤충 및 동물 : 소리 및 육안 관찰, 쌍안경 관찰, 촬영

- 3차 탐사 : 안성천 주변식물 탐사(Ⅰ)
 - 조사 지점 : 안성 대교 및 수중보
 - 조사 방법 : 지정 지점내 수변식물 육안 관찰 및 촬영, 식물채집, 스크랩
- 4차 탐사 : 안성천 주변식물 탐사(Ⅱ)
 - 조사 지점 : 안성 대교 및 수중보
 - 활동 내용 : 3차 탐사 시 채집한 식물 자료 이용한 활동(엽서 만들기, 편지쓰기 등)
- 5차 탐사 : 안성천 하류 갯벌 탐사
 - 조사 지점 : 평택호, 인근 바다 갯벌
 - 조사 방법 : 민물 생물과 바닷물 생물 비교 관찰 조사, 갯벌 생물 육안 관찰 및 촬영, 탐사표 기록
- 6차 탐사 : 가을 안성천의 수질, 물속생물, 주변곤충 및 동물
 - 조사 지점 : 안성 대교 및 수중보
 - 조사 방법
 - ◆ 수질
 - ① 방법 : 신속 수질분석기(직류식 광전광도계) 및 간이 수질 팩 테스트 기를 이용하여 화학적 수질 측정
 - ② 항목 : 기온, 수온, 수소 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C),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NO₃ , PO₄ 등 7개 항목
 - ◆ 물속생물
 - : 지점별 수서곤충,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등 육안 관찰 및 촬영
 - ◆ 주변 곤충 및 동물 : 소리 및 육안 관찰, 쌍안경 관찰 및 촬영
- 7차 탐사
 - 내용 : 백로 서식 현황 및 실태 파악

- 조사 지점 : 백로서식지(대덕면, 보개면 등)
- 조사 방법 : 육안 관찰, 쌍안경 관찰 및 촬영, 탐사표 기록

○ 기대 효과

- 안성천 환경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한다.
- 환경보호의식을 고취하여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육성한다.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의 생태 교육·문화벨트는 방과 후 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연령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 프로그램으로 세대간 통합 교육도 가능하다. 즉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환경문제를 가정에서 함께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권장할 만한 벨트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태교육 기획가를 양성하여 각급학교의 생태체험 교육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생태체험의 분야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기획가를 양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의 소속 회원들이 가장 적격이겠지만, 다양한 인력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성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강좌를 통해 예비 인력풀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진행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생태교육에 관한 정보자료를

시내 초 중등학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모두 정보의 부재로 인해 각급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선택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안성지역의 환경캠페인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은 기성세대에게는 반성을, 성장하는 세대들에게는 책임의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캠페인은 또 하나의 지역 언론과의 벨트를 만들어 갈 수 있어 안성지역을 생태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상생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나. 청소년(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교육벨트 : 안성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생활 문화 환경조사활동

☞ 벨트의 유형 / 안성시내 중·고·대학교 - 문화공간(청소년 문화의 집/ 시립도서관) - 시민단체 - 안성시내권 - 안성천 중하류 - 안성천 유역 - 문화재

▶ 청소년(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교육벨트
- 안성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생활 문화 환경조사활동 -

○ 목 적

안성지역 중·고등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마을공동체 교육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힘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문화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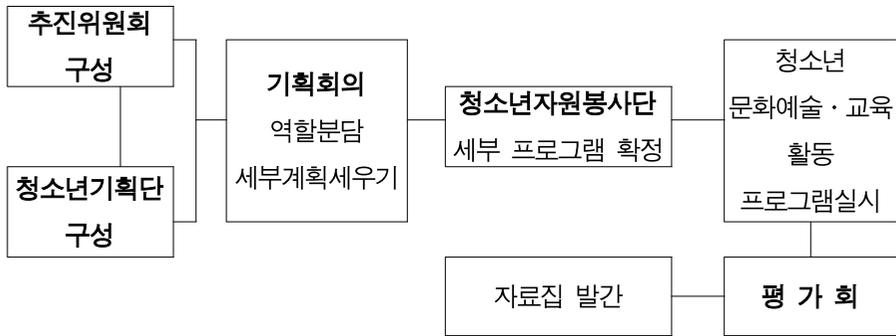
또한 청소년 기획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에서 활동까지의 계획을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기간 : 4월 - 10월
- 대 상 : 청소년 기획단 → 중·고·대학생 10명
: 청소년자원봉사자 → 중·고·대학생 30명
- 지 역 : 안성시 전역(학교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 대상계층 : 안성시민
→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화환경 및 의식변화
→ 지속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망 형성
(지역단체들의 참여 권장)

○ 설정 배경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방과 후) 교육 및 CA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체나 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자원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문화·환경탐사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그 결과를 기사화하여 지역 방송매체 등에 제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길러 주고, 지역사회의 환경 문화 형성에 이바지 했다는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성을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 '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가는 일에 청소년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진행과정



① 추진위원회 및 청소년 기획단 구성 → [기획회의]

- + 추진위원회 :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 - 청소년 기획단 교육
- + 주제설정을 위한 워크숍

② 청소년 기획단 구성 - 세부 프로그램 계획 세우기 → [기초조사]

- + 기획단 : 대학생 및 안성지역 중·고등학생
- + 기초조사활동 : 학교주변유해환경, 마을문화재조사, 안성천 환경탐사 등에 관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수집.
: 카페를 개설하여 수집된 자료를 올린다.
: 기사 작성 및 안내·홍보지 작성 → 배포
- + 청소년 환경탐사단 모집

③ 청소년 환경탐사단 교육

- + 환경탐사활동이란?
- + 지역사회조사 활동의 특성
- + 지역사회조사 활동의 필요성
- + 지역조사활동의 마음가짐과 자세
- + 지역사회조사 문화·환경탐사활동의 효과

④ 청소년 환경탐사단 활동

- + 지역을 4곳으로 나누고 4개의 모둠이 활동한다.
- + 모둠별로 몰려다니지 않고, 개인별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자료 수집은 모둠원이 함께 한다.
- + 조사된 자료는 즉시 수집해서 기사화된 자료와 문화·환경지도로 만들어 보관한다.
- + 디지털 카메라로 기록을 남겨두고,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활동 사항을 게재한다.

⑤ 청소년 환경탐사 활동의 평가 → [캠페인]

⑥ 자료 제작 →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 활동자료 제작 - 자료집 제작, 영상물, 슬라이드 자료 제작
- + 활동자료 배포 - 안성시내 각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 배포

⑦ 평가

- + 평가
- + 후속활동 - 동아리활동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환경탐사단 세부 활동내용

① 학교주변 유해환경 조사

- +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찾아서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누어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조사한다.

② 외래어 간판조사

- + 모듬이 많은 지역에서 외래어 간판의 실태를 조사한다.
- + 단순히 간판의 개수에 치중하지 말고 업소 주인의 외래어 간판사용 이유를 파악한다.

③ 안성천 탐사

+ 안성천의 COD, NO₃, PO₄, DO, 수생생물 등을 측정한다.

④ 생활환경조사

+ 우리 마을에 있는 문화 공간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을 되돌아본다.

○ 추진계획

일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4월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청소년기획단 구성 ○청소년기획단 활동 ○참가자 모집	○실무추진단 기획회의 ○청소년기획단 모집과 교육 ○기초조사교육 및 활동 ○홍보 및 리플렛 배포 ○참가자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5월	○환경탐사단 교육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 청소년 문화의집 그루터기(예정) ○인원 : 40명(기획단 10명포함) ○교육내용 -환경탐사활동이란? -지역사회조사 활동의 특성, 필요성, 마음 가짐과 자세 -지역사회조사 환경탐사활동의 효과
6월	○환경탐사단 활동 -학교주변유해환경조사 -외래어 간판조사 -생활환경조사 -안성천탐사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 청소년 문화의집 그루터기(예정) ○인원 : 40명(기획단 10명포함)
7월	○환경탐사축제	○일시 : 17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지역내 고등학교(예정) ○인원 : 40명(기획단 10명포함)
8월	○환경탐사단활동 - 캠페인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안성시내(예정) ○인원 : 40명(기획단 10명포함)

9월	○활동 - 자료정리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 모듬별로 ○인원 : 40명(기획단 10명 포함)
10월	○활동자료집 제작 ○평가	○자료집 제작(영상물, 슬라이드, 자료집 등) ○활동자료집 배포

○ 기대효과

- ① 청소년 지역사회조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문화·환경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지역사회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② 청소년 지역사회조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길러 주고 지역의 환경문화 형성에 이바지 했다는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청소년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이 활동을 통하여 안성 지역을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 ‘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가는 일에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
- ④ 안성지역 중·고등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원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 ⑤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에서 활동까지의 계획을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⑥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얻지 못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또래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생각하고, 생각을 나누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다. 마을 작은 산 생태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문화예술·교육벨트

- 칠장산¹⁴⁾을 중심으로

☞ 벨트의 유형

- 시립도서관에서의 기초자료 조사 → 지도자(주부)들의 숲생태교육 강좌 → 어린이 환경놀이(칠장산) → 숲생태캠프 → 동아리활동
- 시립도서관에서의 기초자료조사 → 지도자(주부)들의 숲생태교육 강좌 → 청소년 숲생태교육(칠장산) → 숲생태캠프 → 동아리활동

▶ 마을 작은 산 생태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문화예술·교육벨트
- 칠장산을 중심으로 -

○ 목 적

청소년들의 활동은 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내 젊은 주부들과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하는 '우리 마을 작은 산 생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주변 환경의 식물,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과 풍부한 생태감수성을 훈련한다.

- ① 마을의 작은 산(칠장산)의 생태적 다양성을 활용하여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활동을 모델화 한다.

14) 경기도 안성의 죽산면과 금광면, 삼죽면이 에워싸고 있는 해발 492m의 칠장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으로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산기슭에는 고풍스런 칠장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민중의 정신적 지주인 임궽정을 탄생시킨 절로도 알려져 있다. 이런 사연을 품은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 5년(636년)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절 입구에는 칠당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9호)이 세워져 있으며 경내에는 오랜 풍상을 겪은 대웅전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칠장사 사천왕문에 진흙으로 빚어 만든 사천왕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호)도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힌다. 절 주변에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어 경치를 즐기며 가벼운 산행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산이다.

- ② 생태환경체험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인다.
- ③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생태 모니터링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작은 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④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한다.

○ 추진기간 : 5월 - 12월

○ 장 소 : 칠장산 /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안성지역 내 교육시설

○ 대 상 : 안성지역에 사는 주부 20명
: 안성지역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 40명

○ 참가자격

- 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새로운 자원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
- ② 여름방학 중 12회, 5월부터 11월까지 12회 총 24회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1회 1일 활동)
- ③ 환경활동에 관심이 높은 사람

○ 세부 프로그램

① 기초조사 및 식생조사

- 추진기간 : 5월 1일 ~ 12월 31일

- 장 소 : 시립도서관 / 칠장산

- 내 용 :

- 칠장산의 생태 기초조사작업 (5월)
- 탐방로별 생태적인 특성을 지도로 작성
- 칠장산에 식생하는 봄의 초본, 목본식물 조사활동(5-6월)
- 칠장산에 식생하는 여름의 초본, 목본식물 조사활동(7-8월)

- 칠장산에 식생하는 가을의 초본, 목본식물 조사활동(9-10월)
- 칠장산에 식생하는 겨울의 초본, 목본식물 조사활동(11-12월)

② 환경교육 - 숲생태 교육 강좌

- 추진기간 : 5월 ~ 6월 (주 2회 10강)
- 장 소 : 칠장산,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그루터기
- 대 상 :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부 20명
- 내 용 :
 - 교육진행
 - 10:30-11:00 마음을 여는 시간 / 환경노래부르기
 - 11:00-12:30 강의 및 발제 1
 - 12:30-13:00 점심밥
 - 13:00-14:30 강의 및 발제 2
 - 14:30-15:00 질의 및 토론
 - 진행일정

강	과 목	내 용	시간	장소
1	개강식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기초조사발표	3	강의실
2	WORKSHOP	관계훈련	4	강의실
3	숲생태학	숲의 구조와 생태계	4	강의실
4	WORKSHOP	모둠별 workshop	4	현 장
5	초본(草本)	초본식물의 이해	4	현 장
6	목본(木本)	목본식물의 이해	4	강의실
7	계곡생태	계곡생물의 생태	4	현 장
8	숲체험 활동	숲체험 놀이	4	현 장
9	교육과정 만들기	숲체험 놀이 교육과정개발	4	강의실
10	수료식	발표회와 수료식	2	강의실

③ 환경교육 - 자연 친화적인 놀이

- 추진기간 : 7월 - 10월
- 장 소 : 칠장산
- 대 상 : 안성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0여명
- 내 용 :

<p>숲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p>	<p>7월</p>	<p>【소리지도만들기】 새의 지저귀음, 바람소리, 물소리 등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들어 보고 비교해 보는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해본다. 【눈가리고 산책하기】 시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소 많이 쓰지 않는 청각과 촉각, 후각 등을 이용하여 느껴보는 활동을 해 본다.</p>
<p>계곡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p>	<p>8월</p>	<p>【물고기 찾아보기】 계곡의 빠른 물살, 느린 물살 속의 물고기들을 찾아보고, 그 특징과 물과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기】 물의 흐름, 돌과 이끼의 느낌 등 맨발로 느껴볼 수 있는 활동이다.</p>
<p>흙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p>	<p>9월</p>	<p>【조형물만들기】 흙과 물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본다.</p>
<p>동물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p>	<p>10월</p>	<p>숲 속의 새, 다람쥐 등 작은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내어 보기도 하고 그들의 생김을 그려보기도 하여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p>

④ 환경교육 - 청소년들을 위한 숲 생태교육 강좌

- 추진기간 : 7월
- 장 소 : 칠장산, 아힘나문화예술·교육연구소
- 대 상 : 안성시내 중·고등학생 30명
- 내 용
 - 교육진행
 - 10:30-11:00 마음을 여는 시간 / 환경노래 부르기
 - 11:00-12:30 강의 및 발제 1
 - 12:30-13:00 점심밥
 - 13:00-14:30 강의 및 발제 2
 - 14:30-15:00 질의 및 토론
 - 진행일정

강	교육일	과 목	내 용	시간	장소
1	7. 4.일	초본(草本)	초본식물의 이해	4	현 장
2	7.11.일	목본(木本)	목본식물의 이해	4	강의실
3	7.18.일	계곡생태	계곡생물의 생태	4	현 장
4	7.25.일	숲체험 활동	숲체험 놀이	4	현 장

- 담당인력 : 전문강사(지역 대학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도우미(숲생태교육 강좌 수료생 8명)

⑤ 숲생태 캠프

- 추진기간 : 7월16일 - 7월18일 2박3일
- 장 소 : 칠장산 내 칠장사
- 대 상 : 숲생태교육 강좌를 수료한 주부 20명
환경교육과정을 수료한 초등학생 20명
환경교육과정을 수료한 청소년 20명

- 일 정

시 간	첫째날(16일)	둘째날(17일)	셋째날(18일)
06:00-07:00	도 착	일어나기	
07:00-08:00		자연과 호흡하기	
08:00-09:00		아침밥	
09:00-10:00		숲속 여행	자연놀이
10:00-11:00			교재이용활동
11:00-12:00	방 배정	자연놀이	
12:00-13:30	점 심 밥		
13:30-14:30	모듬끼리	계곡탐사	정리
14:30-16:00	숲 속 보물찾기	간식 및 휴식	집으로
16:00-17:30	자연관찰	만들기	
		자 연 관 찰	
17:30-19:00	저 녁 밥		
19:00-20:30	자 연 놀 이		
20:30-22:00	숲 속의 밤	숲 속 시장	
22:00-22:30	정 리		
22:30-	잠자리에		

⑥ 숲생태교육 전문가와 숲생태교육 강좌 1기 수료생들과 함께 하는 안성
중·고등학교 CA활동 및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

○ 사업내용에 따른 추진일정			
	세부사업	주요추진내용	추진시기
생태모니터링 활동	생태지도 작성	· 기초조사 · 탐방로 별 생태적인 특성을 지도로 작성 · 생태지도는 보고서에 포함시킴 · 안성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	5월-11월
	계절별 개화 결실 시기	· 사계절의 개화결실시기 조사, 영상촬영 · 자연도감을 통해 야생화 이름알기	5월-11월
	식생조사	· 월 2회 정기적으로 정해진 구역 내 식생조사활동	5월-11월
	곤충의 한살이	· 곤충의 한 살이 관찰 (잠자리, 장수풍뎡이 외)	5월-11월
	생태캠프	· 기간 : 1박 2일 · 내용 : 칠장산의 생태교육 및 직접체험	8월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내용 : 칠장산 생태코스(지도) (모니터링 보고 내용 : 모니터링의 방법, 모니터링 양식, 사진자료, 칠장산에서 할 수 있는 놀이 프 그램, 다양한 종류 별 관찰방법 등)	11-12월
자연 친 화 적 인 놀 이	숲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 소리지도 만들기-새의 지저귀, 바람소리, 물소리 등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들어보고, 비교해 보는 등 자연 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해 본다. · 눈 가리고 산책하기-시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들에게 평소 많이 쓰지 않는 청각과 촉각, 후각 등 을 이용하여 느껴 보는 활동을 해 본다.	5월
	흙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 맨발로 걷기 · 조각 만들기-흙과 물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각으로 만들어본다.	9월
	계곡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 물고기 찾아보기-계곡의 빠른 물살, 느린 물살 속의 물고기들을 찾아보고, 그 특징과 물과의 관계를 생 각해본다. ·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기-물의 흐름, 돌과 이끼의 느 낌 등 맨발로 느껴볼 수 있는 활동이다.	6월
	동물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 숲 속의 새, 다람쥐 등 작은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 내어 보기도 하고, 그들의 생김을 그려보기도 하여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0월

※ 자연친화적인 놀이는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이루어진다.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환경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소년에 맞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위에 제시된 자연친화적인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며, 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월별 추진계획

일시	내용	세부 내용
5월	기초조사 및 모집단계	· 홍보안내문 발송(안성지역, 중·고등학교) · 프로그램 기초조사 및 준비
	모니터링 준비작업 모니터링활동1	· 1차 모임-생태모니터링활동 오리엔테이션 · 2차 모임-교육 및 첫 산행 <내용 : 칠장산, 생태, 모니터링, 환경교육, 청소년집단 지도, 프로그램기획 외>
6월	모니터링활동 (1)	· 본격적인 생태모니터링 활동 · 3차-4차 모임 <교육과 산행>, <숲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모니터링활동 (2)	· 5차-6차 모임 <교육과 산행>, <계곡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7월	모니터링활동 (3)	· 7차-12차 모임 <교육과 산행> · 생태캠프 : 칠장산의 생태체험(2박3일)
8월	모니터링활동 (4)	· 13차-16차 모임 <교육과 산행>
9월	모니터링활동 (5)	· 17차-18차 모임 <교육과 산행>, <휴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10월	모니터링활동 (6)	· 19차-20차 모임 <교육 및 산행>, <동물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
11월 ↓ 12월	자료정리 및 자료집 발간	· 21차-24차 모임 · 자료집 편집회의/구성/역할배정 · 각종 수집된 자료정리, 사진자료 정리 · 촬영·편집 작업 외 자료집 마무리작업/편집/인쇄 · 자료집 안성시내 초·중·고등학교 및 관련기관에 발송

○ 기대 효과

- 칠장산 생태모니터링 활동(5월-10월, 24회)을 사진과 영상, 책자 등으로 자료화하여 안성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시민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또한 각 사이버공간을 통해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청소년들의 관심과 의식변화를 모색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환경교육과 함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에 그들에게 맞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
-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안성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복지 환경을 이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칠장산이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들과 어린이·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 내 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모델화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주부들은 이 지역의 환경지도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 생태지도 만들기¹⁵⁾

자연생태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자연탐사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연생태 지도를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연 환경의 중요성과 미래 세대 환경권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영역을 우리 마을, 숲, 하천으로 구분하고, 녹지, 식물, 동물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지도에 분포도를 표시하는 체험 활동이다.

<표IV-2> 자연생태지도 제작활동 구성내용

영역	차시	활동명	활동 내용
자연생태 들여다 보기	1	청소년이 상상하는 자연생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의 이해 (프리젠테이션) - 우리나라 생태계의 이해 (프리젠테이션) - 숲 속의 사계 생태 상상화 그리기 (모둠별) - 아름다운 하천 생태 상상화 그리기 (모둠별) - 우리 마을의 미래 상상화 그리기 (모둠별) - 영상물제작 기획 (모둠별) - 모듬활동 발표하기
	2	어디서 무엇을 그릴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생태지도(Green Map) 소개 - 어디를 조사할까 : 조사지역 선정 - 무엇을 그릴까 : 지도내용 선정하기 - 재미난 자연생태 탐사방법 알아보기
우리 마을 생태지도 만들기	3	녹지관련 생태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분포도 만들기 - 습지 분포도 만들기
	4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분포도 만들기

15) 임지현·민성환, 「2001 특성화수련거리 7 ‘자연생태지도 제작활동’」,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생태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티나무 분포도 만들기 - 소나무 분포도 만들기
	5	식물 생태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마을 야생화 분포도 만들기 - 서양민들레와 우리 민들레 분포도 만들기 - 돼지풀과 단풍잎 분포도 만들기
	6	동물 생태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리 분포도 만들기 - 나비 분포도 만들기 - 백로 분포도 만들기
숲 생태지도 만들기	7	숲 속 식물 생태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를 활용한 나무 분포도 만들기 - 야생화 군락 분포도 만들기 - 버섯 분포도 만들기
	8	숲 속 야생조류 생태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조류 분포도 만들기 - 야생조류 동지, 울음소리 조사
	9	숲속 야생동물 생태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흔적(포유류) 흔적 분포도 만들기 - 야생동물 분비물, 발자국조사 - 지도와 니침반을 통한 숲 속 탐험 활동
하천 생태지도 만들기	10	이화학적 하천탐사 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질오염(ppm) 이해하기 - 수질 오염원 탐사 - 수질 측정 항목 선정하기 - 측정하기 - 오염분포도 제작 - 수질 오염사건표 제작
	11	생태학적 하천탐사 지도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 분포도 제작 - 수서곤충 분포도 제작 - 하천자연도 분포도 제작 - 하천식물 분포도 제작
종합 프로그램	12	청소년 생태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종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통합작업 - 우리 마을 작은 산 현존 식생도 작성하기, 물줄기탐사, 청소년 환경 법률 놀이, 우리 마을 개발 계획수립 포럼, 안성청소년환경회의 등



2)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 취득에 유리한 특정 학교 및 학과 선택을 우선시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과 보람있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고 신장시킬 만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그러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와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기존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수법으로 발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가능한 지역사회의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의 문화예술·교육자원은 청소년들의 진로모색을 위한 훌륭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안성에 소재한 각기 특성 있는 5개 대학과 연계하여 문화·정보 콘텐츠 산업, 안성맞춤의 고품질, 다품종, 소량생산의 Hand- Made 수공예 산업,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바우덕이 남사당 연희패와 더불어 한국 민중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산업, 특히 젊은이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진로와 연결시켜

갈 수 있도록 동아방송대학과 연계한 Mass-Media 방송·영화 산업에 대한 체험은 안성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1) 벨트형성을 위한 자원

벨트 소재	교육내용 및 시설	POST
방송·영화	영상제작, 음향제작, 편집, 구성 및 연출, 인터넷방송, 웹 VJ	동아방송대
인터넷미디어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웹프로그래밍, 웹PD	안성여자 기능대
민중문화	풍물, 줄타기, 소리가락, 판굿 축제기획	남사당 전수관
안성맞춤 Hand-Made	패션, 장신구 디자인 개발, 캐릭터디자인개발	안성여자기능대 창업동아리 F.J.D

(2) 벨트화를 위한 주제

- 대학홍보 및 지역청소년 유치를 위한 진학 및 진로교육 실시
- 안성의 우수한 문화를 지역청소년들에게 전수하여 세계화 전망
- 창작 공간 개방 및 시민과 함께하는 Open Studio
- 공예품제작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및 축제화

(3) 직업체험을 위한 벨트 프로그램의 방안

- 프로그램형 대안학교의 찾아가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교육
 - ☞ 벨트의 유형 / 안성지역 대학 - 진로모색이 필요한 청소년 - 대안교육기관 - 안성시 소재 교육·문화 공간
- 이러한 대학간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

년들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위탁교육과정으로 또는 교육과정이 자유로운 대안학교의 실업교육으로 한 주에 1, 2회 정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일종의 움직이는 대안학교의 모델로 청소년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벨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움직이는 학교의 교육시스템은 스승과 작업공간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다니며 배우게 되는 일종의 徒弟형태의 수업이다. 만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려는 대학이 대학홍보차원에서 특별히 더 노력한다면 벨트화가 가능한 대학학과가 청강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학생들처럼 과제물도 제출하고 때로는 발표의 기회도 얻고, 더 나아가 일반 대학생들의 그룹워크숍에도 참여하여 보다 깊이 있는 창작활동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설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안성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인 안성 남사당전수관에서 수준 높은 기예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성지역에 움직이는(찾아가는) 프로그램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대학의 협조와 교수 및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선뜻 쉽게 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대학의 현황을 감안하여 홍보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둘째, 움직이는 학교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의 공동생활과 공동학습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성지역에는 아직 청소년을 위한 공간, 예컨대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특별히 설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폐교나 특별한 때

만 사용하는 문화시설 등을 청소년들의 대안교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지역 미술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벨트

여기서 제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벨트는 안성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갤러리를 연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벨트형성을 위한 자원

주제	내 용	POST
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화가들의 작품 감상 - 페미니스트 관련 서적, 음반, 정보물 등 전시(기획 출판물, 생활용품 개발 중) - 전통고가구, 보자기, 도자기 전시 - 다도 시연, 뮤직 테라피 	아트스페이스 '움'
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건희 오픈 스튜디오 작품전시회 - 도자기, 판화, 회화소품, 염색 생활용품 전시 - 염색, 들꽃 한송이 렌즈에 담아보기 - 내가 만든 도안 찍어보기 - 흙으로 빚어보기 	갤러리 4321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하고 놀자' 프로그램에 따른 6개 기획 초대전 (2004.3.20~12.22) - 전시 관람과 작가와의 만남 - 미술특별강좌(강좌와 대담, 일반 및 청소년, 가족) - 미술과 자연 현장체험(일반 및 청소년, 가족) 	소나무S갤러리

(2) 벨트화를 위한 주제

- 매일 같이 앞을 향해 질주하기만 하던 삶의 속도를 낮추고 잠시 여성 화가들의 작품이 잉태되는 여성 예술인들의 공간 움(WOMB)에 들러 일상 속에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고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 즐거운 일탈을 꿈꾼다.
- 룰루랄라 차창을 열고 안성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꽃과 나무를 그리는 화가 김건희를 만난다. 그녀가 가르치는 염색에 손도 적셔보고 붓질도 한번 해보고, 그 집 마당에 피어난 허브와 야생화 한 뿌리씩 안고 우리네 삶의 비움과 느낌과 섬의 의미를 음미한다.
-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하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지의 꿈틀거리는 생명을 캔버스에 옮기는 화가 전원길을 만나 그의 해박한 강의 덕분에 현대 미술과 놀고, 뽕뽕하게 기를 받아 생기발랄 집으로 돌아온다.

(3) 갤러리 여행을 통한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의 사례

☞ 벨트의 유형 / 아트스페이스 움 - 갤러리 4321 - 소나무S갤러리

고등학교, 대학교 미술 동아리 - 학교 미술교사 - 각
급학교 운영위원회

▶ 2004. 1. 작은 미술관 네트워크 '숨/섬/생'

- 작업실 아트 투어링, 2004 봄 '봄처녀 프로젝트' -

- 제1코스 /숨./.....아트 스페이스 움
- 제2코스 /섬./.....갤러리 4321
- 제3코스 /생./.....소나무 스튜디오 갤러리

○이색 나들이

- <숨,침,생>은 작은 미술관 네트워크의 이름입니다. <2004 봄, 봄 처녀 프로젝트>는 이 네트워크가 기획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작업실 아트 투어링’입니다.
- 이제까지 갤러리의 문은 열려있어도 작업실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안성과 분당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삼인삼색의 서로 다른 색깔과 컨셉을 가진 작업·전시 공간을 방문하는 이 프로그램은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고 생명 리듬을 생기발랄하게 해줄 것입니다.
- 열린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작가를 직접 만나고 작품생산 현장을 보면 둔감한 감성이 생기발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성에 꼭꼭 숨어사는 작가를 만나고 나면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신선한 예술 테라피와 함께 주변자연환경으로부터 문명의 독을 해독시켜주는 자연 테라피를 받은 것 같아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 작업실 탐방 나들이에는 볼거리는 물론 살거리도 있습니다. 예술생산자와 예술 수요자가 직접 만나 작품을 사고 파니, 작가는 창작을 계속 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서로 복돋우고 살리는 상생의 관계를 맺습니다.
- 여행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는 길에 안성의 유명한 굴밥집 거목정에 들러 희희낙락 구수한 누룽지도 먹고 굴밥도 먹으며 원기를 회복합니다.

○ 숨(休)코스

바쁜 일상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고 잠시 여성 화가들의 작품이 잉태되는 여성 예술인들의 공간 움(WOMB)에 들러 일상 속에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고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 즐거운 일탈을 꿈꾼다.

○ 침(觀)코스

룰루랄라 차창을 열고 안성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꽃과 나무를 그리는 화가 김건희를 만난다. 그녀가 가르치는 염색에 손도 적셔보고 붓질도 한번 해보

고, 그 집 마당에 피어난 허브와 야생화 한 뿌리씩 안고 우리네 삶의 비움과 느낌과 씬의 의미를 음미한다.

○ 생(生)코스

‘싹을 티워서 자라게 하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지’의 꿈틀거리는 생명을 캔버스에 옮기는 화가 전원길을 만나 그의 해박한 강의 덕분에 현대 미술과 놀고, 뽕뽕하게 기를 받아 생기발랄 집으로 돌아온다.

○ 새 찻

움시롱 감시롱 양성에서 이름난 한옥음식점 거목정에서 생전 처음 먹는 굴밥과 구수한 누룽지와 심오한 맛의 곶삭은 젓갈 반찬을 희희낙락 먹는다.

○ 숨/Art space 움(Womb) 여성예술공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포스파크 203동 402호
 031-704-1775 010-3001-1775
 ahnilsoon2000@yahoo.co.kr

아트 스페이스 움은 단어 그대로 움(WOMB) 자궁을 뜻하며 생명의 싹, 움을 의미한다. 이 공간은 여성의 창조력과 생명력이 움트는 갤러리이자 여성들의 씬, 숨,생을 위한 예술 치유, 퍼포먼스 등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페미니스트 보균자들의 숨은 아지트이기도 하다. 현재 움의 대표는 안일순으로 86년부터 여성의 이슈를 주제로 한 연극, 소설 등을 써왔다. 1999년부터 그림을 시작했고 앞으로 문학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두 장르를 같이 어우르는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움의 공간에는 여성미술그룹 <안그안> 8인의 회화 작품과 전통 고가구, 여성을 주제로 한 아트 기획 상품 등이 전시된다. 아트 움은 아름다운 생태마을 용인 원삼면 학일리로 이전해 자연속의 너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 / 여성미술인 8인의 회화 작품(월별 테마 기획 미정)

페미니스트 관련 서적, 음반, 정보물 등 전시

(기획 출판물, 생활용품 개발 중)

전통고가구, 보자기, 도자기 등

프로그램/ 다도시연, 뮤직 테라피, 전문 초청 강좌 등

○ 씬/갤러리 4321

456-830 안성시 대덕면 상한리 432-1

031-676-5396 011-1707-5396

kimgh1945@hanmail.net

갤러리 4321은 서양화가 김건희(金建熙)의 작업실이다. 그는 80-90년대 민족미술 진영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얼마간을 생활품 중심의 공방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캔버스에 작업하는, 순수 회화 쪽의 길만을 고집하고, 1998년 작업실을 안성으로 옮긴 후 지금은 자연을 주제로 한 작업에 몰두해 있다.

가까이 지내는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수의 소장품과 판화, 도자기 등도 감상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하면 작품 대여도 할 예정이다. 일년에 한번 Open Studio의 개념 아래 장르에 상관하지 않고 전시회를 하는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4321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의 지번의 숫자를 따온 것이다.



- 전 시 / 김건희 오픈 스튜디오

도자기, 판화, 회화소품, 염색 생활용품

- 프로그램 / 체험하기 /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작업에 동참하기

Ready-made에 익숙해진 우리네 생활에서 벗어나 서툴더라도 스스로 해보는 기쁨과 성취감을 맛본다.(염색, 들꽃 한 송이 렌즈에 담아보기, 내가 만든 도안 찍어보기, 흙으로 빚어보기)

- 작품 빌려가기/회원예 한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대여해준다.

○ 생/소나무스튜디오갤러리

456-843 안성시 미양면 계곡리 232-8

031-673-0904, 011-9934-1903(전원길) 011-9072-0903(최예문)

www.sonahmoo.com, sonahmoo@hanmail.net

안성 오양골의 한적하고 따사로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소나무S갤러리는 (2002.4~) 90년대 서울 동승동 대학로에서 젊은 작가 중심의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미술 발표의 장으로 한국미술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소나무갤러리를 당시 큐레이터였던 전원길이 설립 취지를 살려 재개관 했다.

작업실과 전시, 교육의 복합기능을 갖추고 일반인과 예술인이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추구한다. 자연 속에서의 체험을 독특한 표현 언어로 캔버스 위에 펼쳐내는 화가 전원길은 새로운 방식의 **창의적인 미술교육**과 국내외 작가들과의 진지한 만남을 통한 **작품세계 발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시 / '현대미술하고 놀자' 프로그램에 따른 6개 기획초대전
(2004.3.20~12.22) 아트소품

프로그램 / 전시관람과 작가와의 만남,
 미술특별강좌(강좌와 대담, 일반 및 청소년, 가족)
 미술과 자연 현장체험(일반 및 청소년, 가족)



- 사진설명

1. 작가와의 만남(인일여고총동창회, 소나무S갤러리 2004.5.4)
2. 봄나물 캐기(선실교회, 소나무S갤러리 2004.4.5)
3. 염색 체험(‘안그안’, 갤러리4321 2004.6.18)

○ 1일 체험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일 정	10:00~11:30 습.코스 (아트스페이스 음) ↳ 이동(30분) 12:00~12:30 점심식사 ↳ 이동(30분) 13:00~14:30 습.코스 (갤러리4321) ↳ 이동(30분) 15:00~16:30 생.코스 (소나무갤러리)	참가구성원이 원할 경우 일 부 장소나 프로그램을 선택 해 참가할 수 있다.
인 원	12명 내외 (승용차 4대 내외)	
참가비	1인 30,000원 (가이드비, 강좌비 및 프로그 램 진행료, 점심식사비 별도)	승용차 운전자는 회비 면제 (경유 갤러리 수 혹은 활동 내용에 따라 참가비 조절 가능)

4) 청소년의 힘으로 축제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벨트

청소년들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성지역의 인적자원들을 벨트화하여야 한다. 청소년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벨트는 안성의 대학과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를 연계함으로써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1) 벨트 형성을 위한 자원

안성에는 5개 대학이 있다. 대학마다 특성이 있어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학풍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는 그 활동역량에 따라 지역문화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동아방송대학에는 24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두원공대에는 10여개의 동아리, 그리고 안성여자기능대학에는 12개의 동아리가 있고, 중앙대학교에는 54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경대에는 20여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활동중에 있다.

대학교 홈페이지 동아리의 소개가 비교적 자세히 되어있는 동아방송대학의 동아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6)

<표IV-3> 동아방송대학의 동아리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락사모	락사모는 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의 약자임. 동아방송대학 락동아리이며, 지난 97년 '시골벽'이란 음악 씨클 안의 락음악 동아리로 시작해 98년 '락사모'란 이름으로 분리됨. 교내행사는 물론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유통기한	순수노래 동아리인 '유통기한'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

16) http://www.dab-c.ac.kr/campus/content01_3.html.

	<p>의 작은 씬터라고 할 수 있음. 교내행사공연, 자체 정기 공연 등을 통해 전교생에게 문화적인 여유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유통기한'의 활동목적임. 97년 방송연예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유통기한'은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해 99년에는 능골 가요제 대상팀과 최우수상 팀을 배출함.</p>
M.U.G	<p>Midi User's Group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미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미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공부하고 음악적인 교류도 나누면서 같이 공연하는 동아리임.</p>
MIND	<p>'정신'이란 뜻의 흑인음악을 연구 및 발표하는 동아리임. 주로 rap, djing, break, graffitty를 다루고 있음. 99년에는 대외적인 공연을 40회가 넘게 함. 방학 중에는 학교 스튜디오에서 앨범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함.</p>
D-kies	<p>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임. 춤을 추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동아리임. 교내 공연을 중심으로 외부공연도 활발히 함. 춤을 통해 교우관계를 넓혀가는 제 2의 학교생활을 추구함.</p>
美沈(미침)	<p>'미침'이란 아름다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뜻임. 97년 연극과 뮤지컬에 관심 있는 학우들의 모임임. 순수 아마추어 학생 연극 동아리임. 동아방송대학을 대표하는 유일한 연극동아리임.</p>
기독교 동아리 (C.C.C)	<p>기독교를 통한 기독교 문화(음악, 무용, 연극, 기타 예술 활동)와 기독교 학생들의 학원 내 영적성장과 회복을 목적으로 1997년에 만듦. 1998년에 정식승인. 순수 학원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함.C.C.C(Campus Crusade for Christ)의 복음사역의 말씀연구와 D.T(Disiple Training)을 통해 성숙한 대학생이면서 기독교신앙인으로 성장 도록 체계를 다져옴.</p>
디지털	<p>방송특성화 대학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미래방송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벤처 동아리임. 창업동아리인 '하나우리'의 축적된 조직역량과 제작실무역량을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교내 전학과 구성원 체계로 구축함. 사업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고품의 영상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음.</p>
순수비행	<p>단순 영화 동아리가 아닌 '제작'동아리로 ID나 단편영화 제작에 힘쓰고 있음. 또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영화나 일본애니메이션 등을 140여 편을 소장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 정기 상영회를 열어 예술 영화의 보급에 힘씀. 회원들 간의 모임을 통해 영화적 지식이나 상식토론, 영화의 역사 이해 등의 공부를 함. 동아리 방에 비치된 TV와 3대의 비디오를 통해 언제라도 원하는 비디오의 시청이 가능함</p>

모그리	좋은 작품을 추천해 함께 감상하기도 하고 타 대학 동아리와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함. 만화, 애니메이션의 세기라 불릴 21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시대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작품을 분석하는 동아리임.
lirs	사진동아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임. 개별적으로도 작품을 통해 미를 추구함. 전시회나 인화 이벤트 활동.
대향해	컴퓨터 및 통신동아리로 인터넷을 통해 활동을 함. 1학기는 신입생 교육을 위주로 활동하고 2학기는 웹진 창단을 하여 컴퓨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함. 학교 홍보 및 교육이 주 활동임.
메뚜기	농구를 통해 젊음을 지키고 우정을 키워나가는 동아리임. 평상시 학교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며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함.
Flat Five	서울대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재즈 보급에 힘씀.
중독자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임. '중독자'라는 뜻은 모두 함께 '웃음에 중독되어 보자'라는 뜻으로 웃음을 되찾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창단 됨.
동검회	동아 검사회는 인간생활의 근본인 예절을 바탕으로 심신단련을 통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지향함. 모든 것에 이치가 있듯이 검의(같이 가는 길)이치를 통해 타 운동과는 다른 깨달음과 재미를 얻을 수 있음.
DREAMS	야구를 통해 학교 홍보 및 친선을 도모함. 2000년 2학기부터 경인지역 대학야구대회에 참가함.
B-Ada	Broadcasting and Advertising의 약자로서 1999년 특성화 추진본부였던 '광고 방송 사업부'의 새 이름임. 본대학 CF, 흡소핑, 사례발표회, 탈북자 지원을 위한 동아방송대학 재학생 연예인 공연, 전문대 입시생의 의식조사 및 본 대학에 속해있는 인터넷 영화관 '인터넷무비'의 CF를 주관함. 중소기업 및 케이블 TV에 저렴한 광고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과 국가 영상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학생들의 현장경험 기회와 취업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됨.
틈새	2000년 4월 등록된 광고 동아리. 광고와 이벤트에 관한 연구 및 실무능력 향상이 목적임. 교내축제 촬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함.
HAM	학교 행사시 언제나 대외적인 홍보를 함. 무선통신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받아 무선설비를 갖추어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파를 통한 개인적인 실험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취미를 아마추어 무선이라 함.
FC.RUSH	신규 동아리로 축구 동아리임.

Game Project ZERO	신규 동아리로 게임제작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임.
시시비비	신규 동아리로 시문학을 연구하는 동아리임.
인디플러스	신규 동아리로 방송영상을 연구하는 동아리임.

이처럼 대학교의 약 120여 개의 동아리와 16개의 중·고등학교의 동아리를 연계하고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키워진 역량들과 청소년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인이 이 일에 합류한다면 안성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은 매우 튼튼한 저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2) 벨트화를 위한 주제

- 청소년 안성맞춤 문화축제를 정례화 한다.
- 대학동아리와 고등학교 동아리가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청소년 축제를 만들어 간다.
- 청소년이 지역사회문화 창달의 주체가 된다.

(3)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의 방안

가. 지역사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 문화예술·교육벨트

- ☞ 벨트의 유형 / 청소년 중·고등학교 동아리 → 학교 동아리 대표
거리문화축제기획단 →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축제
기획단 교육 및 지원 → 동아리 연합 거리문화축제

▶ 지역사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 안성지역 청소년 거리축제

○ 목 적

이 행사는 안성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 주체적인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며, 지역 청소년들이 모두 화합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와 더불어 안성지역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민간단체와의 연결망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 형성에 목적을 둔다.

○ 방 향

- ① 청소년 거리축제는 안성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 진행, 참여로 만들어진다.
- ② 청소년 스스로 열정과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는 문화의 장으로 형성한다.
- ③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북부지역 청소년들의 자립과 주체성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
- ④ 청소년과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지는 가운데 지역사랑을 일깨운다.
- ⑤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청소년문화의 모델링이 되도록 한다.
- ⑥ 학교 CA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며 차후 CA활동의 발전과 활성화가 되도록 한다.

○ 개 요

일시 : 10월중 토요일 오후 2시 - 7시

장소 : 학교밀집 지역 거리

대상 : 주체대상 - 안성지역 청소년

참여대상 - 안성을 포함 경기지역 청소년, 학교교사,
기관 실무자, 대학생... 모든 사람들.

○ 주 체

주최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주관 : 청소년 거리축제 추진위원회

○ 거리축제 프로그램

청소년 거리축제는 지역사회 대학동아리 및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연합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고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학교활동과의 연계를 꾀하기 위해 실시한다. 따라서 거리축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여러 다양한 학교와 동아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연합축제이다.

※ 거리문화축제의 예시

마당	내 용
여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놀이 : 청소년문화를 위한 깃발을 선두로 길놀이 진행 - 고사지내기 : 건강한 우리들의 문화를 위한 소원문 낭독 - 난장놀이 : 길놀이 후 모두 모여서 난장놀이
참여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거리 농구대회-3인 농구대회 - 전래놀이마당 : 새끼꼬기, 제기차기, 긴줄넘기, 떡치기, 비석치기, 윷놀이 등 - 만화전시회-만화를 좋아하는, 평소 만화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의 전시 - 사진전시회-사진동아리 작품전시 - 먹거리 장터-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파는 장터 - 흙 만지기-찰흙을 가지고서 즉석 작품 만들기 - 공동그림그리기 : 미술동아리를 중심으로 문화제 뒷배경 그림 그리기 - 안내부스 : 팸플릿 및 기념 빼지 나눠주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식 :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 안성시내 중심 거리를

문화제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하며 앞으로 건전한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선포식 - 청소년 댄스 및 스쿨밴드 공연 이외 수화, 마임, - 축하공연 (인디밴드)
-----	---

나. 대학동아리와 중·고등학교 CA가 연계하여 안성맞춤 축제 만들기

☞ 벨트의 유형 / 안성지역 대학 동아리 → 청소년 중·고등학교 CA
 활동 지원 → 동아리 연합 축제

▶ 대학 동아리와 함께 하는 과정중심의 ○○학교 CA 축제마당

○ 목적

대학의 동아리와 연계한 학교 CA 1년 활동의 결과물로서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며, 학교 교사들에게 CA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안성지역사회 내에서 대학 동아리와 중·고등학교 CA지원 문화예술·교육벨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 추진방향

- ① 학교 CA축제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 진행, 참여로 만들어지며 지역자원은 최대한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② 지속적·장기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청소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학교 CA활동의 발전 및 활성화 되도록 한다.
- ③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 특기적성교육, CA 등의 교과 외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자극이 되도록 한다.
- ④ 경연대회가 아닌 함께 어울려 그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어울림의 축제의 형태로 추진한다.

○ 개 요

- 일시 : 중간고사가 끝난 10월 또는 11월 중 오후 1시 - 6시
- 장소 : 한경대학 / 동아방송대학 / 중앙대학 중

○ 내 용

- 학교가 억압과 강요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열심히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 3월부터 대학 동아리에서 안성지역 각 중·고등학교 CA활동을 지원하고 1년 활동을 정리하며 학교 CA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다. 학교CA축제는 공연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 목적을 두고, 이 아이들이 일년을 보내고 나서 CA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특기, 적성반과 맞물려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동아리가 되는 것 또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되도록 10월에 교내 발표회나 축제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멋진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아이들의 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표현방법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훈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아무에게도 없다. 열심히 활동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이다. 무엇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고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지역의 학교와 시청, 대학교, 시민단체, 교육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축제는 연예인이나 돈으로 화려함을 엮으려는 어느 축제와는 다르다. 축제 당일 앞마당에서 긴 줄만을 넘더라도 축제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축제,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축제,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축제가 될 것이다.
- 그저 단순히 구경만 하는 참여가 아닌 생산적 의미로서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변화의 힘이 커져 갈 수 있도록 축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 앞으로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들의 열기를 통해 특색있는 축제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이와 동시에 과거의 축제 문화들을 답습하여 전통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도 우리들은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필요함을 알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해마다 발전되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 과거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해주고 거리낌 없이 놀고 즐기던 놀이문화 축제에서 우리는 공동체문화를 느낄 수 있다.
 잊혀져가는 공동체문화!
 우리 삶의 기원이 되는 공동체문화가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축제!
 이제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많은 가능성을 점쳐본다.

※ 대학동아리 연계 축제 프로그램의 예

구 분	내 용
전시마당	○ 대학 동아리 지원 CA 반 1. 영상반 : 셀프카메라 2. 놀이연구반 : 긴 줄넘기, 림보, 제기차기, 산가지 놀이 3. 정보문화연구반 : 인터넷 카페 운영 4. 지역탐사반 : 활동내용 전시 5. 문학반 : 시화전, 벵루장터 6. 전통예술연구반 : 전통놀이 ○X 퀴즈
공연마당	○ 대학 동아리 CA지원학교 발표마당 1. 연극반 : 연극공연 2. 지역탐사반 : 슬라이드 발표회 3. 영상반 : 뮤직비디오 시사회 4. 정보문화연구반 : 홈페이지 시연 5. 문학반 : 문학 토크쇼 6. 놀이연구반 : 콩트, 긴 줄넘기 7. 전통예술연구반 : 난타 8. 공예반 : 도자기, 목공예, 금속공예
축하마당	○ 그 외 청소년 축하공연 1. 공연을 시작하는 길놀이 및 신명나는 판 굿 공연 2. 두 학교 연합 동아리 수화공연 3. 학교 CA 반 응원단 치어댄스, 힙합댄스

	<p>4. 청소년 락밴드 공연</p> <p>5. 영상동아리 자체 제작한 단편영화 상영</p>
참여마당	<p>○ 지역학교 만화 / 종이접기 / 사진 등 전시회</p> <p>1. 사진동아리 연합 사진 전시회</p> <p>2. 만화 그리기 CA반 만화 전시회</p> <p>3. 환경사랑 CA반 무공해 비누 전시회</p> <p>4. 전통염색 제품 전시 및 염색체험</p> <p>5. 도자기, 목공예, 금속공예 작품 전시 및 체험</p>

다. 아시아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벨트

- 안성에서 한국 문화의 뿌리 찾기¹⁷⁾ -

☞ 벨트의 유형 /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 일본대학 청소년 - 제일코리안 3~4세 - 탈북 청소년 단체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 삼죽초등학교 평생친구단

▶ 안성에서 한국 문화의 뿌리 찾기 -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

- 일 정 : 7월 - 8월 중 2박 3일
- 장 소 : 경기도 안성 곳곳
- 대 상 : 일본청소년과 제일교포 3, 4세, 한국청소년 40명

17) 이 프로그램은 2004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가 아이들(청소년)의 권리를 아이들(청소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른들에 의해 빼앗긴 기본적 인권을 스스로 취해나가기 위해 제일한국인 3~4세 청소년과 일본 청소년, 한국의 청소년 40여 명이 '아시아의 친구들과 -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안성지역에서 2004년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하는 문화교류 캠프기획서를 토대로 2박 3일의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 일정표

	첫째 날(토)	둘째 날(일)	셋째 날(월)
6:00-7:00	문화마을 입국 가자! 안성으로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일어나기	
7:00-8:00		아침산책	아침산책
8:00-9:00		아침 밥	아침 밥
9:00-9:30		여행일정나누기	여행일정나누기
9:30-10:30		한국의 빛깔을 찾아서	놀이감 공방을 찾아서
10:30-11:30			
11:30-12:30			
12:30-1:30			
1:30-2:30	안성맞춤박물관	한국의 그릇을 찾아서	집으로 !
2:30-3:30	↓ 청룡사		
3:30-4:30	↓ 바우덕이묘	문화마을 도예공방에서 빚어보는 그릇 안성천문대	
4:30-6:00	↓ 시장보기(저녁밥)		
6:00-7:00	남사당패를 찾아서	천체여행	
7:00-8:00	남사당놀이	(저녁밥)	
8:00-9:00		별자리여행 / 관측 ↓ 나의 별자리 만들기	
9:00-10:00		여행느낌나누기	
10:00-11:00	만남과 여행느낌나누기	여행느낌나누기	
11:00-12:00	잠자리에	잠자리에	

○ 세부프로그램

① 첫째 날(토요일)

프로그램 명	시 간	세 부 내 용	
가재! 문화마을로!!	~1:30	안성 중앙대학교 정문 앞으로	
답 사 ①	안성맞춤박물관	1:30~2:30	안성맞춤은?, 안성의 역사, 추적놀이를 풀어보는 안성맞춤박물관
	이 동	2:30~3:00	차를 타고 영상으로 보는 청룡사와 바우덕이
	청룡사	3:00~4:00	장길산이 머물렀던 곳, 남사당의 발생지 청룡사를 찾아서
	바우덕이 묘	4:00~4:30	바우덕이의 묘를 찾아서
장보기	4:30~6:00	<이동> 서운면 ~ 안성시장 <장보기> 모듬별 장보기	
이 동	6:00~6:30	<이동> 시장 ~ 보개면 남사당 전수관 <차안프로그램> 도전골든벨-청룡사, 바우덕이 <저녁밥>	
남사당놀이 공연관람	6:30~9:00	· 사물놀이, · 설장고 합주 · 살판(땅재주놀이) · 덧뵈기 · 버나 돌리기 · 덜미(인형극) · 어름(줄타기) · 풍물놀이	
숙 소 로	9:00~10:00	화이트하우스로 짐 풀고 정리	
만남 그리고 여행느낌나누기	10:00~11:00	· 여행느낌나누기 · 모듬일지쓰기	
잠자리에	11:00~	· 1호(10명) · 2호(10명) · 3호(10명) · 4호(10명) · 5호(5명)	

② 둘째날(일요일)

프로그램명	시 간	세 부 내 용
일어나기/산책	~ 7:30	· 안성의 호수(저수지)를 산책 하거나 동아방송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 침 밥	7:30~9:00	· 모듬별로 아침밥을 지어먹고
여행일정나누기	9:00~9:30	· 여행일정계획나누기 · 모듬별 과제확인하기
이 동	9:30~10:00	· <u>염색작업장으로</u> (너리굴 문화마을/안성문화마을/미래 내화마을/아힘나 놀이감 공방 등)
한국의 빛깔을 찾아서 -천연염색-	10:00~12:30	· 강의> <u>염색이란?</u> · 체험> <u>소목으로 염색하기</u> <u>황토로 염색하기</u> · 느낌나누기>
점 심 밥	12:30~1:30	· 서일농원에서 한정식으로
이 동	1:30~2:30	· 일죽면~안성시장(장보기)~도예공방으로
한국의 그릇을 찾아서 -도예공방-	2:30~5:30	· 강의> 영상으로 보는 '한국의 그릇' · 체험> <u>내 손으로 만드는 그릇</u> <u>흙피리 만들기</u> · 느낌나누기>
이 동	5:30~6:00	· 미양면~미양면 안성천문대로 <차안프로그램>
안성천문대	6:00~10:00	· 도착/인사 · 천문대 둘러보기 · 천제여행 · 저녁밥 (한식백반) · 별자리공부 · 별자리관측 · 나의 별자리 , 모듬별자리 만들기
이 동	10:00~10:30	서운면 천문대~삼죽면 화이트하우스까지
여행느낌나누기	10:30~11:30	· 나의 별자리, 모듬 별자리 발표 · 여행느낌나누기 · 모듬일지쓰기
잠자리에	11:30~	· 1호(8명) · 2호(8명) · 3호(8명) · 4호(8명) · 5호(8명)

③ 셋째날 (월요일)

프로그램명	시 간	세 부 내 용
산책/아침운동	~7:30	· 동아방송대학에서 아침운동
아 침 밥	7:30~9:00	· 모둠별로 아침밥을 지어먹고
여행일정나누기	9:00~9:30	· 모둠별 여행신문 만들기
이 동	9:30~10:00	· 삼죽면 진촌리에서~덕산리로 이동
작업장을 찾아서③ -놀이감 공방-	10:00~12:30	· 한일 문화교류를 기념하여 장승 깎기
점 심	12:30~1:30	· 비빔밥과 가마솥 누룽지
닫는 마당	2:30~3:30	· 여행느낌나누기

◆ 안성맞춤 박물관 · 031-676-4353

(남사당전수관에서 10분(중앙대학교 입구), 전시관 운영, 세미나)

- 유기를 중심으로 안성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함께 접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으로 2002년 8월 1일 개관하였다. “안성맞춤” 이라는 고유명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에 대한 신뢰를 어기지 않는다는 ‘안성의 맞춤 유기’에서 비롯되었다. 유기 제작과정을 동영상 및 기구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볼 수 있다.

◆ 청룡사와 바우덕이 · 031-672-9103, 031-678-2065

(남사당전수관에서 20분, 주변 숙박·식사, 등산, 낚시, 수상스키 등)

- 우리나라 남사당의 발생지인 안성시 서운면에 위치한 청룡사는 대웅전(보물)의 자연미 넘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 곳은 바우덕이를 탄생시킨 지역으로 소설 바우덕이 출간으로 최근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로서 인근에 있는 바우덕이묘에도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 아울러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라는 나옹선사의 시의 출처이자 소설 장길산이 머물고 갔던 장소가 또한 청룡사임은 큰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다.

- 석남사~청룡사 구간 4시간 코스의 등산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산행을 제공한다.

◆ **너리굴 문화마을** · 031-675-2171, 678-2065

(숙박·식사, 다양한 예술체험, 세미나, 갤러리 등)

- 비봉산 기슭에 위치한 “너리굴 문화마을(엄마목장)”은 국내 최대의 복합 문화 체험학습공간으로 청소년수련원 등록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조각, 도예, 석고공예, 금속공예, 곤충생태체험, 목공예 등의 체험활동을 현지 예술가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야영, 운동회, 세미나,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약 200명 이상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대형 숙박시설과 가족단위의 팬션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숙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쾌적한 산책로와 직접 만든 수공예품도 보는 즐거움과 사는 즐거움을 함께 제공한다.

◆ **안성 문화마을** · 031-673-4668, 678-2065

(주변 숙박(민박)·식사, 도예체험, 운동회 등)

- 폐교된 대문초등학교 교실을 개조하여 활용하고 있는 안성문화마을에는 조각, 도예, 회화 분야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 **태평무 전수관** · 031-676-0141, 678-2065

(주변 숙박(민박, 모텔)·식사, 세계인형 박물관 등)

- 매주(4월-10월) 토요일 오후에 춤을 소재로 ‘전통무용 및 창작극’을 공연하고 있다. 이곳에는 세계 100여국의 민속인형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공연은 1시간 소요되며 관람료 및 입장료는 없다.

◆ **안성 천문대 별자리 체험** · 031-677-2245, 678-2065, 02-777-1771

(숙박·식사, 돔 천체 망원경, 주변 포도 산지)

- 공연 관람을 마치고 동형 천체망원경과 슬라이드 망원경이 설치된 안성천문대에 들러 별자리 학습 기회를 갖고 하룻밤을 지낸 뒤 안성포도의 주산지인 서운면 넓은 포도밭 길을 걸으며 포도도 즐기고 선물감을 고르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인근 포도농원 민박 가능)

◆ **아트센터 마노** · 031-676-0756, 678-2065

(남사당 전수관 옆, 숙박, 식사(아외, 실내), 갤러리, 세미나 등)

- 남사당 전수관 곁에 있는 숙박, 음식, 체험, 갤러리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건물을 거꾸로 설계한 독특한 디자인의 사설전시관과 넓은 잔디밭, 150명의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 등이 있어 많은 단체에서 주말에 예약을 하고 있으며 세미나, 체육행사 등을 갖고 있다.

◆ **서일농원** · 031-673-3171, 678-2065

(남사당전수관에서 25분, 숙박·식사, 문화탐방 등)

- 서일농원은 '서분례 된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수백 개의 커다란 항아리에 담겨져 햇볕을 쬐고 있는 된장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발품을 파는 본전을 뿜을 수 있다. 시원한 매실차, 구수하고 독특한 식사, 그리고 누구에게나 무난한 우리의 전통장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5) 안성맞춤의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교육·문화벨트

장인(匠人)이란 '여러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을 말한다. 근대화 이전의 우리사회에서 장인들의 활동은 여러 영역에 걸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이, 낫을 만드는 대장장이, 부채를 만드는 부채장이, 방성을 만드는 왕골장이, 누에쳐서 명주 짜는 명주장이 등이 있었다. 이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각자 자신의 손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자신

의 직업 활동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인정신(匠人精神)의 개념¹⁸⁾을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정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전·실험정신이다. 거의 모든 장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걸음 전진을 위해 열 걸음의 퇴보를 인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장인정신의 핵심이다.

둘째, 올바른 직업윤리이다. 장인들은 '결과'보다는 '작업의 과정'을 중시하며 작업 활동자체를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가치 있는 '목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장인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에 '혼'을 불어넣으려 하고, 작품에 생명이 담겨있다고 믿는 태도는 직업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단면을 보여준다.

셋째 전문성의 추구이다. 장인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평생 동안 한 가지의 작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만이 터득한 기술과 기법을 개발하여 자신의 작품을 예술의 경지에까지 승화시키려 노력한다. 오늘날에도 전통적 장인들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의 성격들, 예를 들어 실업의 위협과 비정규직의 확산을 직장인들의 직업이동(job mobility)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재 직장을 평생의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장인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되어 갈수록 직업에 대한 현대인들의 철학적 태도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의 결과보다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며 일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태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며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소외된 삶을 살지

18) 박창남·김미정, 「장인정신 체험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특성화수련거리8』, 문화관광부, 2001, p. 3.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물며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준비하며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에 장인정신을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의 중요성 역시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안성맞춤의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문화예술·교육벨트’는 청소년들에게 장인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윤리를 배우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벨트형성을 위한 자원

○ 백동연죽장

양인석씨의 백동연죽은 민대 중심으로 은과 구리 및 놋쇠로 띠를 돌리는 무늬가 특징이며, 장신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7호>

○ 입사장

이경자씨의 입사는 미적 감각이 뛰어난 금속공예로서, 금속에 금, 은, 동을 합금하는 기법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공예품이다. 여인들의 장신구나 보석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9호>

○ 유기장

안성유기는 아름다운 모양과 광채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50여 년 전통을 갖고 있으며 방자유기와 주물제작법으로 밥그릇을 비롯, 제기,

불기제품을 생산하며, 연막제 개발로 유기의 생명인 광채를 유지하고 있다.

○ 김대균의 줄타기

서른셋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제58호 줄타기)가 된 죽산면 매산리의 김대균씨. 아홉 살이던 76년 김영철 선생 문하에서 줄타기에 입문하여 25년간 그 맥을 이어왔다. 공중에 매단 줄 위에서 삼현육각 반주에 맞춰 재담도 하고, 소리도 하고, 춤도 추며 갖가지 연희를 베푸는 놀음의 줄타기이다. 김대균씨는 “세계 여러 민족에게 줄타기 문화가 있지만 우리 줄타기가 가장 뛰어난 기예를 갖춘 종합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줄타기 보존회 031-674-1950>

○ 안성 남사당풍물패

남사당패는 맨 위에 꼭두쇠가 있고 그 밑에 곰뱅이쇠, 뜯쇠, 가열, 빠리, 저승패, 동짐꾼 등으로 구성되어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의 놀이를 행하였다. 안성 남사당의 맥은 조선조 말기의 바우덕이에서 시작해 김복만 - 원육덕 - 이원보 - 김기복으로 이어졌고 해체와 결성을 거듭하면서 끈질긴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본래 남사당패의 풍물놀이란 옷다리가락을 주축으로 하여 진풀이, 무동, 벽구놀이, 채상놀이, 선서리 등의 몸재주와 묘기에 소리(산타령, 새타령, 모찌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까지 곁들이니 훌륭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풍물이란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 음악이며, 남사당패에 의하여 떠돌이 판굿 모임에 맞게 놀이성이 풍부하게 짜여진 것이다. 안성의 남사당 풍물놀이는 남도 농악에 비해 무동의 수가 많고 5무동을 비롯한 3무동, 4무동, 단무동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며 최

고의 기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7무동 무예이다.<남사당보존회 031-675-3925>

○ 안성 향당무

향당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군무로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해주는 의미로 남녀가 함께 추었다. 경축연에는 경사스러운 의미를 축원하는 뜻으로 유색 옷을 입고, 추모의식에는 무색옷을 입고 춤을 춘다. 대개 두 명에서 열여섯 명까지 추는 군무로 청룡대고와 사방에 소평고를 설치해 놓고 추는 무고형식이 주를 이룬다. <향당무보존회 031-676-1212>

○ 태평무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에서 왕과 왕비가 춤을 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태평무는 중요무형 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되어 있다. 태평무는 한국 근대 무용의 맥을 잇고 있는 한성준 선생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현재 강선영 선생이 기능보유자로 있다. 특히 태평무는 안성의 한성준 선생에 의해 크게 중흥을 일으켜 한국 근대무용의 뿌리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 한성준 선생은 한국 최고의 춤꾼으로 불리는 최승희를 비롯해 현재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강선영 선생 등 우리나라 무용계의 큰 인물들을 배출시켰다. <태평무보존회 031-676-0141>

○ 전통서각, 염직공예, 알 공예, 복조리, 뿌리공예, 도자기, 가죽공예, 한지공예, 전통가마솥, 전통옹기

(2) 벨트화를 위한 주제

- 청소년들에게 안성맞춤의 장인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윤리를 배운다.
- 옛 장인의 직업세계와 현대적 장인의 퓨전을 만들어 간다.

(3) 활동의 구성

‘안성맞춤의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문화예술·교육벨트’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장인과 현대적 장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장인정신’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먼저 전통적 장인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터넷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살펴본 후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정신’의 실체를 어렵듯이 느낀 뒤 이러한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장인들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장인을 만나고 직접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직업 활동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만날 장인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섭외하여 장인을 만나 대화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장인과의 대화를 통해 장인이 갖고 있는 삶과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일대기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장인의 직업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장인의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장인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이다. 전통적 장인과 현대적 장인의 직업세계와 정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다 깊이있게 이해한 뒤 장인의 일터를 방문하여 장인의 직업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 주변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인의 직업 정신을 보다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장인의 삶과 직업정신을 재현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진 장인정신을 청소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단계이다. 다큐멘터리와 역할극을 준비하고 발표함으로써 장인정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아바타를 타임캡슐에 넣으면서 자신의 삶과 진로에서 장인정신을 구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종합 활동으로는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2박 3일 동안 캠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표Ⅳ-4> 장인정신 체험활동의 구성¹⁹⁾

차시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1	장인 들여다 보기	사라져 가는 '장인'를 찾아서	인터넷과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장인의 작업 활동을 살펴보고 전통적 장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업 정신에 대해 토론한다.
2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인터넷과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현대적 장인의 작업 활동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이 중에서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만나고 싶은지를 발표한다.
3	장인 만나기	정보를 통해 본 장인	만나고 싶은 장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인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4		장인의 삶을 이야기하자	장인으로부터 그의 삶의 경로, 직업관, 전환점 등에 관해 듣고 토론한 뒤 자신의 삶의 일대기를 그림이나 도표로 만들어 본다.

19) 박창남·김미정, 「장인정신 체험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특성화수련거리8』, 문화관광부, 2001. p. 6.

5		이런 장인이 사라진다면	전통적 장인과 현대적 장인의 직업세계와 정신에 대해 토론하며 장인정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한다.
6	장인의 삶 느끼기	일일 장인체험	장인의 작업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활동을 기록한 뒤,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7		오늘의 장인이 있기까지	장인의 삶과 직업선택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을 인터뷰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을 읽은 후 토론한다.
8	장인정신과 나의 만남	장인체험현장 다큐멘터리 발표회	장인의 삶의 전 과정을 영상매체(비디오, 사진 등)를 이용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뒤 발표회를 연다.
9		집단연극	장인의 삶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청소년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연극연습을 한 뒤 공연을 한다. 특히 장인이 청소년기에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을 중심으로 공연한다.
10		나의 직업과 장인정신	장인정신을 나의 삶과 진로에 관련지어 고민하며 현재와 미래의 자신을 상징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타임캡슐에 묻는다.

6) 공동체적 삶을 배우는 마을중심 문화예술·교육벨트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서 놀이와 춤과 축제는 매우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과 자원은 한 마을의 가능한 인적자원, 물적 자원, 환경자원, 재정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축제 안에서 웃고, 뛰놀고, 춤추며,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벨트의 꽃은 축제가 아닐까 싶다.

(1) 벨트형성을 위한 자원

벨트 주제	교육내용 및 시설	POST
주말 가족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만들기, 낫수저만들기, 꽃염색하기, 벽화그리기 - 청류재식물원, 유연복작업실, 이억배·정유정 작업실, 청룡사, 아트센터 마노, 안성맞춤박물관, 안성천문대, 아힘나공방 	아힘나 공방
놀이와 축제를 통한 공동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엔 무얼 하며 놀았을까? - 우리문화체험마당 - 아힘나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삼죽 초등학교, 아힘나 풍물패 노름마치 	아힘나문화예술·교육연구소
평화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만들기, 연극공연, 편지쓰기 - 평화시절단의 이동공연 - 안성소재 대학 자원봉사단, 청소년 연극동아리,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2) 벨트화를 위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가족구성원들의 주말 문화예술·교육체험을 통한 가족공동체 회복 - 놀이와 축제를 통한 남북 어린이, 이주노동자의 화합, 마을주민들의 사라진 마을 축제의 복원 - 학교의 폭력문화 추방을 위한 평화로운 학교 환경 만들기 캠페인

(3) 놀이와 축제를 통한 공동체 체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벨트

가. 놀이감 공방에서의 주말 가족 문화예술·교육벨트

- 안성문화여행과 놀이감 공방에서의 주말가족캠프 -

▶ 놀이감 공방에서의 주말 가족 문화예술·교육벨트

○ 목 적

주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안성문화여행과 놀이감 공방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일 시 : 토요일 오후 1시30분~일요일 오후 2시30분까지(1박 2일)

○ 대 상 : 가족단위 누구나

○ 내 용

- 1차> 바우덕이와 함께

청룡사 → 바우덕이 묘 → 아트센터 마노에서(전래놀이) → 저녁밥 → 공연관람 '남사당놀이' → 숙소로 → 느낌나누기 → 영화보기 → 잠자리(1박) → 산책(덕산 저수지) → 밥 지어먹기 → 공방에서 '대나무 단소 만들기' → 점심밥 → 느낌나누기 → 집으로

- 2차> 소망을 담아

세계인형박물관(태평무전시관) → 공연관람 '태평무' → 저녁밥 → 별자리여행(안성천문대) → 느낌나누기 → 잠자리(1박) → 산책(덕산 저수지) → 공방에서 '나만의 형겅 인형 만들기' → 점심밥 → 느낌나누기 → 집으로

- 3차> 꽃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야생화 식물원을 찾아서(한택식물원/청류재 식물원) → 저녁밥 → 작업실에서 '야생화액자', '야생화 찻잔 받침 만들기' → 영화보기 → 잠자리(1박) → 산책(덕산 저수지) → 공방에서 꽃으로 염색하기 → 점심밥 → 느낌나누기 → 집으로

- 4차> 안성에는 '안성맞춤'이 있다

안성맞춤박물관 → 안성 유기 체험장 → 저녁밥 → 우리 차 이야기/우리 차 마시기/국화차 만들기 → 느낌나누기 → 잠자리(1박) → 산책(덕산 저수지) → 공방에서 '눗수저 만들기', '주사위 만들기' → 점심밥 → 느낌나누기 → 집으로

- 5차> 나만의 가구 만들기

목공작업실에서 → DIY 가구 만들기①(책꽂이/CD장) → 저녁밥 → DIY 가구 만들기② → 느낌나누기 → 잠자리(1박) → 산책(덕산 저수지) → DIY 가구 만들기③ → 점심밥 → 느낌나누기 → 집으로

- 6차> 그림책마을 여행

이역배·정유정의 그림마을 탐방 → 작가와 수다 떨기 → 그림이 있는 나만의 책·수첩 만들기 → 슬라이드, 영상으로 만나는 책 → 느낌나누기 → 잠자리(1박) → 산책 → 책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입체물로 만들기) → 담장으로 가져온 그림책/벽화그리기

- 7차> 나도 판화가가 되어

판화가 유연복의 작업실 탐방 → 작가와 수다 떨기 → 나도 판화가가 되어 → 느낌나누기 → 잠자리에(1박) → 산책 → 판화 찌기/서로의 작품을 모아 달력 만들기(공동작품)



나. 마을 축제 만들기 - '삼삼오오, 옹기종기 애들아 노을자!'

▶ 마을 축제 만들기 - '삼삼오오, 옹기종기 애들아 노을자!'

- 우리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

○ 목 적

행정 동(洞)은 있어도 마을이 사라진지는 오래다. 성인은 있어도 어른은 없고, 동네 골목에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자동차 경적 소리와 물건 파는 자동차의 호객소리가 마을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로부터 마을에서는 민족의 절기를 통해 노동과 생산의 때를 맞추었으며, 수확과 나눔의 잔치를 준비하였다. 잔치는 한 마을을 묶어세우는 삶의 기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잔치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 자리에 공연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길 어귀에 옹기종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놀던 놀이들이 사라지고, 기계를 매개로 한 오락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기상과 어른으로 상징되는 힘과 단결 등을 과시하던 마을 간의 겨루기는 오늘날 P.C 방 모니터를 보며 심하게 욕지기를 해대는 청소년들의 허망한 말싸움이 대신하고 있다. 마을을 살려야 한다. 마을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마을의 단합과 정주 의식을 높이고, 이웃 동기간의 단결과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혼탁해진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옛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들의 문화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 문화예술·교육벨트 설정의 배경

언젠가 '엄마 어렸을 적엔' 이란 제목의 인형전을 본 적이 있다. 어릴 적 아련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인형으로 정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자치기를 하는 아이들의 표정, 겨울날 한 이불 속에 발을 웅기종기 모으고 바느질을 하는 엄마 곁에서 화롯불에 군밤이 익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 그 정감 있는 엄마, 아빠 어렸을 적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렸을 적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1998년부터 ‘우리문화체험학교’를 열게 만들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함께 어울려 놀 ‘놀이 동무’가 없어졌고, 텅굴고 놀 ‘놀이마당’을 잃었으며, 공동체적인 놀이규칙을 세우는 ‘아이들만의 법’을 배우지 못했다. 따라서 열린 마당 열린 교실 ‘우리문화체험학교’는 우리 엄마, 아빠 어렸을 적의 놀이와 생활을 들여다보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느끼도록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적보다 훨씬 더 먼 옛날에 있었던 전통놀이와 그러한 전통놀이를 이어 받으며 변화되어온 우리의 민속놀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민속놀이와 전통놀이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가치와 느낌을 경험하게 해준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자연 속에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손과 발이 트도록 놀았던 추억이 담겨 있는 놀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 시절의 추억 하나쯤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해 보는 놀이감 만들기와 제기차기, 떡메 치기 등의 다양한 놀이를 그야말로 신명나게 놀아보고자 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놀이 문화의 특징들, 긴장과 흥분, 공동체적인 자발성과 일체감, 자연과 하나 됨, 창조성과 평등성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도록 돕고자 교육내용을 선정하게 되었다.

- 장 소 : 안성 삼죽 초등학교 / 종합운동장 등
- 대 상 :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 누구나

○ 프로그램의 내용

① 볼 거 리

- :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엔 사진전
인형극 공연
노름마치의 사물놀이 공연
아이들의 옛 놀이 노래 공연

② 놀 거 리

- : 엄마, 아빠 어렸을 적 놀이 : 자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강통 차기,
망쭈기, 십자놀이, 오랫말 놀이, 투호놀이, 널뛰기, 봄들기 등

- : 공동체놀이 - 명석말이, 문지기, 돼지씨름, 고싸움, 줄다리기, 민속 팔
씨름, 옛날 운동회 등

③ 만들 거 리

- : 나무로 만들기 - 주사위, 자, 옷, 팽이, 나무곤충, 판자 배, 썰매, 대말
- : 흙으로 만들기 - 공기, 흙 피리 등
- : 종이로 만들기 - 연, 한지공예, 신문지공예 등
- : 형겅으로 만들기 - 형겅인형, 조각보 등
- : 기타 - 손수건 염색(양파, 쪽, 치자)

④ 먹 거 리

- : 달고나, 뽕기, 번데기, 가락엿, 호박엿 등 옛날시골장터의 군것질 거리
- : 다식, 떡메(인절미 만들기), 콩고물주먹밥, 수정과, 식혜, 강정 만들기
- : 시식(계절음식)만들기 - 화전, 국화전, 팔죽 등

○ 추진방법

-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 어린이, 청소년, 가족,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 가족전래놀이마당, 먹거리 장터,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축제
-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놀이축제

○ 세부프로그램의 예

- ① 남북 어린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우리문화체험마당 '삼삼오오, 옹기종기 애들아 노을자!'
 - 기 간 : 9월 ~ 11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총 3회)
 - 장 소 : 안성 삼죽 초등학교
 - 소요시간 : 4시간(오전 9시~1시 / 오후 1시30분~5시30분)
 - 대 상 : 하나원 탈북어린이와 삼죽 초등학생,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마을주민, 가족
 - 프로그램

소요시간	1차	2차	3차
	놀이문화체험마당	생활문화체험마당	음식문화체험마당
30분	접수 / 모듬니누기		
30분	이야기마당 - 남북의 놀이문화, 생활문화, 음식문화		
2시간 30분	<놀이감 만들기> 고누, 콩웃, 칠교, 제기, 유객주, 팽이(줄팽이), 오재미(콩 주머니), 놀이감 상자 등 <놀이마당> 공기, 투호, 제기, 고누, 윷놀이, 쌍륙, 칠교 등	전통문양탁본하기 우리 문양 새기기 형겅 인형 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짚풀 인형 만들기 한지공예(보석함) 염색하기 부채 만들기	<먹거리 장터> 떡매 치기(인절미) 시루떡찌기 콩고물주먹밥 강정 만들기, 만두 달고나, 번데기 떡볶기, 감자전, 팔죽, 국화전 등 <벼룩시장>
30분	느낌나누기와 정리		

② 주말 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마당

- 기 간 : 3월 - 5월 (1박2일)
- 장 소 : 너리굴 문화마을
- 대 상 : 경기도내 가족 누구나 120명

- 프로그램

	첫째날	둘째날
7시~8시	등 록	일어나기, 산책
8시~9시		아 침 밥
9시~10시		우리문화체험마당 볼거리, 놀거리, 만들거리 먹거리, 배울거리가 가득~!!
10시~11시		
11시~12시		
12시~1시		
1시~2시		
2시~3시		여는 마당(입춘 축하 문화 공연)
3시~5시	이야기마당 - 놀이, 생활, 음식문화	집으로!
5시~7시	우리 음식 만들기 (저녁밥)	
7시~10시	놀이감 만들기과 공동체놀이	

③ 우리문화체험마당 - 엄마·아빠 어렸을 적엔

- 기 간 : 3월 ~ 11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10시~16시
- 장 소 : 종합운동장 또는 초·중등학교, 안성천변
- 대 상 : 안성시민 누구나



- 프로그램

~11시	접수 / 모듬나누기			
11시~12시	여는 마당			
12시~15시	볼거리	놀거리	할거리	먹거리
	-사진전 -인형극공연 -사물놀이 공연 -아이들의 옛놀이 노래 공연 -탈춤 공연 -택견 시범	-엄마,아빠 어렸을 적 놀이 -공동체놀이 -멍석말이, 문지기, 돼지씨름, 고싸움, 줄다리기, 씨름 -옛날운동회 등	-나무로 만들기 -흙으로 만들기 -종이로 만들기 -형겉인형, -조각보 만들기 -염색하기	-떡메 치기 -시루떡 찌기 -콩고물주먹밥 -강정 만들기, -달고나, -번데기 -감자전, 국화전, -화전, 팔죽 등 <벼룩시장>
15시~16시	닫는 마당 '대동놀이'			

○ 기대효과

- 전통적 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이 단합하고 옛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 컴퓨터 오락게임에 빠져있는 어린이들이 혼자가 아닌 여럿이 노는 전래 놀이와 다양한 변형놀이를 통하여 협동하여 노는 놀이의 맛을 느낄 수 있다.
- 안성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놀이 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이웃과 돈독한 정을 나눔으로써 안성시민으로서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다.



다. 평화로운 학교 환경 만들기 - 학교 폭력문화 추방 캠페인

▶ 왕따에게 보내는 왕 따스한 노래

- 마음에는 평화 가득, 얼굴에는 웃음 가득!!

○ 목적

- 만연해 가고 있는 학교 폭력과 따돌림의 문제에 대하여 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함께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청소년 자신들의 문제를 주제로 한 연극과 노래를 공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평화문화건설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청소년들을 가정과 거리의 폭력, 약물중독, 10대 임신, 범죄 등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전략적 비전, 조직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세부목표

- 지역별로 문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러한 청소년 쉼터들과 연대하여 지원한다.
-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훈련한다.
- 청소년 지도자들을 배치해 청소년들을 거리에서 일대일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 사이의 폭력 대결을 피하는 대안으로서 청소년들의 모임을 만들고, 관계 개발을 모색한다.

○ 만들어 가는 주체

- 사업단체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 연대단체 : 교육청/시청/여총/연극협회/대학연극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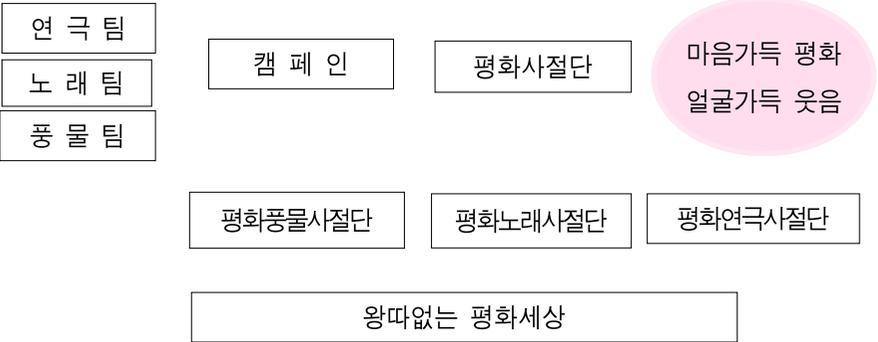
- 자원봉사 : 동아방송대학, 중앙대학교 자원봉사센터

○ 대상

- 안성지역 초, 중, 고등학교
-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일하는 교사, 지도자

○ 진행내용

왕따에게 보내는 왕 따스한 노래
- 마음에는 평화 가득, 얼굴에는 웃음 가득!!



○ 사업내용

①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 - 노래로 전하는 평화

- 목표 : 만연해 가고 있는 학교 폭력과 따돌림의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 자신들 스스로가 평화를 일구어 가는 노력으로 '화해와 나눔'을 주제로 한 평화 노래 만들기과 노래공연을 통해 평화사절단으로서, 청소년들이 평화문화 건설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생활에서 실천한다.

- 내용 : 평화노래사절단 모집과 홍보
 - : 모임구성 및 연습
 - :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 '평화노래사절단' 정기공연
 - : 지역별 거리캠페인에서 노래공연 및 소모임 활동 계속
 - : 청소년의 달 -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 '평화노래사절단' 정기공연
 - : 청소년 평화축제

②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 - 우리 사물놀이로 전하는 평화

- 목표 : 만연해 가고 있는 학교 폭력과 따돌림의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 자신들 스스로가 평화를 일구어 가는 노력으로 우리 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평화사절단으로써, 청소년들이 평화문화건설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생활에서 실천한다.
- 내용 : 풍물패 모집과 홍보
 - : 모임구성 및 연습
 - :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 '풍물공연'
 - : 지역별 거리캠페인에서 공연 및 소모임 활동 계속
 - : 평화사절단 캠프
 - : 청소년 평화축제

③ 연극(마당극)으로 전하는 평화 : 왕따에게 보내는 왕 따스한 노래

- 목표 : 교육연극 "왕따에게 보내는 왕 따스한 노래"가 "학교폭력추방"운동이 되기까지

<왕따 현상에 대한 연구>

집단따돌림을 뜻하는 '왕따'라는 말은 이제 특정한 집단의 은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에 올라갈 만큼 일반화된 하나의 현상으로 90년대 후반을 장식하고 있다.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였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 중,

고생 4명 중의 1명이 따돌림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구를 따돌리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 중에 무려 43.6%가 '장난삼아 혹은 재미삼아'한다고 대답했는가 하면 심지어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1.4%에 이르고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양상도 심각해지고 있어서 최근 피해 학생의 자살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찾은 청소년과 함께 만든 연극>

이제 '왕따'는 '시키고, 당하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따돌리는 문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는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 학연, 지역에 따라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회현상과 '왕따'의 문제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언론을 통해 등장하는 '왕따'문제는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이며 본질은 은폐된 채 드러나는 일부분일 뿐이다.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하지만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학부모, 교사, 아이들 모두가 문제의 중심에 고통스럽게 서 있다.

그저 내가 아니니까, 나까지 당할까봐, 그저 재미있어서, '왕따'들의 고통을 그저 모르는 척 외면한 채 '왕따'는 별나라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어제까지 소중했던 내 친구라는 걸 다시 생각해 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왕따돌림'의 문제는 '왕 따스함'으로 풀어야 한다.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문화를 공존의 문화로 바꾸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화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공동창작 '왕 따에게 보내는 왕 따스한 노래 탄생'>

자료수집, 자료 분석, 토의를 걸쳐 우리는 '왕따'의 아픔을 표현하고 '왕따'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문제 삼으로 왕따에 얽히고 설킨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극을 만들어 본다.

○ 추진일정

일 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1월	홍보> 모집> 참가자 접수	팸플렛, 포스터 제작 공문발송 (청소년단체 / 각 학교)
2월~4월	평화사절단 신규회원모집	평화사절단 신규회원모집, 정기모임, 교육 평화사절단 - 연극, 노래, 풍물팀(단원모집 각 20명)
5월	평화사절단 정기공연 '화해와 평화를 일구는 우리'	일시 : 5월중 장소 : 시민회관(예정)
6월~11월	캠페인 기존 : 오산·화성지역 신규 : 안성지역 캠페인	거리캠페인 및 학교방문캠페인 매주 토 - 일요일 (협력:동아방송대학, 중앙대학, 한경대학)
12월.	편지글 모음집 발간과 평화축제	편지글 모음집 발간과 청소년평화축제 - '왕따에게 보내는 왕따스한 노래' - 일시 : 12월중 - 장소 : 시민회관(예정)
1월	사업평가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	활동자료집 만들기, 다음년도 사업계획

○ 기대효과

- 왕따에게 보내는 왕 따스한 편지쓰기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각 지역의 청소년 쉼터, 그룹 홈, 학교 등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 평화사절단 등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평화 전도자'들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또래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다.
-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 대결을 피하는 대안으로서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고, 관계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모임을 모색할 수 있다.
-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 가는 평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자가 가진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평화적인 감수성을 훈련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훈련하여 서로 정보를 나누고, 쉼터, 그룹 홈 등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쉼과 회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단계적 실천 방안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통하여

1) 도입단계 : 2004~2005년

-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전담할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설립까지 준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에 참여할 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 강사, 문화예술인을 모집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 참여기관, 시범학교 및 단체를 중심으로 안성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벨트를 운영한다.

2) 기반확충 및 확장단계 : 2006 ~ 2008년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에 참여할 협력기관 및 단체 혹은 전문 강사, 문화예술인을 경기도 및 인접지역까지 확대해 나간다.
- 기존의 시설 및 공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공간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의 협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충원한다.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테마별 활성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 확충해 나간다.
- 이용대상을 안성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 등 인접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3) 발전단계 : 2009년 이후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로서,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성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을 대상으로 협력기관·단체 및 전문 강사와 문화예술인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지역간 교류를 본격화한다.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국적,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신규자원 발굴 및 다양한 벨트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V.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운영방안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본 연구는 성장세대(청소년)들에게 물려 줄 도시와 마을공동체가 왜 생명이 상생해야 하고, 미래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공존해야 하며, 풍부한 감성으로 창조적인 미(美)의 추구가 지역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를 묻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관광 혹은 여행으로 제시된 벨트는 교육적 체험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많은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벨트가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시설 중심의 볼거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벨트는 인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문화적 체험, 그리고 단체와 조직의 연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벨트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이나 발표된 문건에 저장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문화주체들의 상시적 만남을 통해 늘 새로운 벨트가 만들어지고 체험되며 다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벨트화에 대한 상시적 연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벨트설정에 관한 연구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거나 한 번 정도 사용되고 폐기되어지는 것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공교육 현장이나 청소년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벨트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들을 조직하고 단체와 학교를 연결하는 상설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벨트의 운영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진들은 연구에 앞서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민(民)주도의 협동조합을 통한 상설 운영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사실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운영체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생산 및 소비자들인 문화예술인, 교사, 학부모들은 일단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제 그 공은 연구진에게로 넘어왔고, 이 초안을 통해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생산 및 소비자들은 그 유통의 구조로서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1. 대안적 생활문화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의 의의

19세기 말, 산업화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은 민간운동으로 1885년 개발 대상 지역을 매입하여 보호하려 하였다. 이 운동은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를 태동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환경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영구 보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1885년 창설된 이래 1960년대부터 참가 회원수와 매입 토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1977년부터 3년마다 세계 내셔널 트러스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 경관지, 건축물을 매입하여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수시민단체로서, 시민으로부터 토지를 기부 또는 증여토록 하거나, 시민들의 성금으로 직접 자산을 매입하여 영구 보전하고 있다. 즉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환경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영구 보전하는 적극적인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²⁰⁾

1885년 영국에서 회원 100명으로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각국으로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에서 실시 중이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환경운동가들이 1982년 '내셔널트러스트를 추진하는 전국모임'을 결성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1994년 무등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무등산 공유화 재단'이 설립된 것을 시초로 본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들이 내셔널트러스트 기구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으며,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돼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 대표인 조명래 운영위원장은 "내셔널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²¹⁾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 연구가 왜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실제적 운영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제시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시도는 조명래 운영위원장의 말처럼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으로서 출발할 수 있으며 토지, 경관, 건축물의 공동매입을 넘어 무형의 자원인 예술, 기술, 지식, 경험까지도 상업성을 배제한 채 지속가능한 나눔의 협의체²²⁾를 민(民)주도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이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러한 민(民) 주도의 자발적 운영체는 우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로 출발하고 그 한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20) 황동열 외,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정책과제 2000-9), 2000, p. 57.

21) <http://weekly.culturalaction.org/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7&no=1281>

22) 이 의미는 교육·문화의 생산자 집단이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및 교육활동이, 그리고 소비자 집단의 필요가 반영된 작품 및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협의체의 소위 '경영'에 관한 모색에서 나온 말이다.

소비자 및 생산자 집단 네트워크로서의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상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벨트는 늘 새롭게 생성되고 변화되어 안성지역의 전반적인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의 개선효과 등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설립취지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설립의 동기는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가 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있어서 지역사회(마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2000년 4월에 창립한 『느티나무 교육문화협동조합』²³⁾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문화협동조합」의 대한 생각의 동기는 ‘아이(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하였는데, 아이(청소년)들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고 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자질과 창의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건강한 마음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고 펼치고 싶어 하는 세대이기에 이런 ‘아이(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곧, ‘평생교육의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고 ‘문화의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서 ‘교육문화협동조합이라고 하였다.

「교육문화협동조합」은 아이들(청소년)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자 하였다. 이들은 생명의 가치인 상생의 삶을 존중하며, 개인적 가치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삶을 추구하며, 올곧은 교육과 문화적 체험을 통해 내일을 가꾸어 갈 인재를 키워가는 교육자이며 문화생산자들과라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혹은 「소비자협동조합」 등과 같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 더

23)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느티나무 교육문화협동조합』 리플렛. 2000

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생명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공급받는 생활협동조합과 같이 건강한 교육과 생명의 문화를 생산, 공급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 교육문화협동조합의 구상이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느티나무 교육문화협동조합」의 구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운영계획

1) 조합원의 자격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아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자격을 지닌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교육과 생명의 문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른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더욱 키워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청소년), 다양한 사회교육, 문화체험을 나누어 주고 또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을 발굴하여 조합원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운영 정신

협동조합이란 자발적이고 개방적 참여에 의한 인적조직으로서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조합원의 교육과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 문화의 생산자들에게는 그 프로그램과 작품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과 생명의 문화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구성원인 동시에 고객이며, 공급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일반 협동조합의

운영 정신을 따라야 할 것이다.

3)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에 대한 구상에 적극 동참하며 기꺼이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아이들(청소년)의 올곧은 성장을 바라는 종교인, 교육자, 의료인, 법조인, 그리고 그림으로 멋진 조각물로 생각의 깊이를 표현하는 미술인,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아 노래로, 글로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는 음악가와 문학가들, 신나는 축제를 늘 생각하는 축제기획가,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어 하는 대학 및 대학교수, 학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청소년), 이들이 모두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초기 출자금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처럼 초기 출자금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출자금은 올바른 교육과 수준 높은 문화체험 활동(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기획·공급하며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에 투입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벨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장소의 개념으로서 건물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작품이 상시적으로 전시되고 또 판매되는 갤러리, 일상적인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강의실, 또한 조합원들과 관계된 이웃들이 잠시 머물러 쉬어갈 수 있는 전용공간의 마련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금은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올곧은 교육과 수준 높은 문화를 배양하고 육성하는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설립을 위한 재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그룹 모임과 운영위원회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문화사업(문화예술·교육벨트 프로그램)이 펼쳐져야 한다. 따라서 각 수요자 (초·중등 청소년 혹은 학부모, 또는 교사 등)에 필요와 문화예술·교육적 과제들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가기 위한 풀뿌리와 같은 작은 소모임 즉 각 지역 혹은 관심별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생활협동조합」의 초기 세포조직인 「반 모임」과 같은 성격이며, 이 반 모임을 통해 생협에서는 생활재 구입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반 모임」은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을 포함하여 관심별, 분야별 소모임으로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원 총회가 아니라면 늘 의견을 교환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운영체로서 각 소그룹의 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협의를 해 나가는 의사결정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6)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기능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아이들(청소년)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1)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협력 자원 확보 및 관리·지원

안성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제안한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와 「소나무 갤러리」 그리고 「아힘나 교육문화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겠지만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시설 그리고 문화예술인, 전문인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게 될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에서 더 많은 협력자와 기관을 확대하여 모집하게 될 것이다.

(2)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홍보 및 상담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은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안성지역 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안성지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홍보하고, 안성지역신문, 경기방송, 안성시 홈페이지, 홍보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를 홍보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이용할 수요자를 모집하고 예약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벨트에 포함된 다양한 자원(시설 및 인적자원)의 예약 및 관리의 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7)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사업

(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의 운영

가. 청소년들의 생태체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 환경생태 체험학습
- 우리 마을 작은 산의 생태모니터링
- 우리 마을 생태지도 만들기

나. 놀이와 축제를 통한 공동체 체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벨트

- 안성문화여행과 놀잇감 공방에서의 주말가족캠프
- 마을 축제 만들기 - “삼삼오오, 옹기종기 애들아 노을자!”
- 대학동아리와 초·중·고 동아리가 연계하여 안성맞춤 축제만들기

다. 청소년의 직업체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벨트

라. 안성맞춤 장인(匠人)정신을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벨트

마.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벨트

- 숨·쉽·생 갤러리 여행 프로젝트

(2)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

유·초·중·고등 교사 및 사설 학원 교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미래는 문화다’의 새로운 콘텐츠(Contents)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의 의의와 흐름 읽기, 교육의 중요성’ 등의 강좌를 통해 인식의 전환을 도우며 일정한 방식과 제한된 표현 기술을 습득하는 기존의 실기 연수가 아닌, 창의적 표현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

한 교수 이론 및 다양한 표현 활동을 병행한 제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보다 심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강사 풀(POOL)을 형성하게 되고, 학교나 평생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3) 마을 만들기 캠페인

- 가. 마을 벽화 그리기를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나. 사라진 마을축제 되살리기
- 다. 평화로운 학교 환경 만들기 - 학교 폭력문화 추방 캠페인
- 라. 축제가 있는 마을 만들기
- 마. 지역의제 실천 활동

(4) 교사, 강사, 학부모, 지역 주민, 청소년을 위한 단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가. 우리문화체험마당
- 나. 현대미술의 이해 - “현대미술하고 놀자”
- 다. 아힘나 계절캠프
- 라. 우리마을 작은 음악회, 연극, 인형극 공연
- 마. 작가와의 수다떨기
- 바. 우리가 만드는 안성맞춤 축제 기획

8)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1) 주부의 힘으로, 마을공동체학교 만들기²⁴⁾

- 안성지역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마을학교 지도자 양성교육 -

① 목적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존재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부들을 언제까지나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소외시킨다면 주부 자신들의 자아정체감 상실은 물론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업주부들은 자녀양육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점을 살려 지역사회 내 마을학교(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부방, 방과 후 교실, 쉼터, 그룹 홈 등 포함) 교육활동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② 세부목표

- 세부목표 1. 주부들의 사회참여에의 자신감 형성

직업을 가진 여성보다 전업주부만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전업주부들도 사회참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 세부목표 2. 지역사회에서의 중요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능력 향상

가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나와 지역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주부가 지역사회에

24) 이는 2004년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가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마을학교 전문 교육기획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도심속에서 살아가지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고 개인적 삶의 가치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삶을 추구하며 올곧은 교육을 통해 내일의 인재를 키우며 생활 속에서 즐거운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의 주부들에게 '마을 학교 전문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도농복합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인 '마을공동체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 중요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목표 3. 실제 지역사회 내 사업수행을 위한 능력 검증
교육과정 중에 '현장실습'과 '마을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세부목표 4.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교육을 이수한 '마을학교 전문지도자'들을 관심분야별로 팀을 구성한 후 단체의 교사로 채용하거나 관련 단체로의 파견, 지역아동센터 창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의 중요성

-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전업주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의 사회 내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전업주부들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은 주부들의 자신감 결여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저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여성인력의 적절치 못한 사용과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여부는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라는 인적자원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지역은 마을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 마을공동체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마을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에 알맞은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할 수 있는 연구 및 지원체계의 마련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활동을 도와줄 지도자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건전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교육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사회인으로서 훈련을 해 나간다면 마을 공동체에서의 활동은 정규교과에서 얻기 어려운 성장에 있어 중요한 경험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④ 사업대상 : 마을공동체학교에 관심이 있는 여성(주부), 경지지역 거주 여성(주부)

⑤ 사업기간 : 4월 - 6월 (6주 12강좌)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30분

⑥ 사업의 전개방법

- 학부모회원, 언론매체, 종교기관에 홍보
- 본 단체의 지회가 있는 지역 광주, 오산, 용인을 중심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과정 실시 - '마을학교 전문지도자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교부
- '마을학교 전문지도자 양성교육'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육기관', '공부방'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
- '마을학교 전문 지도자 인력풀'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마을교육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마을학교, 지역아동교육센터 창업 지원방안 연구

⑦ 세부사업내용

-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과정	비 고
10:30 - 11:00	마음을 여는 시간 - 전래노래 배우기	-
11:00 - 12:30	첫 번째 강의	전문 강사
12:30 - 13:30	점심밥, 모둠별 WORKSHOP	-
13:30 - 14:00	모둠별 발표, 쉬어가는 프로그램	-
14:00 - 15:30	두 번째 강의	전문 강사

- 교육과정

< 필수과정 >

교육시간	교육과정	강사 (예정)
1주	1강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깨어나기 - 인간관계훈련	김 종 수 아힘나교육문화연구소 소장
	2강 새로운 교육운동의 흐름	
2주	3강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마을공동체의 특징-	문 재 현 마을공동체연구소 소장
	4강 마을공동체 교육운동과 마을학교 교육과정	
3주	5강 아이들 이해 (1) - 가족치료 프로그램	이 경 속 한신대학 교수
	6강 아이들 이해 (2) - 미술치료 프로그램	
4주	7강 지역사회이해(1)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힘나교육문화연구소 연구원
	8강 지역사회이해(2) 지역사회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5주	9강	전래동요를 배우면 우리문화가 보인다	편 해 문 선재놀이학교
	10강	생활공동체에서의 대동놀이	박 영 희 굿 연구소
6주	11강	마을학교의 설계 및 운영, 관리의 실제 -UNIONSCHOOL 만들기	조 진 경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대표
	12강	WORKSHOP - 꿈세우기	아힘나교육문화연구소 도움 : 이강숙 선생

< 선택심화과정 >

교육시간	교육 과정	비 고
선택심화과정 1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	김 종 수 아힘나교육문화연구소장
선택심화과정 2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	송 숙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사무국장
선택심화과정 3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	달팽이문화학교
선택심화과정 4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	전원길 · 최예문 소나무S갤러리
선택심화과정 5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	조진경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대표

☞ 선택심화과정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한다.

< 기타과정 >

- ◇ 개강식 / 수료식,
- ◇ 현장견학 / 현장실습,
- ◇ 모듬발표

⑧ 추진일정

일 정	주요내용	세부 추진 내용	
1월	전문가 자문 워크숍	세부계획 확정 및 준비, 전문가 자문 워크숍	
2월-3월	참가자모집	참가자모집, 홍보, 접수, 강사확정 섭외, 자료집 제작	
4월-6월	마을학교 전문지도자 양성교육실시	1주	개강식
		2주	필수과정 1차
		3주	필수과정 2차
		4주	현장견학 1차
		5주	필수과정 3차
		6주	필수과정 4차
		7주	현장견학 2차
		8주	필수과정 5차
		9주	심화과정 1차
		10주	심화과정 2차
		11주	필수과정 6차
		12주	심화과정 3차(3일)
7월	현장실습 (4주간) 모듬별 WORKSHOP	1주	실습선택 1.공부방, 방과 후 센터 2.캠프 실습 3.쉼터, 그룹홈
		2주	
		3주	
		4주	
8월	수료식 및 논문 발표회	수료식 및 논문 발표회(7일)	

⑨ 기대효과

- 마을학교 지도자 교육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머물러 살고 싶은 평화로운 마을로 만들어 가는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을 마친 여성들의 인력풀을 형성하여 각 지역에 알맞은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연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어린이,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주부들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⑩ 관리시스템

- 교육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형성하고 각 지역 및 초등학교에 특기적성(방과 후)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 지원 → 취업 희망자 취업지원 → 창업 희망자 창업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속적인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관심분야별 모임 활성화
- 장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체제구축
지역별 특성을 살려 실시하는 ‘마을학교’운영을 돕고, 본 기관은 ‘마을학교문화예술·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9)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의 대안미술교육센터 창작자유공간의 제안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해당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이 문화 예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나아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태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번 ‘안성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조성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이다.

이번 연구과정을 거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주체들인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갈증과 욕구의 폭이 매우 컸다는 점, 둘째,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관을 맺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풀어낼 마땅한 통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교사, 학부모, 청소년으로 망라되는 교육 수요 계층의 새로운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욕구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하여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의 접점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해법으로 만나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였다.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교육, 문화벨트이고 그 운영방안으로 문화 예술·교육협동조합을 제시하는 바이며 중요한 실천 요소의 하나로 대안 미술교육센터 가칭 '창·작·자·유·공·간'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창의적인 문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왜 창의적인 예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표현법 연구와 교수법'에 필요한 연구와 그것을 실현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지에 힘입어 창의적인 표현과 장르의 생성이 가능한 복합예술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창의성의 발휘 과정을 청소년과 일반인, 일선의 교사들에게 소개하고 직접 그들과 체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의적 표현을 위한 자유미술공간을 조성하여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과 청소년 및 교사, 일반인들이 창의적 표현의 의의를 이해하고 실험하는 연구 표현의 장으로 활용한다.

▶ 창·작·자·유·공·간 (도깨비방망이)

1. 창작자유공간의 역할

창작자유공간의 필요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 공교육을 대신한 새로운 문화,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의미가 사회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청소년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예술가들 간에 문화예술의 길라잡이 역할로서 학습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미술 체험과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교수법등 또한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산과 표현이 가능한 장소적 특성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 및 작가들과 만나 호응하고 토론하며 자유롭게 표현하는 가운데 진로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준다.
- 창의적 표현을 위한 자유 미술 공간의 조성은 지역 예술가들과 교사, 일반인들이 창의적 표현을 이해하고 실험하는 표현 연구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2. 창작자유공간에서 하는 일(프로그램의 내용)

1) 창작 세미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초빙해 작품을 감상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가운데 작품 세계 속에 반영된 작가정신과 작업에 대해 이해하는 본격적인 예술 감상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창작 표현교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 방법론을 토대로 자유롭게 실험적인 다양한 실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창작 표현연수

유, 초, 중·고등 교사 및 사설 학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미래는 문화다' 의 새로운 콘텐츠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의 의의와 흐름 읽기, 교육의 중요성' 등의 강좌를 통해 인식의 전환을 돕고 일정한 방식과 제한된 표현 기술을 습득하는 기존의 미술 실기 연수가 아닌, 창의적 표현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교수 이론 및 다양한 표현 활동을 병행한 제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창작미술 이론 강좌

미술사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창의적 표현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각도(사회, 과학, 역사, 철학, 종교, 인류학, 기타)에서 조명하는 이론 강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창작 자료실 운영

창의적인 표현 및 문화 예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열람 및 감상(비디오, 영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창작 자유 공간 추진계획

1) 공간 선정

- ① 독립된 건물은 크고 작은 각종 공방(도예공방, 목공방, 철공방, 판화공방, 만화, 일러스트 등)과 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해 약 200평 규모의 미술공간을 조성한다. 건물은 가능하면 기존의 일반적 건축양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단순한 구조와 디자인을 꾀해 최대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실험 정신의 표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예: 비닐 하우스 구조물, 칸막이가 생략된 실기실 등)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창작 실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잠시라도 콘크리트 숲에서 벗어나 흙, 나무, 곤충 등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새로운 공간의 건축이나 부지 마련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유사 공간의 시설과 연계하거나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금광면의 '문화마을', 미양면의 '소나무스튜디오갤러리' 등. 작품전시와 교육 기능, 입주 작가의 스튜디오가 있는 점 등과 '창작 자유 공간'이 상호보완작용을 하여 지역민의 문화 예술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 ③ 또는 안성시 소재의 다른 대안적 공간 확보를 모색한다.

- 2) 안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일원에서 작업하고 있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각종 장르의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자신들의 작업에 반영된 창의적 표현 사례와 방법론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 3)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 4) 각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그 결과물들을 전시하거나 평가 분석하여 자료화 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활용한다.

4. 창작자유공간의 기대효과

- 1) 일정한 장소에서 일관되고 심도 깊은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문화, 예술의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로부터의 위탁수업 실시는 제한된 공간에서 패턴화 된 표현으로 일관되기 쉬운 학교 시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작업실의 시설이 교육을 담당하기에 열악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각 예술가들의 작업실 등의 탐방시 잦은 이동으로 인해 자칫 관광형 체험학습이 될 수 있는 투어형 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2) 청소년들에게 전문 작업실 이상의 신선하고 활기차며 준비가 갖추어진 자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표현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창의적 의식이 자유롭게 유행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 하고 격려한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여 인적 자원을 양성해내는 기초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민으로서의 정주의식과 자긍심은 물론 문화시민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다.
- 3)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업공간을 직접 침해받지 않으면서 창작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고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므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일반인과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기회는 점차로 일반인의 작가와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게 된다.

- 4) 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되고 실시된 모든 내용은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향후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육이 요구되는 모든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 5)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에게는 인터넷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이곳에서 실시하는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며, 창의적 표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6)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안성시 자치단체와 안성시민들 역시 실제적인 수혜를 경험하고 향후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VI. 결 론

미국의 철학박사 베티 B. 영이 쓴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의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다. “가정은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등지이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리란 걸 알고 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도 비슷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구성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상당히 건강한 정서가 우러난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밖의 마을 환경이라고 믿는다. 정보화 사회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마을 (community)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는 환경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풍부하다. 다만, 이러한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다양한 주제로 벨트화하여 교육현장과 다양한 배움터에 제공하려 하고 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안성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적 체험을 위한 벨트를 제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화예술 및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다양하게 네트워크화 해 보려는 시도가 그 배경에 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안성의 문화예술인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넘어서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희망이라면 상호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과제는 오랫동안 습성화된 고정관념과 생활문제였다. 특히 학교의 교육 관료가 안고 있는 경직성과 그 경직성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현장에서 해 나갈 교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였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

리고 문화예술인에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창작활동을 위한 시간과 어려운 작업환경으로 인해 학생을 위한 봉사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과제를 넘어 희망을 실현시켜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노력이란 상호지원네트워크로서의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을 만들어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협조체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제도적인 지원이라 함은 문화예술 및 교육 전문가들이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만들어감에 있어 필요한 시설지원 및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뒷받침은 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며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교육청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이 있을 때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자원의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지원은 결국 아이 하나를 올곧게 키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이 될 것이고, 이 자양분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이러한 교류는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 물론 이러한 교류의 바탕에는 상호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할 것이다. 연구과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진단해보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상호 신뢰감'만이 협동조합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였다. 이것은 연구진 뿐 아니라 안성지역의 문화예술 및 교육자들과의 수차례의 만남에서 서로 확인한 내용이었다. 지역에서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지역과 더불어 일을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은 과제인 동시에 희망으로 남았다. 다양한 벨트의 단계적 실현,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현실화시켜가기 위한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을 통해 상호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의 가능성도 차츰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출발이고, 지역사회를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김종수·조진경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의 교육이야기5 - 방과 후 어린이 교육」.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2002).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성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 문태훈 「전원예술도시, 안성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시 만들기 -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자료집, (2002).
- 박공주 「기전문화예술 2003년 5·6월호」,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문화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네트워크를 찾아」. 경기문화재단, (2003).
- 박창남·김미정 「2001 특성화수련거리 8 '장인정신 체험활동」.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성낙구 「안성 향토사료집-인물과문화재를 중심으로」. 안성문화원, (2003).
- 임지현·민성환 「2001 특성화수련거리 7 '자연생태지도 제작활동」.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최윤진 외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황동열 외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부 록

“안성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조성과 그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 1.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반시설 및 운영현황(개인) -
문화예술공간 및 창작스튜디오의 현황과 학습 프로그램
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

설문 2.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육
구조사

안성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조성 과 그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책임연구원 김 종 수 (아힘나교육문화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조 진 경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대표)
전 원 길 (소나무S갤러리 대표)
최 예 문 (소나무S갤러리 기획실장)
강 원 재 (서울시 대안학교 기획전문위원)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031-674-9130

아힘나 교육문화연구소 031-672-9120

<http://www.cafe.daum.net/AhimnaEduCul>.

안성시 청소년 문화예술 · 교육벨트 조성과 그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안성은 높은 문화 · 예술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들이 바로 귀하와 또한 귀 단체 및 작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한 산업화 자본화 논리에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마저 종속되어 그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시민단체인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삼죽면 소재>는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창작스튜디오인 <소나무 갤러리-미양면 소재>와 더불어 교육과 문화예술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갖고 연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첫째, 안성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 교육 · 예술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조사하여 이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이른바 문화예술 · 교육벨트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문화예술 · 교육벨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설체로서 <안성문화예술 · 교육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 운영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의 타당성을 연구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벨트의 활성화는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다양하고 내용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안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귀하와 귀 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마땅하나, 우선 기초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 협조하여 주십시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와 <소나무 갤러리>는 귀하와 귀하의 단체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연구원 김종수, 전원길, 조진경, 최예문 드림

설문 1

안성지역의 문화예술 · 교육기반시설 및 운영현황(개인)

**문화예술공간 및 창작스튜디오의 현황과
학습 프로그램 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

- 이 름 : _____ (생년월일: ____ . ____ . ____) (남. 여)
 - 분 야 : _____ / _____ (예: 미술/금속공예)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연예, 전통, 건축 등)
 - 주 소 (자 택) : _____
(작업실) : _____
 - 전 화 : _____ H.P. _____
 - E · mail : _____ 홈페이지 : _____
 - 활동기간 : 약 _____ 년(_____ 년 ~ 현재)
 - 안성 거주기간 : _____ 년 _____ 월 ~ 현재 (약 _____ 년 _____ 개월)

※ 간단히 학력, 경력사항 등 자기소개를 첨부하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해당사항에 ○표 하여주세요.(경우에 따라 2개 이상 ○표 하셔도 됩니다)

5. 독립된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가. 없다
- 나. 가족과의 공유 공간 내에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다
- 다. 집 내에서 가족공유공간과 별도의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다
- 라. 집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별도의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다
- 마. 기타 (구체적으로:)

6. 독립된 행사 공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가. 없다
- 나. 집 내에서 가족공유공간과 별도의 독립된 행사공간을 가지고 있다
- 다. 집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별도의 독립된 행사공간을 가지고 있다
- 라. 기타 (구체적으로:)

활동지역의 여건과 관련

1. 안성시를 작업장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성장지 혹은 고향이므로
- 나. 입지조건이 좋아서(자연환경, 도시환경, 입지환경 등)
- 다. 친지 혹은 주위의 권유
- 라. 직장 혹은 자녀의 진학 등 작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 마. 기타(구체적으로:)

2. 지역 주민의 문화 정체성과 자부심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매우 그렇다
- 나. 비교적 그렇다

- 다. 보통이다
- 라.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 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3. 안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 가. 매우 그렇다
- 나. 비교적 그렇다
- 다. 보통이다
- 라. 알지만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 마. 기회가 별로 없었다

4. 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 가. 그렇다(구체적으로:)
- 나. 아니다

5. 위 내용중 가. 그렇다 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원래 활동영역이 그곳이어서
- 나. 안성지역이 활동지역으로 부적당해서
- 다. 안성지역에서 적절한 기회가 없어서
- 라. 특별한 뜻은 없다

6.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의 활동여건에 만족하십니까?

- 가. 매우 만족한다
- 나. 만족한 편이다
- 다. 그냥 그렇다

라. 전혀 그렇지 않다

마.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고 한다

7.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에서 활동하시며 만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가. 자연친화적인 자연환경

나. 타지방에 비해 예술인들의 분포도가 높고 많은 교류가 가능하다

다. 전시, 공연 등 작품 발표의 기회가 많고 활동이 활발하다

라. 예술의 도시답게 예술인에 대해 지역민들이나 정책이 우호적이다

마. 가족들의 주거, 교육환경으로 적절하다

바. 스튜디오나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입지조건이 타지방에 비해 유리하다

사.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직장 혹은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아. 기타(구체적으로:)

8. 창작예술인으로서 안성에서 활동하며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 전시, 공연 등 작품발표의 기회가 적고 활동의 기회가 적다

나. 문화예술에 대한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관심이 낮은 편이다

다. 스튜디오나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경제적으로 타지방에 비해 불리하다

라.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직장 혹은 수입원 창출이 힘들다

마.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정보도 늦다

바. 가족들의 주거, 교육환경으로 부적절하다

사. 기타(구체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환경 관련

1. 안성의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매우 바람직하다

나. 보통이다

다. 열악한 편이다

라. 잘 알지 못한다

2. 정부나 안성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가. 매우 잘 알고 있다

나. 비교적 알고 있다

다. 보통이다

라. 잘 모른다

바. 관심 없다

3. 지역문화예술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가. 그렇다

나. 그런 편이다

다. 아니다

4.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제공되고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가. 매우 만족스럽다

나. 바람직하긴 하나 일부 개선이 요구 된다

다. 보통이다

- 라. 부족하다
- 마. 관심 없다

5.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있으십니까?

- 가. 그렇다
- 나. 그런 편이다
- 다. 아니다

6. 본인의 창작활동과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의 충돌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고 어느 정도입니까?

- 가. 아니다
- 나. 그런 편이다 (구체적으로 :)
- 다. 관심 없다
- 라. 잘 모르겠다

7. 문화예술교육관련 공공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 담당 행정직원의 전문화
- 나.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 다. 기관운영을 전문인에게 위탁운영

8. 안성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 보다 많은 전시, 공연 등 행사와 관람
- 나. 공교육 외 다양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 다. 입시제도의 개선

라. 중·고등학교 교육제도의 개선

마. 기타(구체적으로:)

9. 안성의 문화예술 환경 혹은 정책 중 만족한 점을 3개만 서술해주시

오.

가.

나.

다.

10. 안성의 문화예술 환경 혹은 정책 중 개선해야 할 점 3개만 서술해주시
시오.

가.

나.

다.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와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관련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이란 이름이 생소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협동조합은 생명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공급받는 생활협동조합을 보면서 안성의 문화예술·교육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교육과 생명의 문화를 여럿이 함께 만들어 내고, 더불어 함께 나누기 위한 교육과 문화의 상생체를 이루어 가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1. 안성지역 내에서 작품을 발표하거나 작업장을 공개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내용 포함)

가. 그렇다

나. 아니다

2. 위의 답변 중 ()그렇다 인 경우 그 형태는?

가. 전시, 공연, 문학작품발표회 등 작품발표

나. 작업실 공개

다. 교육

라. 기타 (구체적으로 :)

3. 위의 답변 중 ()그렇다 인 경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가. 매우 만족(이유를 구체적으로:)

나. 만족한 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 보통이다

라. 아니다

마.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4. 위의 답변 중 (ㄴ)아니다 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기회가 없었으며 앞으로는 노력해보겠다
- 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 다. 필요를 느끼기는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다.

5. 창작발표,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 나. 문화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욕구 조사, 정보
- 다. 장소, 장비 등 시설
- 라. 프로그램 운영비
- 마. 홍보물 제작과 인쇄
- 바. 관객 혹은 수강생 모집
- 사.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 부족
- 아. 문화예술인 간의 지원과 협조 부족

6. 위의 답변 중 (ㄴ)아니다 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기회가 없었으며 앞으로는 노력해보겠다
- 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 다. 필요를 느끼기는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다.

7. 기존단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예술인 간의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가. 매우 그렇다
- 나. 비교적 그렇다
- 다. 보통이다

- 라. 상황 따라서
- 마.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8. 새로운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는 어느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친목과 교체
- 나. 전문적 연구와 교류
- 다. 지역사회봉사
- 라. 지역사회와의 교류
- 마. 행정단체기관과의 교류, 권익보호

9.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계신 활동 혹은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3년 이내 활동 포함)

- 가. 없다
- 나. 있다

10. 위 설문 중 (나) 있다 에 답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내용	기 간	장 소	담당분야	대 상
1		년 월~ 년 월			
2		년 월~ 년 월			
3		년 월~ 년 월			
4		년 월~ 년 월			
5		년 월~ 년 월			
6		년 월~ 년 월			

11. 저희가 제시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가. 동의
- 나. 그저 그렇다
- 다. 동의하지 않는다

12.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 나. 프로그램 내용의 참신함
- 다. 행정기관의 협조와 참여
- 라. 지역주민,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 마. 제도의 민주적 운영
- 바. 예산 확보
- 사. 참여

13.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안성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청소년, 혹은 일반 주민들과의 교류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가. 그렇다
- 나. 상황 봐서 하겠다
- 다. 창작활동에만 매진하겠다

14. 참여하신다면 활동 가능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가. 상황 봐서 결정 하겠다
- 나. 1주일 1회 이내
- 다. 1주일 2~3회 이내

라. 1주일 4~6회 이내

마. 월 1~2회 이내

15. 참여하신다면 그 대가는 유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맞습니까?

가. 유료가 적절

나. 무료가 적절

다. 경우에 따라서

16. 참여하신다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니 있는지 ○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활동 가능하신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 강좌 프로그램(구체적으로:)

나. 감상 프로그램(구체적으로:)

다. 체험 프로그램(구체적으로:)

라. 창작 프로그램(구체적으로:)

마. 기타 (구체적으로:)

17. 보유하고 계신 시설 혹은 기자재중 활용, 대여 혹은 교환사용 하실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

나.

다.

라.

마.

18. 앞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일
이나 필요한 일 혹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가.

나.

다.

19.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
램 혹은 작가를 3개(분)만 추천하여 주십시오.

가.

나.

다.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2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욕구조사

- | | |
|--------------|---------------------|
| ○ 이 름 : | (생년월일: . . .)(남. 여) |
| ○ 학 교 : | (초, 중, 고등) 학교 학년 |
| ○ 주 소 (주택) : | |
| ○ 전 화 : | - - , H.P. - - |
| ○ E · mail : | 홈페이지 : |
| ○ 재임기간 : | 약 년(년 ~ 현재) |
| ○ 안성 거주기간 : | 년 월 ~ 현재 (약 년 개월) |

※ 간단히 학력, 경력사항등 자기소개를 첨부하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황조사

1. 귀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만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수강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나요? (순서대로 표해 주십시오, 6번은 해당사항 없는 다른 학습 프로그램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
 나. 문화예술 학습 프로그램 ()
 다. 생태 학습 프로그램 ()
 라. 체능 학습 프로그램 ()
 마.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
 바. 기타 _____ 학습 프로그램 ()

3. 특기적성(방과 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는 어떤 분인가요?(복수 선택가능)
 가. 우리 학교 선생님
 나. 다른 학교 선생님
 다. 학원 강사
 라. 학부모
 마. 전문 강사
 바. 지역자원봉사자

4. 특기 적성교육일 경우 과목당 학습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월로 환산)

- 가. 우리 학교 선생님 (원)
- 나. 다른 학교 선생님 (원)
- 다. 학원 강사 (원)
- 라. 학부모 (원)
- 마. 전문 강사 (원)
- 바. 지역자원봉사자 (원)

5. 특기적성(방과 후) 프로그램은 과목당 일주일에 몇 번 실시합니까?

- 가. 1번
- 나. 2번
- 다. 3번
- 마. 4번

교육수요조사를 위한 설문

아래의 설문은 안성지역의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6.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특기적성 (방과 후)교육을 새롭게 기획하여 제공한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우선하여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
- 나. 문화예술 학습 프로그램 ()
- 다. 생태 학습 프로그램 ()

- 라. 체능 학습 프로그램 ()
- 마.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
- 바. 지역개발 프로젝트 ()
- 사. 봉사활동 프로그램 ()
- 아. 지역여행 프로그램 ()
- 자. 지역인사와의 만남 ()
- 차. 기타 _____ ()

7. 위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가. 1번
- 나. 2번
- 다. 3번
- 라. 4번

8. 안성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가. 예
- 나. 아니오

9. 8번 항목에서 '1) 예'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기관과 연계하신 적이 있
나요?

10. 8번 항목에서 '2) 아니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 안전상의 이유로

나. 학습비용의 이유로

다. 정보가 없어서

라. 기타 _____

11. 앞으로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를 운영하며 안성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교육예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귀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2. 11번 항목에서 '1) 예'를 선택하셨다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기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할 때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가. 예

나. 아니오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2004 - 03
안성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벨트 조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05년 12월 31일

발 행 인 송 태 호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1-7200 fax: 031-236-0283

www.ggcf.or.kr

인 쇄 디자인하우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문화재단
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